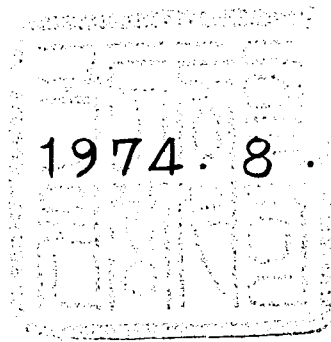


國土統一院關係報道論調集(南北韓)



國 土 統 一 院

目 次

1. 第一部 国内編	1
가. 発足關係	3
1) 国土統一院 発足	3
2) 国土統一院 어게 発足	3
3) 国土統一院 出帆	4
4) 国土統一院 発足에 기대한다	6
5) 全教科課程, 改編 檢討	8
6) 統一研委 中旬에 発足	9
나. 大統領閣下 巡視 關係	10
1) 統一問題 研究 拡大	10
2) 民間 統一 協議機構 設置	11
3) 北韓 專門家 養成	11
4) 優秀한 大学卒業生 選抜, 北韓問題 專門家로	12
5) 北韓 統一問題 專門家 養成	13
다. 歴代長官 記者会見 關係	14
1) 進一步하는 統一院	14
2) 統韓政策에 弾力性	16
3) 統一方案에 伸縮性 있게	17
4) 統一概念에 弾力性	18
5) 統一院의 課業	19
6) 「U.N 方式統一」에 伸縮性	21
7) 8.15 宣言 北傀態度따라	22
8) 北韓学体系 確立 時急	22
9) 「마라톤」選手처럼	24

10) 自体力量 培養으로 統一基盤을	24
11) 独逸式統一 힘에 模倣어렵지만 배울점 많아 地域組織	26
라. 歷代長官 外国訪問 關係	28
1) 申統一院長官 帰国	28
2) 申長官 오늘 向独	28
3) 統一資料 交換키로	28
4) 分断国 立場 論議	29
5) 西独 外務長官 만나	29
6) 金永善長官 내일 向台	29
7) 反共戰線 形成에 韓·中 主導權을	30
8) 金統一院長官 내일 西独 向發	30
9) 保社, 統一, 總務 世長官에게 向欧	30
10) 金統一, 徐總務長官, 西独 英国訪問 出發	31
11) 金統一院長官에 勳章 西独政府 授与	31
12) 金統一院長官 勳章 西独政府서	32
13) 南北赤會談, 進展에 關心	32
14) 美国務次官 訪問要談 金統一院長官	32
15) 「닉슨」周會談 따른 某種의 对策마련	33
16) 金統一院長官 帰国	33
17) 金統一院長官 帰国	33
18) 金總理, 「파리」로	34
19) 金統一院長官 帰国	34
20) 金統一院長官 出国	35
21) 「코스타리카」向發	35
22) 金統一院長官 帰国	35
23) 「파키스탄」中美巡訪	36

24) 「그레나다」와 大使級 修交	36
25) 韓國, 「그레나다」大使級 修交合意	37
26) 金統一院長官 歸國	37
27) 金統一長官 歸國	38
마. 統一關係	39
1) 政 策	39
가) 金統一院長官 統一政策 밝혀	39
나) 統一어렵지만 悲觀해서 안 돼	40
다) 南北의 平和統一方案은 前提條件없는 對話뿐이다	40
라) 平和統一方法은 「對話」뿐	41
마) 平和統一은 「對話」뿐	42
2) 機 構	43
가) 各種 反共團體 國土統一院 一元化	43
나) 統一問題 研究委	43
다) 統一院으로 統一하라	44
라) 統一院機能을 強化 5道廳等 吸收 方針	45
마) 統一院機構強化 以北 邑面長 任命	46
바) 統一院 年內 機構改編等으로 性格 轉換	46
사) 統一院 「統一安保教育센터」化 推進	47
아) 統一院 南北問題 講師팀	47
자) 統一院機能強化 安保教育센터化	48
차) 「統一安保教育센터」로 統一院 講師「풀」제	48
개) 統一安保教育 「센터」化를 推進	49
타) 統一院 執行機構로 轉換	50
파) 統一安保問題 講演會 演士 늘어	51

3) 業 務	53
개 兪足한지 한달이 되는 国土統一院	53
나) 統一業務를 一元化	53
다) 民間 研究團體의 活用方案	54
라) 先建設 後統一原則 贊成	54
마) 統一時期는 10年内	56
바) 先建設 後統一	57
사) 平和統一 爲한 本格作業 着手	59
4) 人 事	60
개 世長官에 任命狀	60
나) 統一院次官 李圭學 任命	60
다) 統一院調查室長 孫官道 任命	60
라) 統一院 企劃室長 柳泰鉉 씨 任命	60
마) 政府 一部關係 更送	61
바) 野, 金氏 入閣에 反應 참작	62
사) 統一院에 一括辭表 旋風	63
아) 国土統一院 調查室長 金而鉉 任命	63
자) 統一院 政策室長 卍인선 兪令	64
차) 統一研修所長에 金永俊 任命	64
개) 統一院 企劃室長 李晦榮 兪令	64
태) 統一院 弘報室長 禹在昇 任命	64
과) 統一院 金溶植長官 任命	65
하) 統一院 簡泳洙 兪令	65
5) 其 他	66
가) 金鍾泌總理, 統一院 現況 들어	66
나) 對日外交 生疎하지 않아	67

다) 外務部 予算通過 統一院 予算도	67
라) 어제 勝共蹶起大会	67
마) 外務部·統一院 予算 7億 增額키로	68
바) 「統一」懸想作品 當選者 施賞式	68
사) 選舉에 이기기 위해 곧 떠나야	69
아) 統一院 5周年을 맞아 記念式 갖음	69
자) 「北韓問題 百問百答」주문殺到	70
차) 統一은 의욕앞서 智慧가 必要	70
바) 国会答辯 關係	72
1) 統一總選 對策 研究	72
2) 外交 統一政策 質議	73
3) 安保統一 問題 質議	74
4) 새 統一教育案 檢討	74
5) 北送 구태여 反對안해	75
6) 統一論議 4段階로	76
7) 4段階 統一論議	77
8) 予決委 오늘 係數調整	78
9) 国会 本會議 質議 答辯	80
10) 外交統一政策 質議	80
11) 北韓 政治單位로 認定 안해	80
12) 對外秘 基準 밝혀라	83
13) 들락날락해서 더 非能率	83
14) 南北會談 業務管掌 檢討	84
15) 南北對話 進行狀況 資源外交展望質問	85
16) 南北對話等 對策 質議	86
17) 南北對話等 質議	86

18) 韓·美 防衛條約 現在론 吳고쳐	86
19) 北傀 - 動向報告 聽取	87
20) 北傀動向 微妙	88
21) 北傀움직임 微妙	88
22) 南北對話 統一院 管掌 檢討	89
23) 南北對話 一元化 檢討	90
24) 南北對話 一元化 檢討	91
25) 南北對話의 모든問題 統一院서 主管 檢討	91
26) 南北韓 對話主管 統一院에서	92
27) 統一院 科學的 平和統一 理論 정립중	93
28) 科學的 統一理論 정립에 努力集中	94
29) 實質的 統一條件 改善 智慧 必要	94
30) 對話 無條件 再開 摸索	95
31) 外交 安保 影響없나	96
사. 學術세미나 關係	97
1) 「統韓」國際세미나	97
2) 「統韓」國際學術會議	97
3) 統韓의 國際的 環境	98
4) 韓國이 北傀앞서야	99
5) 主權 無視 統一 안돼	99
6) 統一學術會議 開催	101
7) 平和統一 外交宣言 支持	102
8) 統韓 學術大會	102
9) 「南北韓 關係」세미나 開催	103
10) 分斷 固定 法的根拠 될수 없다	103
11) 民族 同質性 回復에 于先 努力하자	105

12) 統一條件 實質的 改善을	106
13) 「過程으로서의 統一」目標	107
14) 于先 南北往來 物資交換을	109
15) 4 강 韓半島 安定期待	110
16) 金統一院長官 提議 北傀側서 拒否	112
아. 顧問會議 關係	113
1) 統一諮問委員 36 名 青瓦台 報告	113
2) 諮問委員 確定	113
3) 統一院顧問委員長 ▪ 백낙준 ▪ 選出	114
4) 統一院 顧問委員 新設	115
5) 南北對話 意見 들어	115
6) 南北對話 經過 說明	115
7) 在野顧問 10 名 招致 北傀 - 動向論議	116
8) 在野元老 南北問題 意見交換	116
9) 顧問 12 名에 感謝牌	117
10) 南北 懸案事態 論議 顧問招請	118
11) 國土統一院 顧問會議	118
12) 南北關係 全般 協議	119
13) ▪ 許政 ▪ 씨等 顧問 17 名이 參席	120
第二部 北傀編	121
가. 大統領閣下 國土統一院 初度巡視	123
1) 反逆者의 口에서는 反逆의 소리밖에 나올것이 없다	123
2) 朴○○ 은 國土統一院 年頭巡視 자리에서 妄言	126
3) 分裂主義者들의 惡辣한 反共發作	126
4) 朴○○ 國土統一院에 들러 호통	129

나. 施政非難	131
1) 南朝鮮 統一長官 段階論에 對해서 다시 들고나옴	131
2) 自主의 平和統一을 불보다 두려워 하는 者들이 지르는 悲鳴	133
3) 統一院長官의 反共教育論	138
다. 長次官 国会發言 非難	139
1) 民族分裂의 反逆길로 繼續나가려는 売国徒党的 파렴치한 妄言	139
2) 統一院長官 国会에서 妄言	142
3) 統一院長官 国会에서 詭辯	143
4) 外勢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은 統一을 하려는 態度가 아니다	146
5) 統一院次官 国会 外務委員會에서 한바탕 수선	150
라. 各種 學術會議 非難	151
1) 統一院 學術會議	151
2) 그 어떤 策動으로서도 民族反逆의 罪行을 正当化 할 수 없다	152
3) 金○○ 學術會議 致辭에서 妄言	155
4) 分裂主義者의 口에서는 分裂타령밖에 나올것이 없다	156
5) 永久分裂을 合理化하기 위한 詭辯	158
6) 分裂主義者들의 謀略騷動	160
7) 學術의 이름을 盜用한 反共騷動	164
마. 懸賞作品 施賞式 非難	167
1) 南朝鮮의 国土統一院長官 段階論을 高唱	167
2) 統一을 願치않는 者들의 얼빠진 잡소리	168
3) 段階論은 統一을 가로 막자는 것이다	170
바. 其 他	174
1) 새로운 裁判彈圧	174

第三部 附 録	177
가. 73年度 政府施策	179
나. 全南大学校 統一問題 學術會議 長官致辭	191
다. 全国 基督教青年 協議會 「統一祈願禮拜」長官致辭	203
라. 高大 硯研主催 「韓半島 周辺情勢斗 南北韓 關係」 學術會議 長官致辭	208

第一部 国内編

- 가. 発足關係
- 나. 大統領閣下 巡視關係
- 다. 歴代長官 記者会見 關係
- 라. 歴代長官 外国訪問 關係
- 마. 統一業務 關係
- 바. 国会答辯 關係
- 사. 學術세미나 關係
- 아. 顧問會議

가. 發 足 関 係

1) 国土統一院 發足

< 69.3.1 서울(記事) >

国土統一院은 1日上午 11時半 槓忠洞 자유「센터」안에 마련된 새庁舎에서 朴正熙大統領을 비롯, 李孝祥国会議長, 閔復基大法院長, 丁一權國務總理등 3府要인과 駐韓外交使節, 学界, 社会团体 代表들이 參席한 가운데 懸板式 및 開院式을 갖고 正式으로 發足했다.

朴大統領은 이날 유시를 통해 『앞으로 国土統一院은 國民의 충지를 모으고 統一에 관한 汎國民的이고 超党的인 討論의 広場으로 문호를 넓게 開放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朴大統領은 『統一院이 統一에 관한 모든資料를 調査하여 綜合整理하고 집대성하여 短期的 中期的 또는 長期的 政策目標와 方向을 설정함으로써 政治, 外交, 軍事, 教育, 社会, 文化등 各分野에 反映시켜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国土統一院은 28日 아직 發令되지 않은 政策企劃室長에 柳泰茲 經濟科学審議會議 審議室長을 教育弘報 室長에 趙東河 前韓國反共聯盟 外部長을 各各 內定 來週중으로 正式 任命할것으로 알려졌다.

2) 国土統一院 어제 發足

< 69.3.2 한국(記事) >

国土統一院이 1일상오 11시반 자유「센터」에 마련된 새庁舎에서 朴正熙大統領을 비롯한 三府要人 駐韓外交使節 및 社会团体 代表들이 참가한

가운데 開院式을 거행, 66年 7月 国会에서 논의 2년반만에 정식으로 完
 足되었다. 朴大統領은 이날 유시를 통해 「統一院은 國民의 衆智를 모아
 政府와 民間團體에서 부분적이고 단편적이며 즉흥적으로 論議되던 統
 一問題를 앞으로는 綜合的 包括的으로 綜合 体系化하여 統一에 대한 超黨
 的인 政策目標와 方向을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 하는 短期, 中期 및 長期的
 인 細部事業計劃이 索出되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3) 国土統一院 出帆

- 民族宿願위한 知慧集中의 広場되어야 -

< 69.3.1 한국 (社說) >

오래産苦끝에 国土統一院이 3.1節을 期해 正式 開院한다. 建國후 처음
 으로 政府안에 統一問題를 다루는 常設 專担機構가 設置된것은 우선 國民
 的인 한결같은 줄기찬 統一意慾을 象徴한다는 見地에서 歡迎할만하다.

統一院은 國務總理 밑에서 「国土統一에 關한 問題를 綜合的으로 調查研究
 하고 統一方案과 統一후에 諸般政策 및 国土統一에 關한 弘報宣傳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게 된다.

우리의 으뜸가는 國家目標가 南北統一의 實現이라고 할적에 統一院앞에 提
 起된 課題는 실로 거창한 것이며 長. 次官이하 全体成員이 드높은 使命
 感속에 一大 奮發을 다짐해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政策企劃, 調查, 教育弘報등 3室과 總務課를 통틀어 그
 人的構成과 予算配當이 充足하다고는 말할수 없는 형편이다.

그렇수록 少数精銳主義의 貫徹과 동시에 幅넓은 官民協調의 確保를 促求
 하게 된다.

원래 国土統一院研究機關의 設置에 關한 国会審議와 國民輿論의 最大公

約數로 볼것은 与.野 官.民共同機構로서 民族의 知慧集中을 爲한 研究와 對話의 広場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있었다.

이事情을 勘案할적에 統一院이 무엇보다도 自戒할바는 그存在 樣式이 官僚事務主義에 물든 小規模의 形式的 機構 또는 情實에 의한 補職待機処 등으로 轉落해서는 안되겠다는 局面이다. 成敗의 關鍵은 그동안 統一問題를 제각기 研究해온 關係機關 및 民間学会와의 協調達成을 綜合, 調整機能에 달려 있다고 볼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附言해야 할것은 統一院, 自体가 専門學術人材의 參與 擴大過程에 獨自의인 研究成果를 示顯해야할 當爲性이다. 이것을 欠如한다면 威信問題는 且置하고 라도 院外 研究者들에 의해 「귀찮은 存在」로서 外面當할 憂慮가 없잖은 데다가 본시 研究成果 내지 調査資料의 統合集中이란 自体素養을 前提로 해야만 可能的 법이다.

勿論 国土統一問題는 巨視的 眼目에서 「어프러치」되어야 하며, 또 国土統一院은 研究機能을 主로하는 만큼 執行機關과 混同視될바 아니다. 그러기에 院의 發足에 거는 期待는 性急할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 언젠가는 기어이 있을 統一機會의 到來에 즈음해 失機 않고 対応할 수 있는 準備를 갖추는데 容與하는 것 以上の 것을 당장 바랄수는 없다. 우리 國民은 이미「感傷的」 統一論議를 일삼을 겨를이 없다. 統一院은 統一論議로 하여금 着實한 學術的 바탕을 갖추게 하면서 먼저 研究의 第1步인 資料蒐集부터 손대어 可能的 統一努力을 國民的「에네르기」動員裡에 展開할 참이다.

나아가서 統一院은 단순한 共產圈研究機構가 아니다.

우리의 統一이 「方案」 以上으로 「條件」에 規制된다는 考察로 미루어 民族의 宿願達成을 위한 主体的 條件 즉 우리의 多方面的인 自体準備와 客觀的 條件 즉 國際情勢의 關聯的 變化에 대해 不斷한 洞察 對処 努力이 아쉽게 된다. 統一의 機會는 앞서 기다릴것이 아니라 그條件形

成에의 能動的 作用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統一院發足에 巨視的인 期待感에 부른 激勵을 보내면서 國民이 「우리의 것」으로 実感할 수 있도록 關係者一同의 發奮을 刮目 注視하라고 한다. 이경우 國會내에 設置키로 予見된 対応인 特委構成이 또한 國民的 關心事로 될 것이다. 統一努力에서 不撓不屈의 進一步 前進을 다같이 期約할 契機라고 생각한다.

4) 國土統一院 發足에 기대한다

< 69.3.1 서울(社說) >

우리 民族의 宿願인 國土統一을 위해 온國民의 知慧를 모을 國土統一院이 마침내 3月1日에 發足 되었다. 지금까지는 國內外的 모든 여건이 統一問題의 積極的인 論議를 어렵게 만들고 있었으나, 이제 우리는 이 問題를 能動的으로 다룰 만한 힘을 갖추게 되었다. 우리는 統一院의 發足を 契機로, 안으로는 自由力量을 더욱 強化하며 밖으로는 우리의 統一達成을 容易하게 하는 國際的 狀況을 造成하는데 한층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는 外部勢力의 개입이나, 武力으로 統一을 達成하려는 생각은 없다. 우리 國土의 절반을 占據하고 있는 共產勢力이 그 内部矛盾 때문에 스스로 崩壞될 것이 예견되고있는 이때, 우리의 精神的 物質的 힘을 發展. 強化하여 그들을 圧倒함으로써 統一目標을 達成하려는 것이다. 反共精神의 함양, 民主主義制度의 發展을 통한 民族的 團結, 그리고 經濟計劃의 成功的인 遂行을 통한 힘의 培養은 그러한 目標達成을 위해 튼튼한 밑천이 되는 것이며, 우리는 지난 7, 8년 동안의 努力에서 이에 처한 自信을 갖게 되었다.

国土統一院의 機能은 첫째 国土統一의 方案과 거기에 따르는 制반목표를 研究 發展시키고, 둘째 統一에 關聯된 國內외의 資料, 特히 北韓事情에 關한 資料를 蒐集, 分析하고, 셋째 統一課業을 國內외에 널리 宣傳하는데 있다. 지금까지 統一方案에 關해서는 많은 意見이 나왔었으나, 거의가 이상에만 치우쳐 現實性이 없는 癖이 있었다. 심지어는 北傀의 가장된 「平和統一」主張에 장단을 맞추는 망동까지 있었다.

이는 統一方案을 体系的으로 다루는 求心點이 없었고 또 北傀의 의도와 北傀의 實情을 充分히 理解하지 못한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統一院은 統一問題에 關한 國民의 輿論과 專門家들의 知慧를 綜合하고 体系化하며, 統一問題를 올바른 方向으로 이끌어가도록 精確한 資料를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統一問題의 論議가 國內에서는 거의 「터부」視 되는 傾向이 있었는데 반해 海外에서의 研究가 더 活潑했던 느낌이 있다. 統一論議의 中心은 어디까지나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며, 局外者들의 論議는 우리의 利益을 가볍게 다루거나, 統一의 方向을 그릇 이끌어갈 위험이 있다.

이런 점을 바로 잡는데 統一院의 國內외 公報活動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統一院의 機能이나 지금까지의 入選은 대체로 好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몇가지 덧붙여 強調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는 統一問題 研究에 從事하는 要員의 地位問題이다. 그들이 統一問題研究에 專念할 수 있도록 그 地位가 保障되어야 하며, 政治情勢의 變化 때문에 큰 影響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마음을 붙이고 研究에 從事할 수 없으면 統一院은 성과 있게 課業을 遂行할 수 없다. 둘째는 統一問題를 間接적으로 다루고 있는 다른 機關, 예를 들면 國防部, 國家安保會議, 中央情報部, 反共聯盟, 이북 5道庁 등과의 緊密한 協助가 必要하다. 서로가 배타적인 態度로 協助를 外面한다면 統一院은 그 機能을

發揮할 수 없다.

統一院의 役割에 대한 國民의 기대는 크다. 統一院은 이 기대에 부응하도록 努力해야 하며, 또한 은 國民은 이의 課業을 측면에서 積極도 와야 할 것이다.

5) 全教科課程 改編 檢討

- 統一院에 研究委 反共教育強化策으로 -

< 69.4.1 中央(記事) >

国土統一院은 統一政策의 樹立을 위해 諮問委員 30名과 研究委員 50名으로 구성되는 統一研究委員會를 곧 構成키로 했다. 國務會議을 거치는대로 이달 중순께 發足하게 될 이研究委의 研究結果는 行政府의 各分野 施策에 반영키로 했는데 研究對象에는 反共教育의 強化를 위한 方案과 그에따른 全教科課程의 改編問題로 包含되는 것으로 1日 알려졌다.

国土統一院이 마련한 「研究委員會案」은 各界의 元老級人士를 諮問委員으로, 各分野의 專門家들을 研究委員으로 委囑, 正·副委員長은 長·次官이 맡기로 했다.

研究委는 ①統一問題에 관한 意見 및 輿論의 綜合 ②統一問題의 專門的研究 ③社会·學術団体와의 유기적 協助 ④對内外弘報活動 및 國民輿論의 향도등이다.

統一院은 올해안으로 각研究委員들에게 研究課題를 提示, 그 결과를 各部에 通告하여 行政에 反映시킬 예정이다.

統一院측이 마련한 研究「테마」가운데는 經濟開發計劃의 推進으로 休戰線以南에 形成될 産業構造가 統一以後에 미칠影響과 그시정책등도 包含되어 있다.

統一院은 研究委員 人選도 大體 妥當 하였는데 諮問委員에는 李孝祥 郭尚勳 白樂濬씨 등이 包含되어 있으며 研究委員에는 各分野의 大學教授와 言論界 人士들이 內定 되어 있다.

6) 統一研委 中旬에 發足

< 69.4.2 한국(記事) >

國土統一院은 統一政策을 綜合的으로 調整, 樹立하기 위한 「統一研究委員會」를 構成키로 하고 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치는 대로 이달 중순에 이를 發足시킬 豫定이다.

諮問委員 30名과 研究委員 50名으로 구성되는 委員會는 ①統一問題에 關한 意見 및 輿論의 綜合 ②統一問題의 綜合的研究 ③各級社會 研究團體의 유기적 협조 ④대내의 弘報活動 및 國民輿論의 향도등을 다루며 各研究委員들에게 研究課題를 전달시켜 그結果를 各部에 제시 行政에 反映시킬 방침이다.

統一院에 구상하고 있는 統一政策은 經濟建設과 國防力強化 및 多元的인 積極外交活動의 전개 등은 물론 國民의 反共思想을 고취하는데 주력하게 될 것이며 이委員會의 구성에는 各界의 元老級人士들을 대폭 위촉 포함시킬 豫定이다.

이번 國會에서 處理한 案件들로 獨寡占 規制法案 地自法改正案, 私學特監 처리방안 8개 財政借款 同意案 통과 經濟問題 전반에 關한 大政方針의 등을 例擧하고 「與.野協助의 精神을 유감없이 發揮하여 냉철한 審議를 거쳐 所期의 成果를 거두도록 해달라」고 當부했다.

與.野는 2일 상오 總務會談에서 이번 國會의 會期와 의사일정을 決정한다.

나. 大統領閣下 巡視關係

1) 統一問題研究 擴大

- 大學·言論機關에 研究委設置 勳獎 -

< 72.1.19 京鄉 (記事) >

朴正熙大統領은 中央官署巡視 7일째인 19日 援護処 總務処와 統一院을 巡視, 새해 主要業務 計劃을 報告받았다. 朴正熙大統領은 援護処巡視에서 『援護對象者중 3백 80명의 無住宅獨立有功者들에게 집을 優先적으로 지어주도록』指示했다. 朴大統領은 『援護對象者들이 自立自助精神을 갖도록 指導하라』고 말하고 『模範援護者들에게는 農協을 통해 中·長期 低利資金을 支援해주는 方案을 研究하고 優秀한 遺子女學生들에게는 特別獎學金과 留學獎學金의 惠沢을 주도록하라』고 指示했다. 朴大統領은 이어 『水原에 있는 再活院에 技術指導를 強化하여 좋은 品質과 收益性이 높은 製品을 만들어 많은 收入을 올리라』고 擔부했다.

金永善統一院長官은 이날 業務報告에서 『지금까지 서울에 편승했던 統一研究機關과 反共教育機關을 地方으로 擴散하고 中央및 地方大學과 言論機關에 統一問題研究設置를 勳獎하여 地域的 特殊性과 諸般條件에 맞도록 推進하겠다』고 말했다.

金長官은 『統一問題와 北韓에 對한 여러資料를 集大成하여 北韓資料 綜合센터를 推進, 大學및 言論機關에 設置될 統一問題研究所의 關係者에 開放하겠으며 反共教育內容을 整備統合하겠다』고 報告했다.

金長官은 또 『平和統一을 위한 國民의 올바른 認識과 國論統一을 기하기 위해 統一教育의 重點을 社會教育에 두고 散在한 反共教育機關을 정비, 통합하겠다』고 報告했다.

2) 民間統一協議機構 設置

- 관계 연구소에 北韓資料支援 -

< 73.1.27 京鄉(記事) >

朴正熙大統領은 27일 상오 国土統一院을 巡視, 金永善統一院長官으로부터 새해 業務計劃을 報告받았다.

金長官은 이날 새해 主要施策으로 ①統一協議機構設置 ②統一關係 研究所에 對한 北韓資料의 繼續支援등을 報告했다.

金長官은 報告에서 『全國에 散在하고 있는 各界各層의 社會團體중 統一에 關係된 團體를 中心으로 民間團體主導의 統一協議機構를 設置하여 組織화된 民主統一力量을 構築하고 이를 基盤으로 民間統一外交의 強化, 海外僑胞團體와의 紐帶強化를 積極 전개 하겠다』고 말했다.

金長官은 또 『北韓資料의 綜合센터化로 大學 및 言論機關의 統一研究所를 비롯해서 各大學圖書館에 統一關係基本資料를 提供 하겠다』고 報告했다.

金長官은 統一教育強化方案으로 關係部처와 協助하여 統一教育을 위한 시청각교재 및 傳達教育用 統一教育指導教範을 開發, 普及할 計劃이며 特別히 国土統一院傘下機關인 統一研究所의 教育對象을 擴大 하겠다고 말했다.

金長官은 새次元의 統一教育方向을 具體적으로 재정립하여 統一主導勢力의 저변을 擴大하는 한편 國民의 民主信念과 民族主体意識을 生活化시키도록 主力 하겠다고 말했다.

3) 北韓專門家 養成

- 우수大卒生 선발 -

< 74.2.1 新巫(記事) >

朴正熙大統領은 1일 상오 援護처와 国土統一院을 각각 年頭巡視하고

柳根昌 援護 処長과 金溶植 統一院長官으로부터 새해 主要業務計劃을 報告받았다.

金長官은 이날 『南北對話期에 南北關係에 대한 우리國民들의 理解를 넓히기 위해 北韓關係資料를 폭넓게 開放하겠다』고 報告하고 『특히 大學生 및 知識人과의 허심탄회한 對話와 討論을 통해 統一安保 價值觀 確立에 努力하겠다』고 報告했다.

金長官은 北韓關係資料開放의 方案으로 『統一院資料室을 北韓資料센터로 發展시켜 大學 및 言論機關研究所에 北韓資料를 提供한후 漸進的으로 國民的 次元으로 資料開放을 擴大해나갈것다』고 말했다.

金長官은 또 『平和統一 成 就를 위한 現實的 條件造成을 위해 注力하는 한편 平和統一에 관한 靑寫眞을 提示할수 있도록 統一院의 固有한 位置와 業務를 定立, 發展시켜 나갈計劃』이라고 말하고 『統一問題研究의 일관성유지를 위해 關係部處와 協助, 優秀한 大學卒業生을 選拔하여 政治, 經濟, 外交, 軍事등 諸般分野에 걸친 北韓 및 統一問題 專門家를 養成하고 이들을 長期勤務시킬수 있는 制度的 措施를 강구하겠다』고 報告했다.

金長官은 이러한 政府의 基本方針을 우리國民은 물론 海外僑胞 및 外國人들에게 널리 認識시키기 위해 對內外 統一弘報活動을 強化하고 極東問題나 分斷國問題를 研究하는 海外研究所와의 相互協助體制를 보다 緊密화하겠다』고 報告했다.

4) 優秀한 大學卒業生 選拔 北韓問題 專門家로

< 74.2.1 서울(記事) >

金溶植 統一院長官은 1일 『平和統一 成 就를위한 現實的 條件造成에 주력하는 한편 平和統一에 관한 靑寫眞을 제시할 수 있도록 統一院의 固有한 位置와 業務를 定立. 發展시켜 나가겠다』고 朴正熙大統領에게 報告했다.

金長官은 또 이報告에서 『統一問題 研究의 일관성 維持를 위해 優秀한 大學卒業生을 選拔하여 北韓 및 統一問題 專門家로 養成, 長期勤務을 할 수 있는 制度的 措置를 強求하겠다』고 밝혔다.

金長官은 이밖에 올해 施策으로 ①平和統一을 위한 政府의 基本方針에 대한 國內外 弘報를 強化하고 ②極東問題나 分斷問題를 研究하는 海外研究所와의 相互 協助體制를 보다 緊密히 하며 ③南北關係에 처한 國民의 理解를 넓히기위해 北韓關係資料를 폭넓게 開放하는한편 統一院 資料室을 北韓資料「센터」로 發展시키겠다고 報告했다.

5) 北韓 - 統一問題 專門家를 養成
- 統一院 서 報告 -

< 74.2.2 朝鮮 (記事) >

金溶植国土統一院長官은 1일 大統領年頭巡視에서 北韓關係資料의 폭넓은 開放을 통해 國內의 統一弘報活動을 強化, 北韓 및 統一問題專門家養成에 努力하겠다고 朴正熙大統領에게 報告했다.

다. 歷代長官 記者會見關係

1) 進一步하는 統一院

— 研究의 自由와 뒷받침에 疎忽없기를 —

< 69.5.6 한국(社說) >

申泰煥國土統一院長官은 24일 就任後 첫번째인 公式記者會見에서 政府의 統一研究推進方向과 이 新設機構의 運營構想을 밝혔으며 아울러 36명의 諮問委員名單을 發表하였다.

지난 3월 1일을 期해 統一院을 發足시킨 肯定的意義와 進取성을 살려 나가려는 몇가지 새 着想이 두드러져 있다. 우선 ① 統一方案은 「유엔」 監視下 人口比例 南北總選舉實施를 大前提로 하는데는 다른이 없으나 앞으로 國際情勢의 變化에 따라서는 彈力성을 갖게 할 수도 있다는것

② 統一院을 広場으로 하는 研究와 論議에서는 自由雰圍氣를 積極 保障할것등이 다짐되었다. 그밖에 오는 9月 統一問題에 관한 國民輿論調査實施, 10월의 統韓研究에 관한 國際「세미나」開催, 다른 分断國에 대한 實態調査進行, 各界統一促進 努力의 統合的調整 및 育成을 展望한 것이다.

요컨대 統一研究가 從前에는 흔히 「터부」視되면서 가끔 圧迫感 조차 云謂되던 것을 앞으로는 陽性化하며 國利民福을 위한 智慧集中方向에서 善導하겠다는 抱負의 闡明이라고 生覺된다. 우리의 統一論議도 이제와서는 特殊機關 一任印象과 더불어 無責任한 散發的 氣分的發言을 免될수 없는 게 된 것이다.

統一의 方案으로 말해도 그것은 民族의 自体準備度와 國際情勢의 有利한 配合를 함께 勘案하는 條件의 省察에 立脚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4.19 이후 제 5대 國會統一論議도 「유엔」의 決議를 「尊重」한다는 線이었지 결코 順從을 固定化시키지는 않았던 것이다. 統一方案의 彈力성과

時에 統一推進努力을 國內에서 뿐만 아니라 國際적으로 幅을 넓혀 展開하는 것은 條件形成에의 能動的作用이라고 當然視된다.

그러나 諮問委의 人的構成에 대해서는 識者評에 회의傾向도 적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勿論 與·野各界의 元老級人士들을 網羅했다는 점에서는 首肯이 간다. 또 諮問委員은 반드시 斯界의 專門家아니라도 足할듯하다 하지만 老壯 「네임 벨류」本位의 看板体制과 같은 印象이 길다고 한다.

그런데 諮問委의 機能을 본시 研究活動이나 政策決定에 있지 않고 그 橋梁的位置에서 方向을 審議하며 國民的 「에베르기」를 動員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여차피 「일하는 體制」로서 統一研究 및 論議에의 보다 더 日常적이고 活氣充滿한 參與는 諮問委와는 別途構成으로 될 研究委에 期待해야 할 것이다. 그 民間人 參與者일수록 統一問題가 애당초 官庁에만 내맡겨질 性質의 것이 아니라는데서 不斷한 關心과 드높은 使命感 밑에 空談 아닌 研究実績을 蓄積해 나갈 必要가 있겠다. 研究委와 諮問委의 有機的인 連繫가 單純히 報告文書만으로는 圖謀될 수 없다는 局面도 省察되어야 옳을 것이다.

두말할것도 없이 國家目標인 南北統一의 成就是 國土統一院이라는 1개 部廂만의 課題에 沒어질 수 없다. 이 與·野官民共同機構의 研究事業을 뒷받침할 豫算, 人員面의 補完措置가 時急히 促求된다.

統一院을 次要視한다든지 그 事業이 火急한것 이니라는등 近時眼的인 官僚思考方式은 國民興望을 어기며 大局을 그르칠 수 있다고 指摘해 마땅하다. 資料面의 相互協調나 交流 및 有機的連結에 疎忽이 없어야 할 것이다.

統一院은 與·野官民共同機構로서 이제 그 組織的內實을 갖추어나갈 참이다. 國民의 參與意識을 일깨우며 國內外的으로 統一「에베르기」를 漸次的, 長期的으로 動員, 蓄積할 다음 步驟가 重要하다.

2) 統韓政策에 彈力性

— 9 월 에 輿論調查 실시 —

< 69.5.24 中央 (記事) >

申泰煥 国土統一院 院長官은 24일 記者會見을 갖고 『統一에 관한 어떤 사고방식도 받아들여 最大公約數를 찾아낼 수 있도록 統一概念을 彈力性있게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申長官은 『變遷하는 國際情勢에 따라 世界各國의 戰略政策이 수시로 변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모든 變化에 대응할 수 있는 伸縮性있는 統一政策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면서 『必要에 따라서는 「유엔」 감시하의 人口比에 의한 南北韓 總選舉라는 統一政策도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주목할만한 發言을 했다.

申長官은 그것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申長官은 또 統一研究業務가 共產圈문제에 관련된 것이나 『統一院안에서의 研究는 反共法에 저촉되는 問題에 이르기까지 最大限의 自由를 保障하겠다』고 다짐했다.

발족 3 개월이 된 統一院은 ① 政府各部處에 分散되어 있는 統一業務의 一元化 ② 統一이전, 統一過程, 收復以後等 3 段階의 研究體系確立 ③ 国会內의 統一常任委 新設推進 및 反共聯盟등 全國에 散在한 統一運動團體의 統合等 統一運動體制確立을 內容으로 한 基本運營案을 마련, 지난 21日 朴正熙大統領에서 報告한 바 있다.

申長官은 오는 9月 國民輿論調查를 實施하고 오는 10月~11月 11日 「워싱턴」 또는 「사우드·캐롤라이나」大學 國際問題研究所에서 共產圈 및 統一問題 專門學者 1백여명을 모아 「韓國統一세미나」를 開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 統一方案 伸縮性있게

— 「人口比例 總選舉」 다시 檢討 —

< 69.5.24 서울 (記事) >

申泰煥 統一院長官은 24일 上午 『統一問題研究 体系確立을 위해 지금 까지 「더부」시 되어온 統一論議를 陽性化시키고 統一問題에 관한 어떠한 思想도 받아들여 最大公約數를 찾아내 統一問題를 彈力性있게 研究해 나가 겠다』고 政府의 방침을 밝혔다.

申長官은 이날 統一院 院足以後 첫 公式記者會見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變遷하는 國際情勢의 推移에 따라 政府가 지금까지 내세워온 「유엔」監 視下의 土着人口比例에 의한 自由選舉라는 基本統一概念도 앞으로 伸縮性있 게 檢討되어야 하며 그 수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申長官의 이같은 發言은 政府의 基本統一問題에 관한 基本概念에 대한 조심스런 수정으로 解釋될 수 있다.

申長官은 이어 『汎國民的인 統一運動体系確立을 위해서 國會안에 統一研究委員會를 設置, 行政府·立法府·民間團體가 三位一體로 統一을 위한 努力의 広場을 찾아야 한다.』고 強調, 國會안에 國土統一研究委員會를 設置하기 위해 立法府와 具體的인 作業을 推進하고 있음을 明白히 했다.

申長官은 統一院의 基本運營計劃은 ① 政府 및 民間機構로 散在돼 있는 反共團體, 統一業務機構를 一元化할 수 있는 統一業務 体系一元化 ② 統一問題를 그 이전과 그 과정과, 그 이후로 3分하여 伸縮性있게 대처할 수 있는 統一問題 研究体制의 確立 ③ 分斷各國의 統一研究 作業과 같이 統一에 관한 民間促進協議會, 國會의 國土統一研究委員會등을 두도록 하는 統一運動体系의 確立등이라고 밝히고 이것은 지난 21일 朴正熙大統領에게 報告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韓國統一問題를 變遷하는 國際情勢에 맞추어 國際輿論을 회기시

키기 위해 오는 10월「워싱턴」에서 韓國統一問題「세미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4) 統一概念에 彈力性

· 9 月에 輿論調査 · 研究自由保障 ·

< 69.5.25 韓國 (記事) >

申泰煥 国土統一院長官은 24 日 「統一에 대한 概念은 彈力性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이제까지 統一論議의 大前提였던 「유엔」監視下의 人口比例에 의한 自由選舉를 통한 南北統一論도 國際情勢의 變遷에 따라 우리에게 유리할 때는 修正될 수도 있는것」이라고 시사했다.

申長官은 이날 취임후 첫 公式記者會見을 갖고 「統一問題에 대한 지금까지의 消極的인 態度를 止揚, 變遷하는 國際情勢에 따라 우리立場에 유리하도록 伸縮性 있게 다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統一院은 國家保安法과 反共法等의 制約이 있지만 統一研究의 自由를 保障하기 위해 努力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国土統一院의 基本運管方針을 ① 統一業務의 一元化 ② 統一研究体制의 確立 ③ 統一運動體系의 確立에 두고 統一論議의 陽性化와 善導를 위해 오는 9 月 輿論調査를 실시하고 각종 「세미나」와 講演會를 열것으며 西獨의 「統獨促進協議會」와 같은 全國的인 民間團體의 統合조정방안을 檢討하고 있다고 밝혔다.

申長官은 이어 「統一問題에 대한 國際輿論을 환기시키고 다른 分斷國家들의 統一問題에 관한 研究와 情報를 얻기 위해 西獨 自由中國등과 같은 分斷國家에 調査團을 파견할 예정이며 이들 分斷國家와의 協議體構成 可能性도 타진해 보겠다」고 말하고 『오는 10 월께 「워싱턴」에서

韓國統一問題와 共產圈問題를 研究해온 1백여명의 學者들을 招請, 「세미나」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5) 統一院의 課業

< 69.5.26 中央 (社說) >

國土統一院의 申長官은 就任후 첫公式記者會見을 갖고 統一問題에 대한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態度를 지양, 統一논의가 變遷하는 國際情勢에 따라 우리立場에 유리하도록 伸縮性있게 다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統一院은 統一問題에 관한 研究의 自由를 保障하기 위해 努力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國土統一院의 基本運營方針을 ① 統一業務의 一元化 ② 統一研究體制 確立 ③ 統一運動體系 確立에 두고, 統一論議의 陽性化와 선도를 위해 오는 9月에 輿論調查를 실시하고 國內外에서 각종「세미나」와 講演會 등을 열 것이며 각종 民間統一促進團體의 統一造成方案을 檢討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와같은 구상은 國土統一院의 초대長官이 同院의 基本運營方針을 밝힌 것이어서 근청할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보는바 統一院의 活動方向에 대한 國民의 기대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리 政府의 統一業務 관장은 여러 機關으로 分散되어 있는데 그 機構와 業務를 모두 統一院傘下에 一元的으로 집중해줄 必要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統一業務를 다루는 機關이 政府의 여러 府廳사이에 分散되어 있었던 것은 統一院이라는 專門的 機構가 없었던데다가 部廳마다 現實的인 필요에 부딪쳐 당해 部廳이 임기응변으로 統一業務를 다루는 機關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統一院이 充足된 이상 統一業務機關을 종전대로 分散·多元化한

때 방치해 둘것이 아니라, 이를 一元化하여 統一院소관으로 맡기는 것은 당연한 요구라 볼 수 있다. 이 要求가 充足되는 경우에라야만 政府는 人員·經費·努力을 効率的으로 집중사용해서 業務遂行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다음 統一院은 統一問題에 대한 調査研究, 그리고 弘報의 機構를 정비하고 이 方面의 活動을 強化해야 한다.

이미 政府는 各界元老級人士 36명에게 「統一자문위원」을 위촉한 바 있지만 이와같은 諮問委員會의 構成은 주로 統一問題에 대한 초당파적 協力を 얻기 위한 政治的 措置이지 그 自体가 研究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보다 더 重要한 것은 統一問題를 실제로 研究해나갈 專門的인 人士들로서 研究委를 組織하고 이들로 하여금 비단 韓國의 統一문제뿐만 아니라 分断國家의 統一問題를 폭넓게, 진지하게 調査研究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申長官은 10月에 「워싱턴」에서 1백여명의 學者를 招請해서 韓國統一問題에 관한 「세미나」를 開催할 豫定이라 했다. 이런 計劃은 점차로 淸遠의 彼岸에 사라져가고 있는 韓國問題에 대한 國際的關心을 재환기시키는 의미에서 意義있는 일일 것이다.

끝으로 統一院은 國民으로 하여금 統一문제에 대한 關心을 부단히 갖게 하고 統一을 원하는 國民의 政治的「에너지」를 결집하는데 앞장 서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輿論調査, 統一路線에 대한 세밀한 「피·아르」, 民間統一團體의 統合·調整등 여러 가지 事業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런 모든 事業은 對共心理作戰의 基本戰略에 합치되도록 전개되지 않으면 안된다.

20余年을 두고 造成되어온 南北간의 敵對的對立을 냉정히 주시하는 사람이라면 결국 國力を 培養하여 實力으로 北傀를 밀어젖히는 외에 統

一의 方法이 없다는 結論에 이르게 되는데 統一論議의 陽性化가 南北간 平和共存의 夢想을 자아내는 일이 없도록 깊이 조심해야 한다.

統一院이 이상과 같이 많은 業務를 遂行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人員과 豫算으로는 不足이 너무도 심할 것이다. 統一院의 存在를 有名無實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점 政府의 各別한 配慮가 있어야 할 것이다.

6) 「U.N 方式統一」에 伸縮性

一 젊은世代 勝共教育強化 一

< 70.2.21 한국 (記事) >

申泰煥統一院長官은 20 일상오 「交還하는 國際情勢아래서 韓국의 統一政策은 「유엔」監視下의 總選方案에만 고착되어 있을 수는 없으며 彈力的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우리의 統一方案은 「유엔」總會의 의견을 통해 再確認 된 「유엔」方式이지만 現在로선 이 方案이 가장 유리한 때 문이며 그밖의 統一方案도 계속 研究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申長官은 이날아침 西狹政府 招請으로 訪獨하기에 앞서 가진 記者會見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① 國際社會에서 敵을 명확히 確認, 우리의 敵을 最小한도로 줄이고 ② 親共中立國 等에도 과감히 진출해야 할 것이라고 強調했다.

이날 統一에 대한 國民輿論調査結果를 發表한 申長官은 ① 이번 調査結果를 통해 「유엔」監視下의 總選方案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統一方案에 대한 의견이 산만하고 ② 世代間의 의견차가 현저하며 특히 共產主義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世代에 대한 反共教育을 強化해야 할 必要性을 느꼈다고 說明했다.

7) 「8.15 宣言」北傀態度따라

- 多角的 對策講究 -

< 70.8.12 韓國 (記事) >

金永善統一院長官은 17일 『政府는 朴正熙大統領의 8.15 宣言에서 나타난 提議를 北傀가 받아들일 경우와 거부할 경우에 대해, 多角的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北傀가 이를 거부한다면 상투적인 平和공세를 내세워온 그들의 자가당착을 폭로하는 결과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金長官은 「現在의 상황으로 미루어 戰爭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北傀가 우리의 提議를 수락할 可能性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지만 北傀가 韓國문제에 관한 「유엔」의 권능을 인정한다면 政府가 反共法과 國家保安法 등 관계법을 개정하는데 贊成한다』고 말했다.

金長官은 또한 『北傀가 「유엔」의 권능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 段階에서의 성급한 統一論議는 경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反共教育의 現實的인 強化를 위해 광범한 資料를 수집중에 있다고 말했다.

8) 「北韓學」體系確立時急

訪台엔 本土收復집념에 놀라 -

< 71.3.10 韓國 (記事) >

金永善 統一院長官은 「自由中國은 本土收復에 대해 執念과 意志와 確信을 갖고 있음을 느꼈다』고 지난 21일부터 1週日間 台灣을 돌아보고 온 所感을 말했다.

金長官은 『中國의 大陸光復設計委, 戰地政務委, 司法行政調查局 등에서

中共問題 全般에 關한 資料分析 研究는 大陸收復의 理論的基礎가 될 수 있는 中共學의 段階에 이르렀다』고 높이 評價하고 『韓國에서도 「北韓學」을 發展시켜 統一을 爲한 學問의 體系의 確立이 時急하다』고 강조하기도.

金長官은 또 『自由中國의 本土收復은 政治7, 軍事3의 比重을 두어 먼저 中共의 內部붕괴를 誘發할 수 있도록 政治工作에 置重하고 있다고 方法論을 說明하면서 「大陸光復設計委는 常任委員만도 1千명이 넘고 本土收復이전 台灣建設에 力點을 두고 정책立案을 하며 세부사항은 國民黨 4組, 2組에 이관, 執行토록 하고 있다』고 실정을 傳했다.

『土地改革의 成功과 3百 「달러」에 이르는 1인당 國民소득 31억 「달러」의 年間수출액등은 놀라운 사실이었다』고 대만의 경계를 말하는 金長官은 「자유中國의 物價上昇率이 年2%로 安定되어 있고 年間 30%의 무역신장율을 보이고 있어 中共이 현재 41억 「달러」의 수출입 실적을 올리고 있으나 成長率이 5%밖에 안되기 때문에 무역면에서도 中共을 누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訪台를 계기로 金長官은 밖으로는 올해 안에 자유中國 郭驥비서장, 西獨 內務省次官 「베셀」씨 등을 한국으로 초청, 統一問題에 關한 意見을 나눌 계획이며 안으로는 해방후 北傀의 戰略, 戰術에 關한 資料와 北傀의 經濟統計를 수집하는등 보다 적극적으로 統一태세를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또 『蔣總統을 만났을때 85세의 老齡인데도 棼 健康하고 人자한테 感銘을 받았다』고 말하는 金長官은 「韓中間에 무슨 비밀이 있겠느냐」 무슨 資料나 要求하는데로 다주라』고 蔣總統이 郭비서장에게 말했을때는 머리가 숙여지더라고. 「英」

9) 마라톤 選手처럼

< 72.6.22 東亞 (교섭) >

지난 4일부터 1週日동안 「후랑케」內獨省장관 초청으로 西獨을 방문하고 돌아온 金永善 국토통일원 장관은 22일 기자회견을 자청하고서도 『統一問題를 국민에게 자주 알리고 싶으나 그것이 또 相對方에게는 좋은資料가 된다』고서 「오프 더 레코드」를 연발.

旅毒으로 입술이 부르터있는 金長官은 西獨訪問중 「후랑케」長官 및 議會指導者들을 만나봤다고만 말하고 그 具體的 人物도 밝히기를 꺼려하면서도 그러나 만나본 사람들 모두가 『南北赤十字會談을 韓國측이 「이니시어티브」를 취해 열게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며 칭찬하더라고.

金長官은 또 獨逸의 統一問題도 남의 나라문제니까 더이상 얘기하지 말자면서 『北傀가 最近 위장평화공세를 對內的으로 쳐고 있는데대한 韓國의 対応策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마라톤 선수처럼 자기 「페이스」대로 나가는 것뿐』이라고 가볍게 받아 넘겼다.

10) 自体力量 培養으로 統一基盤을

— 「유엔」에 의한 政策은 非동적 —

< 72.6.23 京郷 (記事) >

東伯林 事件으로 서먹해졌던 韓獨 (西獨) 關係는 지난 4일부터 1주일간 西獨을 訪問한 金永善 国土統一院長官에게 西獨政府가 성수수교공로훈장을 수여함으로써 다소 정상관계를 찾은 듯한 느낌이다.

「프랑케」內獨相의 招請으로 西獨정 부고위 관리, 研究所, 經濟団体등을 두루 살피고 20일 歸國한 金長官에게 우리나라 統一의 처방을 들어본다.

「브란트」의 東進정책의 現實的 可能性 과 실천이 統韓政策의 「모델」로 가능한 것인가?

統一된 獨逸의 歷史는 과거에 1백년밖에 없었다. 現在는 4대국協約 EEC (歐州)共同市場), NATO (北大西洋條約기구) 등 지역협력기구로 西獨의 安保上 보증을 받고 있다. 더욱 重要的 것은 東獨정권의 武力統一정책의 포기가 「브란트」의 東進政策을 가능케 한 것 같다.

그러나 韓半島는 어떤가. 여전히 北獨는 소위 人民民主主義 革命을 버리지 않고 위장평화공세 속에 非武裝地帶의 진지구축등 전쟁준비만 강화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에게 지역협력기구도 없다. 다만 그들의 統一準備 作業이나 技術的인 면은 참고가 될것같다.

「유엔」을 통한 統一이라는 政策은 變質되었는가?

中共의 「유엔」가입과 印·「파」 사태는 「유엔」의 變化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유엔」에만 依存한 통일정책은 피동적이다.

따라서 「유엔」의 統韓努力을 환영하면서도 自體의 力量培養으로 통일기반을 조성해야 할것으로 본다. 그리고 地域協力機構가 없다는 점에서 對美관계의 강화와 자체의 역량배양을 통한 통일추구가 되도록 推進해야 할것같다.

海外에서 듣고 느낀 북괴의 평화공세와 南北赤十字회담의 평가는?

6.25 를 거쳐 4半世紀의 分斷이 북괴의 말처럼 하루아침에 정상화된다고 서구의 식자들은 믿질 않으며 赤十字회담은 韓國측의 「이니셔티브」로 進行되고 있음은 國際潮流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統一院장관으로서의 統韓이 요구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 ① 단일民族이라는 歷史性 ② 人道的측면 ③ 家族을 만나겠다는 離散家族들의 개인적 자유추구권이라는 개인적 측면 ④ 安全維持와

經濟發展의 促進이라는 점에서의 국가적 측면 ⑤ 분쟁블씨의 제거라는 의미에서 국제적 측면 등 5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보겠다.

11) 独逸式統一 ... 地域組織힘에 模倣어렵지만 배울점 많아

< 72.6.23 한국 (記事) >

統一문제에 관한 資料수집과 視察을 위해 약 1주일간 西獨을 訪問하고 지난 20일 귀국한 金永善統一院長관은 22일 상오 『앞으로 統一政策은 보다 組織的이고 体系的인 調査研究와 技術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귀국소감을 말했다. 內獨關係省 長官의 초청으로 西獨을 訪問, 內獨省 外務省 國防省등의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교환을 하고 참고자료도 교환했다는 金長官은 南北赤十字회담에 대해 『세계조류에 부응하는 韓國의 「이니시어티브」를 모두 칭찬하더라』고 했다.

独逸式 統一方式에서 우리가 도입할 것은 무엇인가

『西獨은 자신의 국력보다 「나토」EPC·4大國 協約등과 같은 강력한 지역 協力機構의 뒷받침으로 東方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었다.

이와같은 지역조직의 힘으로 추진되는 독일식 統一方案을 우리가 모방하기란 어렵다. 다만 그들이 推進해온 統一을 위한 준비·調査·研究·技術등은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번 訪獨을 계기로 現在의 統一政策을 補完할 생각은?

『最近 「유엔」이 變質되어 「유엔」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나 現在로선 「유엔」을 통한 統韓政策을 떠나서 統一을 생각할 수는 없다.

우리는 「유엔」에 의해 樹立·承認·방위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엔」을 통한 統韓努力에 우리의 自主的 努力이 더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視察을 통해 믿을 것은 자기 힘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경제건설에 의한 国力배양과 국토통일 단합등이 지금 우리로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統一을 위한 具體的 方法은?

『金日成은 최근 위장평화공세를 펴고 있으나 우리로서는 ① 人道的접촉 ② 非政治的 접촉 ③ 정치적 접촉이라는 3단계방안을 고수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西獨도 현재처럼 정치적 협정을 체결하기 까지에는 通信교류와 사람의 왕래 경제교류등 여러단계를 거쳐왔다.』

라 . 歷代長官 外國訪問關係

1) 申統一院長官 歸國

< 69.7.31 한국 (記事)>

申泰煥統一院長官은 自由中國의 大陸光復設計委員會의 活動狀況을 視察하고 30일하오 KAL便으로 歸國했다.

2) 申長官 오늘 向獨

< 70.2.21 한국 (記事) >

申泰煥統一院長官은 「이골 . 프란츠」西獨의 內獨關係相 (전 全獨問題省)의 招請으로 약 10일간 西獨을 公式 訪問하기 위해 21일하오 KAL 便으로 「프랑크푸르트」로 떠난다.

3) 統一資料 交換키로

- 申長官 , 西獨과 -

< 70.2.25 한국 (記事) ;

韓國의 申泰煥國土統一院長官과 西獨의 「에콘 . 프랑케」內獨關係相은 23일 國土統一을 위한 韓 . 獨 兩國政府의 施策에 관한 情報를 定期的으로 交換키로 합의 했다.

申長官은 닷새동안 西獨에 머무르는 동안 西「베르린」도 訪問한다.

4) 分断国 立場 論議

< 70.2.26 한국 (記事) >

「본 24日 DPA =合同」 訪独중인 申泰煥 国土統一院長官은 24日 「구스타브, 하이네만」大統領과 會議, 같은 分断國家인 韓, 独문제를 論議했다. 정통한 消息通等은 양자가 韓國情勢와 앞서 合意된 韓独文化關係強化에 關係 자세한 意見交換을 가졌다고 말했다.

5) 西独外務次官 만나

< 70.2.27 한국 (記事) >

「본 25日 DPA =合同」 5일간 予定으로 西独을 訪問중인 韓國의 申泰煥 統一院長官은 25日 西独外務省을 訪問 「게오르크. 테르디난트. 두크비츠」次官과 한시간 동안 要談했다.

6) 金永善長官 내일 向臺

< 71.2.20 한국 (記事) >

金永善 統一院長官은 自由中國政府 招請으로 오는 21日 THAI 편으로 台北을 訪問한다.

金長官은 訪台期間中 中國高位指導者과 韓, 中 相互協力에 關係 意見交換을 갖는 한편 光復大陸研究 委員會의 研究實績을 돌아보고 中華學術院에서 名譽博士學位를 받을 予定이다.

7) 反共戰線 形成에 韓·中 主導權을

< 71.2.24 한국(記事) >

「台北 22日 AFP = 合同」 金永善 韓國統一院長官은 22日 韓國과 自由中國은 「垂細垂」에서 反共統一戰線을 形成하는데 「이니셔티브」를 掌握해야 한다고 말했다. 1주일간 自由中國을 訪問하기 위해 21日 이곳에 到着한 金長官은 이날 世界反共聯盟 名譽會長인 谷正綱씨를 訪問하고 「아시아」의 自由民들을 「아시아」에서 自衛와 安全을 守護하기 위해 反共統一戰線이 必要하다는데 谷正綱씨와 意見 一致를 보았으며 또한 韓國과 自由中國은 이러한 統一戰線結成에 앞장서야 한다는데 同意했다.

8) 金統一院長官 내일 西獨向發

< 72.6.1 京鄉(記事) >

金永善 國土統一院長官은 西獨政府 公式訪問을 위해 오는 2일 하오 2시 KAL 機便으로 떠난다.

西獨政府의 招請을 받고 떠나는 金長官은 이번訪問에서 西獨政府要人과 國會指導者 및 各界主要人士들과 韓獨 兩國간의 關心事를 論議한후 東西獨 伯林障壁과 分界線을 視察할 予定이다.

9) 保社·統一·總務 世長官 向歐

< 72.6.3 東亞(記事) >

李炳鎬保社部長官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世界人間環境會議에 參席키위해, 金永善統一院長官은 西獨政府招請으로 西獨을 視察

키위해, 徐壹教總務處長官은 英國의 行政管理制度를 視察키위해 2日오후
각각 公로出國했다.

10) 金統一·徐總務長官 西獨·英國訪問 出發

< 72.6.3 한국 (記事) >

金永善統一院長官과 徐壹教總務處長官은 각각 西獨政府와 英國政府의 招
請을 받고 2일하오 2시 KAL편으로 現地로 떠났다.

西獨政府의 招請을 받은 金長官은 「브란트」首相을 西獨政府要人들과
만난후 15일째 歸國할 予定이며 徐長官은 英國의 人事行政制度를 살펴
보고 「프랑스」 「취스」등에 들른뒤 24日 歸國한다.

11) 金統一院長官에 勳章 西獨政府 授與

< 72.6.8 東亞 (記事) >

「본 7日 DPA =合同」 金永善統一院長官은 7日 西獨政府로부터 韓獨理解
增進에 寄與한 公로로 성수 功勞勳章을 授與받았다.

金長官은 東 西獨간의 接觸과 「유럽」情勢를 視察하기 위해 西獨을
訪問 중이다.

12) 金統一院長官 勳章 西獨 政府서

< 72.6.9 한국 (記事) >

「본 7日 DPA = 合同」 金永善統一院長官은 7日 西獨政府로 부터 韓 . 獨理解增進에 寄与한 공로로 星綏功勞勳章을 授与받았다.

13) 南北赤會談, 進展에 關心

< 72.6.15 京郷 (記事) >

「워싱턴 = 趙庸中 특파원」 金永善統一院長官은 14日 美國務省의 「알렉시 스. 존슨」次官과 만나 30여분 會談, 南北韓赤十字會談등 兩國간의 問題를 協議했다. 金長官은 이날 金東祚駐美大使를 同席시켰는데 「존슨」次官은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指向하는 南北韓赤十字會談의 進展에 關心을 表明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長官은 西獨을 訪問한 뒤 歸路에 美國에 들러 美國의 關係人士들과 接觸하고 있다.

14) 美國務次官 訪問要談 金統一院長官

< 72.6.15 東亞 (記事) >

「워싱턴 = 15日 權五琦特派員」 「워싱턴」을 訪問중인 金永善統一院長官은 14일 오후 美國務省으로 「알렉시 스 존슨」次官을 訪問, 要談했다. 金長官은 12日부터 16日까지의 「워싱턴」체재가 『個人的인 用務를 위한 것이다』고 말하고 「존슨」次官과의 要談內容을 밝히지 않았다. 金長官은 「워싱턴」訪問에 앞서 「뉴욕」의 「허드슨」研究所에 들러 「허만칸」소장을 만나 「칸」씨를 韓國으로 招講했다고 말했다.

한편 張炯淳国会副議長도 「워싱턴」에 체재중이나 그의 訪美目的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15) 닉슨·周恩來會談 따른 某種의 対策 마련

< 71.11.24 한국(記事) >

金永善統一院長官은 23일 『政府는 「닉슨-周恩來 會談」에서 韓國問題가 討議될 可能性 및 이에따른 最惡의 事態에 대처하기 위한 某種의 対策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內容을 밝힐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히고 『지금까지 中共과 修交를 위한 予備會談을 모색한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16) 金統一院長官 歸國

< 72.6.21 한국(記事) >

金永善統一院長官은 20일하오 6시 30분 KAL편으로 歸國했다.

17) 金統一院長官 歸國

< 72.6.21 東亞(記事) >

金永善統一院長官은 西獨과 美國 등지를 돌아보고 20일하오 KAL기편 歸國했다.

18) 金總理, 「파리」로

- 金統一長官, 盧外務次官 대동 -

< 74.4.4 서울(記事) >

金鍾泌 國務總理는 「조르주. 폼피두」 「프랑스」大統領의 葬禮式에 政府의 公式用問 使節로 참석키 위해 4일 하오 2시 KAL편 「파리」로 떠난다.

金總理는 金溶植 国土統一院長官, 盧信永 外務部次官, 韓相國總理儀典秘書官 鄭仁亮公報秘書官을 帶同하며 「도쿄」에 잠시 머무른 뒤 이날밤 9시 「에어. 프랑스」便으로 北極항로를 거쳐 「파리」로 直行할 予定이다.

金總理는 「폼피두」大統領의 葬禮式과 追悼 미사에 참석한뒤 「프랑스」政府 高位人士들과 非公式 接觸을 갖고 韓. 仏兩國간의 懸案問題에 대한 특별은 협의도 가질것으로 보인다. 金總理는 오는 10일께 歸國할 予定이다.

19) 金統一院長官 歸國

< 74.5.30 朝鮮(記事) >

金溶植 国土統一院長官은 약 3週間에 걸친 中南美巡訪을 마치고 29日 오전 11시 30분 KAL편으로 歸國했다.

지난 7日 코스타리카共和國大統領就任式에 大統領 特使로 참석했던 金長官은 歸路에 인근 3개국을 巡訪 이들 국가와의 友好增進方案을 協議했다.

20) 金統一院長官 出国

< 74.7.6 東亞 (記事) >

金溶植国土統一院長官은 大統領特使로 「파키스탄」과 中美수개국을 巡訪하기 위해 7日午後 空路出国한다.

金長官은 아직 우리와 正式外交 關係가 없는 「파키스탄」을 訪問한후 中美의 「카리브」沿岸 6個국을 巡訪 이地域 指導者들과 만나 여러分野에 걸친 協力增進方案을 協議할 予定이다.

21) 코스타리카 向發

< 74.5.7 한국 (記事) >

「뉴욕 6日 = 金泰雄特派員」 金溶植統一院長官은 코스타리카大統領 就任式에 大統領特使로 參席차 6日상오 11시 15분에 뉴요크로 떠났다.

就任式에 參席후 金長官은 파나마를 비롯한 中南美諸국을 親善訪問한다.

22) 金統一院長官 帰国

< 74.5.30 朝鮮 (記事) >

金溶植国土統一院長官은 약 3週間에 걸친 中南美巡訪을 마치고 29日 오전 11시 30분 KAL편으로 帰国했다.

지난 7일 코스타리카共和国 大統領就任式에 大統領特使로 參席했던 金長官은 帰路에 인근 3개국을 巡訪 이들 國家와의 友好增進方案을 協議했다.

23) 파키스탄 · 中美巡訪

< 74.7.6 한국(記事) >

金溶植 国土統一院長官은 大統領特使로 파키스탄과 中美各國을 巡訪하기 위해 7일 하오 2시 30분 KAL便으로 出國한다.

金長官의 이번 巡訪에는 李昌熙 駐멕시코大使(現地合流), 金光 国土統一院 綜合調整官, 崔東鎮 外務部東南亞 1 課長이 隨行 한다.

24) 그레나다와 大使級 修交

< 74.8.2 朝鮮(記事) >

中南美 칼리브海地域 5개국을 巡訪 중인 金溶植 統一院長官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그라나다를 訪問, 에리마튜 게이리首相과 양국간에 大使級 外交關係를 樹立키로 合議했다고 2일 外務部가 밝혔다.

金長官은 訪問을 마친후 共同聲明을 發表했으며 게이리首相에게 韓國을 公式訪問토록 招請 게이리 首相은 이를 受諾했다.

그라나다概況

英國의 準自治領으로 있다가 74년 2월 7일 獨立. 인구 10만 5천명에 국토는 1백 33평방마일인 카리브 自由通商地域(CALIFTA) 5개국의 일원, 韓半島問題에 전통적으로 中立主義를 지키던 이들국가 가운데 그라나다의 单独修交결정은 나머지 트리니다드토바고, 가이아나, 바베이도스, 하이티에 影響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금년 6월 5일에 유엔加入 申請을 내어 今年 總會에 加入이 確實시되고 있다. 農業國으로서 主產物인 코코아 바나나 原綿을 輸出, 담배 化學製品 및 機械類를 輸入.

25) 韓国・「그레나다」大使級 修交合意

< 74.8.3 서울(記事) >

大統領特使로 「카리브」地域 5개국을 巡訪인 金溶植 統一院長官은 1일(현지시간) 「그레나다」訪問에서 「에릭. 마튜게어리」首相과 會談을 갖고 두나라 사이의 大使級 外交關係樹立에 合議했다고 2일 外務部가 發表했다.

金特使는 「마튜게어리」首相과 만난후 共同聲明을 통해 이같이 合議하고 가까운 장래에 相互常駐公館을 設置키로 했다. 이 聲明은 두나라가 「그레나다」經濟의 早速한 再建을 비롯, 醫藥, 漁業, 貿易 및 農業分野에서 協力을 增進할것을 다짐했다.

26) 金統一院長官 帰国

- 中美 등 5개국 巡訪 마치고 -

< 74.8.14 合同通信(記事) >

金溶植 統一院長官은 40일간에 걸친 「파키스탄」 및 中美 「카리브」海沿岸 5개국(「트리니다드 토바고」 「가이아나」 「바바도스」 「그레나다」 「하이티」) 巡訪을 마치고 14일 상오 KAL機편으로 帰國했다. 大統領特使資格으로 出國했던 金長官은 이번 巡訪을 통해 이들 國家와 우리나라와의 理解增進, 國際社會에서의 協助 및 貿易技術協力增進方案등을 合議했으며 특히 「그레나다」와는 正式國交를 樹立하기로 合의했다.

27) 金統一院長官 歸國

< 74.8.14 京郷(記事) >

金溶植 国土統一院 長官은 大統領特使資格으로 40일간에 걸쳐 파키스탄 및 中美카리브海 연안 5개국의 巡訪을 마치고 14일상오 7시 50분 KAL 기편으로 歸國했다.

마. 統 一 關 係 記 事

1) 政 策

가) 金 統 一 院 長 官 統 一 政 策 밝 혀

< 72.6.22 東 亞 (記 事) >

金永善 国土統一院長官은 22日『우리의 統一政策기초는 「유엔」감시하의 總選舉를 통한 統一이란 基本 立場에는 변함이없으나 다만 여기에 자주적인 努力으로 ①人道的接觸 ②非政治的接觸 ③政治的接觸이라는 三段階統一接近方法을 가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日부터 西獨의 「후랑케」內獨省長官招請으로 西獨을 訪問하고 귀로 美國으로 돌아온 金長官은 이날 記者會見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最近 中共의 「유엔」加入등으로 「유엔」의 構成이 變化했으며 印度 「파키스탄」戰爭에 「유엔」이 安保役割을 拋棄한 狀態 아래서 우리는 「유엔」에만 의존할수 없게 됐다』고 말하고 『우리로서 현재 必要한것은 經濟建設로 国力을 培養하고 國論을 統一하여 자신의 발판을 굳힌다음 現實的인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最近 西獨의 強力한 東方政策은 西獨 自身の 国力뿐 아니라 「나토」라는 軍事組織 EC라는 經濟組織 및 美·英·仏·蘇 四大國의 保障 등 強力한 地域組織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하고 『韓國 주변에는 이러한 強力한 安全판이 없으므로 獨逸方式을 그대로 模倣할 수 없으며 統一에 너무 성급해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내 統一 어렵지만 非觀해선 안돼

< 73.5.5 東亞 (記事) >

金永善統一院長官은 5日오전 『南北統一問題는 南北相互間의 信賴의 바탕위에서 쉬운問題부터 어려운問題를 해결해 나가야 하며 따라서 人道的인 問題를 해결한다음에 非政治的인 問題를 해결하고 이런問題의 해결을 통해 政治的인 接觸도 가능할것』이라고 말했다.

金長官은 이날 「第四回 国土統一에 관한 作品懸賞募集」 當選者 施賞式에서 이같이 말하고 『統一의 길은 어렵고 먼길이라고 해서 悲觀해서도 안될것이며 성급히 서둘러서도 안될것이며 指導者를 中心으로 끈기와 努力으로 團合하여 이課業을 수행해나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金長官은 이어 『우리는 國論을 統一하고 國民總和를 이루어 10月維新을 成功的으로 완수하는것만이 統一의 途徑』이라고 말했다.

다) 南北의 平和統一方法은 前提條件없는 對話뿐이다

- 金統一院長官 叱사 -

< 74.1.4 東亞 (記事) >

金溶植国土統一院長官은 3日『平和的 統一方法은 對話를 통하는 길밖에 없으며 對話에 대신할만한 方案은 없다』고 말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對話에는 아무런 先제조건도 없다』고 밝혔다.

金長官은 이날 오전 臨津江 「자유의 다리」에서 基督教青年協會가 主催한 통일기원예배에 參席, 致辭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만일 北韓 當局이 아무 條件없이 우리와같이 對話를 繼續한다면 우리民族은 누구나 다같이 祖國分斷의 부담과 苦痛을 經감시킬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金長官은 또 「現在 南北間에는 相互不信이 깊어가고 있으며 北으로부터

우리에 대한 誹謗은 날이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指摘하고 『西海岸의 우리島嶼에 對한 正當한 航海權을 위협함으로써 다시 緊張이 高조돼가고 있으며 世界는 우리의 安全問題에 關心을 갖기 始作했다』고 強調했다.

래 平和統一方法은 「對話」뿐

-相互不信深化...北의 誹謗 심해져-

< 74.1.4 京郷 (記事) >

金溶植統一院長官은 3일 『平和的統一方法은 南北對話를 통하는길밖에 없으며 對話에 對치하는 方案은 없다』고 말하고 『우리가 主張하는 對話에는 아무런 前提條件이 없다』고 밝혔다.

金長官은 이날상오 10시 30분 基督教青年協會 主催로 坡州郡汝山面 「自由의 다리」에서 열린 統一祈願예배에 參席 致辭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만일 北韓當局이 아무條件없이 우리와같이 對話를 繼續한다면 우리民族은 누구나 다같이 祖國分斷의 負擔과 고통을 훨씬 輕減시킬수 있을것』이라고 主張했다.

金長官은 『南北韓은 赤十字會談을 始作한지 近2年이 되도록 아무런 進展을 보지못하고있고 南北調節委員會會談도 아직문제해결의 실마리조차 發見하지 못하고 있는 狀態에 있다』고 지적하고 『南北間의 相互不信이 깊어가고 있으며 北으로부터 우리에게 對한 理由없는 誹謗이 갈수록 심해지고있다』고 말했다.

金長官은 또 『北韓은 西海岸의 우리 島嶼에 對한 우리의 正當한 航海權을 위협함으로써 緊張을 高潮시키고 있으며 世界는 다시 韓半島의 安全問題에 對하여 관심을 갖기시작했다』고 말했다.

마) 平和統一은 「對話」뿐

< 74.1.5 朝鮮(記事) >

金溶植國土統一院長官은 3日『平和的 統一方法은 南北對話를 통하는 길밖에 없으며 우리가 主張하는 對話에는 아무런 前提條件이 없다고 밝혔다.

金長官은 이날 汶山 자유의 다리에서 열린 統一祈願예배에서 致辭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만일 北韓當局이 아무條件없이 對話를 계속한다면 祖國分斷의 부담과 民族의 고통을 훨씬 경감시킬 수 있을것』이라고 強調했다.

그는 『全世界는 南北이 對話를 통해 問題를 해결토록 要求하고 있으나 2년이 지난 지금 南北間 相互不信은 깊어가고 있으며 北으로부터 우리에게 내한 이유없는 誹謗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統一에 관한 우리의 主張은 南北사이에 緊張을 緩和, 平和를 정착시키며 相互 信賴를 樹立하는 것이며 이러한 基礎위에 進行될 對話는 어려울것이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2) 機 構

가) 各種 反共團體를 國土統一院이 一元化 管轄

< 69.4.4 한국(고십) >

각종 反共團體를 國土統一院이 一元化 管轄하겠다는 內容의 一部 報道에 대해 現在 23個 反共團體를 管轄하는 主務部인 文公部當局은 「이게 어찌된 소리냐」고 민감한 反飢. 그러나 統一院의 한 高位當局者는 「전혀 그런 구상조차 한 일이 없다」고 이 사실을 極口否認하여 事態는 일단락 얼마전에 統一院이 各學級의 反共敎課 課程을 改編한다고 傳해지자 申泰煥 統一院 長官은 國務會議席上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權五柄 文教에게 解明한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文公部에 解明해야 할 판」이라고 統一院 當局者는 쓸쓸한 表情

나) 統一問題 研究委

< 69.4.24 中央(고십) >

國土統一院이 各界 權威者 및 專門家들로 거창하게 構成하려던 「統一問題研究委」案은 總務處측의 강력한 「브레이크」로 움츠러들 모양. 統一院은 당초 統一問題에 관한 광범한 研究를 위해 50名까지의 研究委員과 이에 결하여 著名人士들로 委囑되는 30名까지의 諮問委員을 研究委에 둘 계획이었는데...

總務處측은 「지나치게 큰규모의 委員會를 둠으로써 실속없이 予算만 많이 쓰게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약간명」의 權威者들로 構成되는 「國土統一院 諮問委」를 두고 역시 「약간명」의 專門家들을 수방이 지급되는 非常任의 研究委員으로 委囑할수 있도록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24일 法制處審議에 넘겼다.

다) 統一院으로 統一하라

- 知慧集中爲한 諮問・研究委員 充足段階 -

< 69.5.27 한국社說 >

統一院業務가 점차 本軌道에 오르는 가운데 이달안으로 諮問委員와 研究委員 充足을 보게되리라고 한다.

諮問委員는 與野官民을 網羅한 各界重鎮, 元老級人士들로 構成하여 研究委員는 學界, 言論界 中心의 諸分野 專門人材들로 充溢되리라는 것이다.

우선 統一問題에 關한 實質的인 研究成果를 審議해 나가면서 그것을 政策 調整 및 建議機能과 直結시키기 위해 統一院을 名實相符한 超党的인 知慧集中의 広場이 되게 하려는 構想으로 보아 首肯이 간다.

총선에 흔히 部分的이거나 即興的으로 論議되기 쉬었던 統一政策이 앞으로는 統一以前, 統一過程, 統一以後의 3段階로 研究檢討되며 短期, 中期 및 長期的인 細部計劃作成이 거듭 손질 될 것이다.

그러나 研究體系의 確立이란 機構編制만으로 自足할바 아니다. 기틀을 살리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諮問委員, 研究委員 客觀的으로 納得할수 없는 疎外感의 蔓延의 情實을 排除하는 毅然한 姿勢가 堅持되어야 하리라고 믿는다. 지난날의 헛된 權威에 도사리는 「偶然人士」라든지 입만 살아있는 空談客들의 混在는 總體的인 「이미지」를 흐리게 할뿐더러 研究雰囲気自体를 沈滯케 할까 걱정될수 있다.

또 研究委員는 分野別 專攻別의 分科委員細分을 생각하게 되겠지만 이경우에는 모든 研究를 統一成就에 合流케 하는 系統化作業의 必須的이다.

研究委員의 人員이 많다면 核心體가 必要할 것이고 또 院自体의 綜合勢力이 促求되어야 할 것이다. 두말할것 없이 綜合이란 단순한 合計以上の 作業을 念頭에 두는 말이다.

나아가서 統一院은 지금까지 政府各部處에 散在 하였던 統一業務의 一元

化와 民間團體에서 벌려온 각종 統一運動의 再組織 그리고 學術研究團體와의 協調達成이라는 曠古 課題를 다루어야 할 형편이다. 勿論 統一院에 의한 各機關 團體와의 連絡 및 集中的 調整은 名分이시고 當然 視되는 것이다. 다만 各자의 特殊性과 創意를 살리는 「多樣속의 一元化」가 注目點으로 된다. 우리는 一元化라 할적에 節約과 效率 그리고 體系性을 아울러 생각한다.

統一院은 研究中心의 超黨機構로서 조용히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民族의 念願인 南北統一을 다루는 까닭에 大局적으로 가장 實際的인 研究姿勢를 一貫해나가야 할 것이다. 北傀 金日成 一黨의 武力挑發이 繼起되는 激動의 時點에 이러한 國家機構의 發足を 보게된 것은 그만큼 우리 모두의 巨視的 自信을 立証한다고 볼 수 있다.

넓은 視野에서 우리의 政治, 外交, 軍事, 經濟, 社會, 文化등 온갖部門에 걸친 建設과 前進은 한결같이 統一努力의 一環이 아닐수 없다. 統一院은 3月1日 發足後 이제 内部整頓을 一段落짓고 知慧集中의 廣場으로서 일의 幅을 넓히려는 제 2段階에 접어든 셈이다. 國民의 것으로 實感되도록 統一 研究專担 機構의 加一層 奮發을 激勵해 마지 않는 바이다.

라) 統一機構를 強化 5道庁等 吸收方針

< 71.9.10 한국(記事) >

政府는 國土統一院의 機能을 強化하기위해 統一院職制를 大規模改編할 方針이다.

金永善 統一院長官은 9日 金鍾泌總理에게 國土統一院 機能強化에 관한 報告를 했는데 報告內容은 ①內務部傘下의 以北5道庁과 文公部 산하의

反共聯盟을 吸收 ② 각종 反共團體를 統一院산하로 整備, 가칭「統一促進委員會」를 만든다는 것이다.

마) 統一院機構強化 以北 邑面長도 任命

< 71.9.29 한국(記事) >

政府는 28일 国土統一院의 機構를 強化하기 위해 「統一促進協議會」(가칭) 構成등을 包含한 機構改編案을 마련하고 統一促進協議會法과 以北 5道庁에 關한 特別 措置法을 改定할 方針이다.

이 統一院 機能強化方案은 以北 5道庁을 內務部에서 統一院으로 이관시키고 以北 수복지에 대비, 95명의 名譽市長·郡守와 7백 80명의 邑·面長을 두기로 했다.

마) 統一院 年内 機構改編等으로 性格轉換

—北傀權力構造變動단정은 時機尙早—

< 74.3.1 東亞(교섭) >

国土統一院은 1日 開院五周年을 맞아 조출한 紀念式을 가졌다.

統一院은 北傀의 우리漁船 拉致事件을契機로 南北關係가 迷路에 빠진 이때 超党的인 중지를 모으기 위해 2日에는 顧問인 政界元老 十여 명으로부터 意見을 들을 計劃인데 開院이래 5年동안 事實上 研究所의 性格을 벗어나지 못했던 統一院은 名실상부한 行政部署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今年度에 機構改編등을 통해 性格轉換을 시도할 方針이라고. 한편 金溶植長官은 지난달 28日 最近 北傀 張길부노파의 葬禮式에 參席한 北傀首腦陣의 서열은 소위 빨치산活動에 參加한 張노파 와의 親

疏關係에 依存한것 같고 北傀 權力構造의 變動이라고 단정하기는 時期尙
早라는 見解를 表明

사) 統一院「統一安保教育센터」化 推進

< 74.3.21 東亞(교섭) >

國土統一院은 北傀의 對南誹謗과 宣傳攻勢가 격화됨에 따라 共產
主義를 理論적으로 批判하고 北傀의 思想的挑戰을 극복할수 있도록 하
기 위해 統一院의 「統一安保教育센터」化를 推進하고 있다.

金溶植 統一院長官은 「모든 部門에서 南北韓의 대결이 陽性化
되고 있는 狀況에서는 國民들의 理論武裝이 가장 시급하다」고 強調
이같은 計劃을 指示했는데 「講師의 聘制度」는 最近 各機關들로부터
安保統一問題에 關한 講師를 支援해달라는 要請이 늘어난데 따른것으로
統一院職員과 外部專門家들로 混成팀을 構成, 要請이 있는곳에 派遣한다
는것. 한편 昨年 한햇동안 各級敎職者 六千余名을 敎育시킨 統一研修所
는 앞으로도 青年學生 宗教人 知識層을 對象으로 擴大施實할 計劃이라
고

아) 統一院에 南北問題 講師팀

< 74.3.21 中央(교섭) >

研究機關에 머물렀던 統一院이 곧 南北對話도 主導하는 1個 部
처 구실로 올라설 채비에 부풀어있다.

그런作業의 하나로 統一院은 最近의 南北關係 北傀問題등을 解説할
講師陣을 構成

金溶植長官의 就任 後 構想인 이계도는 最近의 西海事變이후 各機關 団体 및 社會各界에서 北韓問題에 對한 講師支援 要請이 밀려 서둘러 왔다는 關係者의 얘기.

統一院職員과 外部專門家들로 構成된 이 「풀·팀」은 講演會·「세미나」·座談會등에 나가게 되는데 金長官은 「모든 國民들이 共產主義와 北韓의 正體를 定確히 把握하고 비판할 수 있는 理論무장이 時急하다」면서 「講師陣을 많이 活用해 달라」고 했다.

자) 統一院 機能強化 安保教育센터化

< 74.3.21 京郷記事 >

國土統一院은 共產主義를 理論的이고 体系的으로 批判, 北傀의 모든 思想的挑戰을 누를수 있도록 하기 위해 統一院기능 一部를 「統一」安保教育센터化」方向으로 推進強化할 方針이다.

차) 「統一安保教育센터」로 統一院 講師질제

< 74.3.21 新巫記事 >

金溶植 統一院長官은 21日 上오 共產主義를 理論的이고 体系的으로 批判, 北傀의 모든 思想的挑戰을 극복하기위해 統一院을 「統一安保教育센터」로 그 기능을 強化하겠다고 밝혔다.

金長官은 이날 南北韓이 政治, 思想, 軍事, 外交, 經濟등 모든 方面에서 對決이 陽性化 되고 있는 狀況아래에서는 國民들이 共產主義와 北韓의 正體를 正確히 把握하고 批判할수 있는 理論武裝을 하여야 한다고 強調하고 그 方案의 하나로 「講師의 質制度」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講師「풀」制度」는 統一院의 北韓問題關係職員들과 外部의 專門家들로 混成팀을 構成하여 社会각계기관 및 團體에 安保統一問題에 대한 資料支援은 勿論 講演을 통해 共產主義에 對한 批判意識을 促求하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고 說明했다.

개 統一安保教育「센터」化를 推進

< 74.3.22 한국記事 >

国土統一院은 共產主義를 理論的이고 体系的으로 批判하고, 北傀의 모든 思想的 挑戰을 克服할 수 있도록 国土統一院의 「統一安保 教育센터化」를 推進중이라는 이야기.

金溶植長官은 21일 「오늘날처럼 政治, 思想, 軍事, 外交 등 모든 部門에서 南北韓의 對決이 陽性化 되고있는 狀況下에서는 國民들이 共產主義와 北韓의 正體를 正確히 把握하고 批判할수 있는 理論 武裝이 時急하다」고 強調하고 統一研究修所의 弘報活動強化는 勿論 安保統一問題의 北韓實情을 社会 指導層人士들에게 出張講演이나 「세미나」를 통해 說明해 줄 수 있는 「講師의 풀制度」確立을 指示했다고.

「講師의 풀制度」란 統一院職員과 外部專門家들로 構成된 混成「팀」을 弘報室內에 設置해서 外部의 要請이 있을때는 언제든지 이들을 보내 支援하는 內容이라고.

타) 統一院 執行機構로 轉換

— 南北會談 · 統一政策 관장 —

< 74.4.20 東亞記事 >

政府는 現在 研究機關의 性格을 띠고있는 国土統一院의 職制를 改編·執行機構로 轉換할 計劃인것으로 20日 알려졌다. 지난 69年3月에 兪足한 統一院은 그동안 統一政策과 南北問題에 관한 研究에만 전념해왔는데 이번 機構改編을 契機로 南北對話나 統一政策의 執行에도 간여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金裕植 統一院長官은 지난 3月6日 国会外務委에서 「政府는 南北會談業務를 統一院이 主務部處가 되어 관장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고 밝히고 「南北 調節委와 南北赤十字會談에 關聯된 모든 움직임을 統一院이 綜合해서 研究하는 方案을 檢討중」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統一院의 性格轉換을 뒷받침하기 위해 統一院이마련 4月初 總務處에 넘긴 機構改編案에 의하면 研究機關으로 되어있는 教育弘報室과 調査室을 완전히 執行機構로 職制를 바꾸어 弘報指導局과 資料局으로 만들어 別定職一級이 맡고 있던 現在의 室長制를 二級甲의 一般職으로 補하도록 했다.

이改編案은 또 弘報指導局아래 現在의 教育 및 弘報担当官 代身 弘報課 指導課 編務課 3個課를 資料局에는 國內資料課 國外資料課 資料管理課등 3個課를 두어 一般職 三級甲으로 補하도록 했다.

弘報指導局은 國論善導를 위한 統一弘報를 強化, 「統一弘報資料」를 旬刊으로 발간하며 統一 講演會등을 開催하는등 積極的인 弘報活動을 벌이고 資料局은 北韓 및 共產圈에 대한 國內外 資料를 수집, 명실상부한 資料保存機構로서 資料의 總센터화를 꾀할 計劃이다.

이밖에도 統一院은 現在의 企劃管理官制를 一般部處와 같이 企劃 管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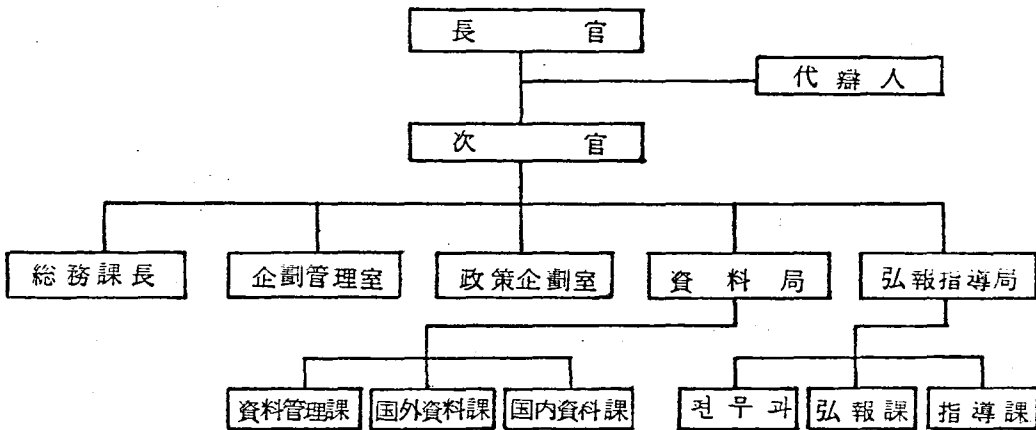
室로 改編, 一般職 一級으로 補하여 教育弘報室의 弘報担当官이 맡고있던 代辯人制代身에 長官 밑에 一般職 또는 別定職의 代辯人을 新設할 計劃이다.

한편 統一院은 調査室과 教育弘報室 밑에 있던 研究部署는 모두 政策企劃室로 옮겨 政策計劃室은 순수하게 研究機構化하며 統一研修所에 次長制를 新設하고 研修所의 教授도 現在의 3名에서 6名으로 늘릴 方針이다.

現在의 担当官制를 一般行政部署와 같이 局 課로 大幅 정비한 것을 골자로한 이機構改編案은 總務処 및 法制処의 檢討가 끝나는데로 이달중으로 國務會議에 上程될 予定이다.

이같은 統一院의 機構改編案에 대해 한 關係者는 「統一院機構는 現在의 機構 골격을 그대로 維持하면서 다만 執行機構化하기 위한 性格轉換에 의의가 있는것」이라고 說明했다.

統一院機構改編案



파) 統一安保問題 講演會 演士 要請 늘어

< 74.6.29 東亞(교섭) >

国土統一院은 最近 安保問題에 대한 國民의 關心이 高조되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社会各界 各層으로부터 統一安保問題講演會를 為한 講師
要請이 늘어 対策을 마련중이라고. 統一院은 그동안 宗教団体 軍部隊 学
校등으로 부터 統一安保問題講師의 招請이 쇄도, 職員中에서 講演에 소질이
있는사람 十余名을 選拔해서 活用해왔으나 이달들어 講師支援要請이 종전보
다 배로늘어 하루 十건씩이나 된다는것 이에따라 統一院은 全職員을
弘報要員化할 計劃아래 순차적인 訓練을 실시하는한편 外部人士 3名을
특채, 訓練中인데 앞으로 統一院을 統一安保에 대한 資料의 센터화와 함
께 專門家の 센터화를 기함으로써 二元体制로 運營할 計劃.

3) 業 務

개 發 足한지 한달이 되는 國土統一院

< 69.3.25 中央 (記事) >

足한지 한달이 되는 國土統一院은 아직도 일의 方向과 테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우선 첫 作業으로 外務 內務 國防 文公 등 政府각부처의 統一關係 業務과 亞細亞 問題 研究所 등 民間研究機關 들의 實態를 파악 이들과의 효율적인 協調方案을 짜내고 있다.

諮問機構設置問題는 소위 權威者라는 사람들이 이름만 걸어놓고 여기저기 일에 쫓겨 실속있게 일을 하지 못하는 폐단을 고려해서 ① 巨物級과 少壯 專門家들을 함께 참여시키는 方法 ② 거물급 만으로 짜고 실질적인 研究는 「프로젝트」별로 民間研究機關에 메어주는 方法등을 檢討하고 있다고.

나) 統一業務를 一元化

- 申長官 民間團體運動도 再編成 -

< 69.5.6 韓國 (記事) >

國土統一院은 各部處에 散在되어있는 統一業務에 관한 機能을 一元化하고 民間團體에서 벌이고 있는 各種 統一運動을 再檢討, 효율적으로 再組織할 方針이다.

申泰煥 統一院長官은 5日 이와같은 統一院의 基本運營方針을 밝히고, 『急變하는 國際情勢에 대비하고 積極的으로 統一의 契機를 포착키 위해 統一에 관한 政府의 研究體系를 確立하겠다』고 말했다.

甲長官은 이어 「곧 充足하는 統一諮問委를 活用, 統一政策을 ① 統一以前 ② 統一過程 ③ 統一以後의 3段階로 나누어 樹立할 方針」이라고 말했다.

대 民間研究團體의 活用方案

< 69.6.14 中峯 (교섭) >

○ 民間研究團體의 活用方案을 짜오던 國土統一院은 最近 몇몇 團體를 골라 資料와 研究費를 支援하고 그 研究결과를 받아내기로했는데 그중에는 「韓國統一問題研究所」와 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등이 들어있다.

특히 前·現職教授·言論人·宗敎人·軍事專門家등 21명의 會員으로 지난달에 充足한 韓國統一問題研究所(理事長 慎道晟씨)는 明知大안에 사무실을 얻어 그간 會員들의 研究결과를 中心으로 네번째의 「세미나」를 가졌는데 주로 「統一의 機會」와 『北傀가 과연 蘇聯과의 防衛條約이 끝나는 71년안에 全面南侵을 감행할것인가』의 問題를 깊이 다루고 있다.

統一院은 이들 「세미나」에 政策企劃室長이하 職員들을 파견, 發表內容을 살살이 「메모」하여 資料로 정리하고.

라 先建設 後統一原則 贊成

< 70.1.1 韓國 (記事) >

政府는 70년대 후반기를 맞이하여 本格化될것으로 예상되는 統一問題에 대해 國土統一院을 中心으로 多角的인 統一方案 樹立에 착수했다. 70년대, 후반기에 대두할 統一問題에 대비, 基本政策 樹立을 위한 具體的인 作業에 들어간 國土統一院 當局은 지난 9월초 2백개의 표본을 대

상으로한 예비調查를 거쳐 10월 23일부터 14일간 全國的인 輿論調查를 실시, 지난 年末 그 결과를 綜合했다.

8.15 이후 25년만에 최초로 광범위하게 실시된 調查결의에 依하면 國民의 統一 意識은 自由民主主義원칙에 立脚한 「先建設·後統一」이라는 政府施策에 대체로 호응하는 매우 진실한 統一觀을 나타내고 있음이 밝혀졌다.

統一院의 위촉을 받아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부설 行政調查研究所에 의해 서울, 農村 海岸 및 接敵 地域등 50여개 地域에서 실시한 이 調查의 嚴修 綜合評價는 年初 朴正熙大統領에 보고될 豫定인데 이 調查는, ① 統一에 대한 國民의 意志 ② 統一에 대한 方法論(「유엔」감시 總選舉·中立國감시선거·武力統一등) ③ 統一에 대한 國際 및 國內의 責任 ④ 國土統一院의 活動에 대한 期待 ⑤ 南北交流(親族訪問·書信·記者·體育關係) 및 南北協商에 대한 意見 ⑥ 南北韓의 力量比較 ⑦ 北寇의 武力도발에 대한 國民의 意識등 25세부사항에 대한 綜合的인 의견조사로서 이제까지 단편적으로 實施되어왔던 調查를 集大成한 것이다. 輿論調查실시 관계자들은 最終的인 綜合評價가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으나 越南한 노장층의 鄉愁的인 統一의 意志 못지않게 젊은 世代가 「統一은 꼭 이뤄져야 한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國土統一院은 統一에 대한 研究와 活動을 綜合한 강력한 機能을 수행해 줄것을 요망하고 「統一은 政府와 國民이 다같이 해야 할일」이라고 보고 있다.

中間調查結果는 대체로 南北交流論에 대해서는 慎重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며 극단적인 의사표시는 현저히 줄어들어 政府의 「先建設·後統一」에 의한 70年代 後半의 統一論議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南韓만의 武力統一은 不可能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統一의 시기는 대체로 70년대 後半期 부터 10년이상 20년내의 시기에 의견이 集中되고 있으며 南北交流論에 있어선 間諜등 기타 共產側의

戰略的이고도 惡辣한 利用을 경제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南北統一이 되지 않는 原因은 北傀, 中共 및 蘇聯 등을 지적하는 경우가 현저하게 눈에 띄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 統一時期는 10年内

- 統一院 國民輿論調查결과 밝혀져 -

< 70.2.20 한국(記事) >

國土統一院은 70年代 後半期에 대두할 統一 問題에 대비·基本政策資料를 수집하기 위해 지난 연말 全國的으로 실시한 國土統一에 대한 輿論調查結果를 綜合分析, 18일 朴正熙大總統에게 보고했다. 申泰煥 統一院長官이, 20일 記者會見에서 正式으로 發表할 國民輿論調查結果에 의하면 「國民의 대다수인 90%이상이 統一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民族的 至上 課題」라는 강력한 希望을 表現하고 있으며 「유엔」監視下의 總選舉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現在와 같은 國際情勢下에서는 統一은 어렵고, 「유엔」軍과의 결속아래 「先建設 後統一」의 원칙밑에 國家安保를 強化해야 한다는 見解를 表明하고 있다.

“總選「유엔」監視下 北傀가 統一을 沮害”

統一院의 위촉을 받아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에 의해 지난해 9월 예비 調查를 거쳐 서울을 비롯 農·漁村 및 接敵地域等 50여개 地域을 선정 2천여「샘플」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調查는 ① 統一의 時期에 대해선 모르겠다는 反應이 약 40%이며, 10년내로 可能할것이라는 展望을 보인 응답자가 39.5%로 나타나 70년대 후반기에 대한 統一의 展望을 기대하고 있으며 ② 統一을 沮해하는 要素는 北傀의 責任(48.5%)과 共產 進영의 責任(51.8%)으로 내다보고 ③ 韓國의 主導아래 統一이 실현되

어야 살기가 좋아진다는 自由統一을 적극지지(75%)함으로써 6.25 당시 傀儡 치하의 쓰라린 경험이 아직도 國民들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統一의 方案에 대해선 ① 「유엔」監視下의 總選(31.9%) ② 武力統一(12.8%) ③ 南北協商(9.5%) ④ 中立國 監視下의 總選(8.3%) 등으로 나타나고 現 國際情勢로 보아 分斷狀態를 계속 維持하는수 밖에 없다는 諦念的인 意見이 10.3%이다.

대체로 學歷이 높을수록 「유엔」監視下의 總選을 지지하고 海岸과 接敵地域의 住民들이 武力統一을 主張하는 風이 많으며 內陸地域은 보다 온건한 계속 分斷 또는 北韓만의 選舉를 말하는 風이 높았다. 南北交流論에 대해선 大體的으로 신중론이 많았는데 ① 書信往來 24.8%, ② 親知部門은 14.2% ③ 記者往來 29.3% ④ 南北韓 %로 그중 「스포츠」 交換競技만이 일부 肯定的인 反應으로 보이고 있을뿐 나머지 交流부문은 모두 統一까지는 「不可하다」(45%~65%)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統一院은 이번 輿論調查 결과를 土台로 勝共教育強化를 위한 教科過程의 全面的인 再檢討를 서두를 方針인것으로 전했다.

배 先建設 後統一

- 輿論調查에 본 北韓解放의 現實的 考察 -

< 70. 2. 21 한국(社說) >

國土統一院이 지난 연말 全國的으로 2천 14개의 표본을 設定하여 實施한 統一에 關한 國民輿論調查결과가 20日 正式 發表되었다. 民族的 至上課題로서 南北統一에 關한 念願이 줄기찬 가운데 民主·反共思想이 투

칠하고 또 「先建設 後統一」論에 보듯이 참신한 考察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70年代의 문턱에서 北傀武力 挑發이 치열한 무렵에 實施된 輿論조사였던 것이다.

統一에 대한 希求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가 90.6%로 나타났다. 2차대전후 他律的 与件으로 招來된 國土兩斷이라는 不條理狀況은 결코 이 單一民族에 의해 한사코 받아 들일수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政治의 귀착점은 統一의 實理이어야 하는것이며 이 念願은 누구라도 外面할수 없다. 또 統一은 韓國主体, 北韓解放方式의 民主統一이어야 한다고 밝혀졌는데 이점은 「統一과 個人生活」 및 「統一 안된 責任」등 調査에 비추어 의문의 여지가 없다. 周知하는 바와같이 韓國人口의 3분의 2 이상과 전통적 首都, 그리고 民族文化의 보금 기타는 南韓에 있다.

「南北韓의 衣食住비교」에서 「韓國이 앞섰다」는 86.2%이며 이것은 사실이 伝伝에 이긴다는 見地에서 당연시된다.

다만 「南北韓工業部門 비교」는 「韓國이 앞섰다」가 비록 과반수이기는 하나 54.56%이다. 우리는 最近年の 經濟成長率과 輕工業의 全分野에서 北韓보다 앞서고 있으나, 일부 重工業 分野에서는 資源分布와 出產과정 등 관계로 70년대 후반기를 내다보며 더욱 분발해야할 요인도 發見한다.

「統一成就의 時機」에서는 70년대 후반기에 즈음 해 우리측에 의한 政治的인 攻勢移轉을 예견하는 수요가 상당수 있고, 또 統一方案에서는 아직껏 「UN 監視下의 總選」이 많으나 회의감도 적지 않은것 같다. 이 局面에 관해서는 拳族的인 統一 希願에도 不拘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안이루어진 이유는 이러 저러한 「方案」의 欠如 때문이 아니라 主体的 및 개관적인 「條件」의 不成熟으로 說明된다는 現實的 認識의 작성을 들수있다.

각종 南北交流문제는 現段階에서는 적합치 않으나 장차 어느 시기에 가는 統一집근努力의 一環으로 신중히 고려될수 있다는 느낌이 자란듯 하

다. 그러나 오늘의 現實은 北傀挑発로 말미암은 武装共匪사건」에 대한 國民的 분노가 압도적인 무렵이다. 北傀에 「스타린」주의 金日成体制가 도사리는 동안 그와같은 韓半島의 緊張狀態가 획기적으로 완화되리라는 가망은 거의없다.

“우리의 北傀 政策은 當면한 安保와 巨視的인 統一로 分別된다.

하기야 韓國의 安保와 統一은 相互 결부된 論理的 一貫性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當장 北傀의 武力赤化統一 試圖를 制御하면서 우리의 實力을 培養하고, 70년대 후반기 이후에는 自由의 힘을 북녘에 넘쳐 흐르게 하는 北韓同胞해방의 본격적 접근을 다짐하여야 하겠기 때문이다.

統一세의 길은 아직도 멀지만, 統一意慾은 줄곧 完成하고 우리에게서 自身이 일깨워진 반면 共產圈 내부 모순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主体的인 政治와 經濟的인 實力培養과 能動的인 統一條件 形成에 晝夜로 전력을 기울여야 할 時点이다.

사) 平和統一 爲한 本格作業 着手

< 72.7.7 한국 (고십) >

7.4 声明발포를 契機로 國土統一院도 이 취지에 맞추어 業務計劃을 대폭 조정할 움직임.

統一院의 한 高位當局者는 6일 『69년 3월 불과 45명의 職員으로 充分한 統一院도 이제는 일할때가 온것 같다』고 말하면서 『北韓의 脆弱點을 목로, 糾彈하던 作業은 中斷하고 平和統一을 뒷받침하는 本格的인 作業을 別일 段階에 들어섰다』고 強調.

특히 이 當局者는 『共同声明에서 言及된 相互交流問題가 研究의 主대상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4) 人 事

가) 세 長官에 任命狀

< 69.2.17 한국(記事) >

朴正熙大統領은 17일 상오 靑瓦台에서 新任 趙始衡農林, 李翰林建設, 申泰煥 統一院長官에게 任命狀을 授与했다.

나) 統一院次官에 // 李圭學 // 任命

< 69.2.25 한국(記事) >

政府는 24일 國防部軍需次官補 李圭學中將을 25일자로 豫編과 동시에 國土統一院次官에 任命發令했다.

李次官略歷

서울出身(47歲), 日本東洋大學專門部修了, 陸士2期, 38師團長, 陸軍兵站監, 軍需基地司令官, 國防部軍需次官補

다) 統一調查室長 孫官道氏 任命

< 69.3.15 東亞(記事) >

政府는 17日 國土統一院 調查室長에 孫官道씨를 任命발령했다.

라) 統一院 企劃室長 柳泰鉉氏를 任命

< 69.3.17 中央(記事) >

政府는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長에 經濟科學審議會議의 제2 調查分析室長

柳泰鉉씨, 教育弘報室長에 趙東河씨 (新規), 調査室長에 孫官道씨를 15일자로 각각 任命發令했다.

가) 政府 一部 閣僚更迭

一 國防 - 丁來赫, 統一 - 金永善, 無任 - 吉在号·李炳玉 一

< 70.3.11 한국 (記事) >

政府는 10일 하오 일부改閣을 단행, 任忠植 國防, 申泰煥 統一院長官, 金允基, 金元泰 두 무임소장관등 네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그 후임으로 國防長官에 丁來赫씨 (現韓電社長), 國土統一院長官에 金永善씨 (經濟科學審議委員), 무임소에는 吉在号 (共和黨당무위원겸임·政治担当), 李炳玉議員 (共和黨정책연구실장겸임·經濟担当) 을 任命했다.

丁一樞 국무총리는 이날 하오 5시 靑瓦台로 朴正熙大統領을 訪問, 改閣내용에 관한 朴大統領의 재가를 받았으며 改閣내용은 하오 5시 30분 姜尙郁靑瓦台대변인에 의해 中央厅에서 發表되었다.

姜대변인은 이번 改閣이유를 『제1차적 의의는 黨과 政府간의 유대를 긴밀하게 하는데 있으며 任국방의 경질은 현안의 安保체제를 보다 강력히 갖추는데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申統一院長官의 경질은 統一院의 基礎作業이 끝났을뿐 아니라 最近의 輿論調査發表등 統一問題접근방법에 있어서 너무 과욕적인 公報活動으로 관계부처간의 政策조정에 混線을 빚어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상오에 발표된 共和黨 당무위원 4명의 보강과 이날 하오 外遊에서 돌아온 吉在号의원의 帰國과 때를 맞춘 政府의 이번 改閣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겸직을 허용한 작년의 憲法개정 이후 처음으로 吉在号·李炳玉 두의원이 入閣했을뿐 아니라 최근 野黨진영으로부터 이탈, 經濟科學

議의원으로서 임명되었던 金永善씨가 統一院長官에 기용된데 특색이 있는 것으로 지난 1월 金沢壽共和黨 총무의 사퇴후 黨과 政府간에 논의되었던 체제트관직임을 일단 매듭짓는 措置인 것으로 해석된다.

丁來赫 國방장관

全南谷城출신 (45세), 日本陸士卒業, 美國參謀大졸업, 陸軍步兵學校長, 3師團長, 國防部總務局長, 商工部長官, 2軍司令官,(陸軍中將豫禰), 韓電社長

金永善 國土統一院長官

忠南 출신 (52세), 京城帝大法文學部卒業, 2, 3, 5代國會議員, 京鄉新聞論說委員, 財務部長官, 經濟科學審議委員

李炳玉 무임소장관

全北扶安출신 (43세), 檀國大學法律科卒, 陸軍管理參謀部豫算課長, 共和黨全北道支部副委員長, 6, 7代國會議員, 共和黨政策研究室長

바) 野, 金氏 入閣에 反應 錯雜

< 70.3.12 한국(교섭) >

野黨진영에 있던 金永善씨가 經濟科學審議會常任委員로 任命된 직후 다시 統一院長官으로 起用된데 이어 얼마전 新民黨을 탈당한 太完善씨가 國營企業體長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은 新民黨 주변에 착잡한 反應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新民黨의 金守漢代弁人은 11일 『이번 改閣이 野黨分裂을 시도한 저의있는 일련의 措置』라고 論評을 했는가 하면 몇몇 黨職者들도 『極과 極이 통한다더니... 이젠 고생스런 野黨생활을 하기 힘들게 됐다』고 맥빠진 듯한 표정.

그러나 梁一東정무회의부의장은 펄펄뛰는 일부 간부들의 표정과는 달리 『大局的인 見地에서 볼때 그렇게 서운해할 이유도 없으며 오히려 먼 장래를 생각한다면 환영해도 좋을 일』이라고 我田引水의 해석을 하기도.

사) 統一院에 一括 辭表 旋風

< 70.3.22 한국 (포십) >

最近 長官이 경질된 統一院은 이제적으로 全職員들로 하여금 辭表를 제출케 하여 거센 人事旋風을 예상케 하고 있다. 政府부처중 거의 別定職으로 구성된 統一院은 (77명중 68명) 一般職公務員의 不足으로 行政体系가 잘 잡히지 않고 不和說이 간단없이 나돌았는데 이번 金永善長官의 취임으로 強力한 行政体系를 세워보려는 것이 一括辭表제출의 이유였다고 統一院當局者는 해명.

教育弘報室의 경우엔 그동안 室長외에 단 한사람을 제외하고는 全職員이 바뀌었는가 하면 統一院을 떠난 職員들 중에는 室長급으로부터 운전사에 이르기까지 各種職級을 망다하고 있어 그동안의 인사이동이 얼마나 격심했었는가를 그대로 반영, 이에 대해 실무진에서는 統一問題研究의 특수성과 연속성으로 보아 別定職담당관들의 신분保障策을 서둘러야 될것이라고 論評.

아) 国土統一院 // 調査室長 金而鉉 // 任命

< 70.4.13 東亞 (記事) >

- 調査室長 (1級상당) 金 而 鉉
- 企劃管理官 (2級상당) 盧 啓 鉉
- 教育弘報室 教育担当官 (2級상당) 趙 承 梓

자) 統一院 政策室長 백린선 發令

< 70.5.2 한국 (記事) >

政府는 1日자로 白麟 선씨 (예비역중령) 를 国土統一院 政策企劃室長 (1級) 에 任命 發령했다.

차) 統一研修所長에 金永俊 任命

< 72.5.29 한국 (記事) >

政府는 20일 新設된 国土統一研修所長 (1級상당) 에 金永俊 国防大学院教授를 任命 發令했다.

카) 統一院企劃室長 李晦榮 發令

< 73.8.8 한국 (記事) >

政府는 10日자로 国土統一院 政策企劃室長 (1級상당) 에 李晦榮 国土統一院 教育 弘報室長을 전보 發令했다.

타) 統一弘報室長 禹在昇氏 任命

< 73.9.8 韓國 (記事) >

政府는 国土統一院 教育弘報室長 (1級상당) 에 禹在昇씨 (前中央大教授) 를 10日자로 任命했다.

대 統一院 金容植長官

— 10 部 장 관 更 迭 —

< 73.12.4 한국 (記事) >

朴正熙大統領은 3일 상오 金鍾泌國務總理와 國務委員全員이 제출한
일괄사표를 받아 國務總理와 副總理겸 經濟企劃院長官, 財務, 第1·第2
無任所長官등 10명을 유임시키고 外務, 內務, 法務, 國防, 商工, 建設, 保
社, 通信, 總務處, 統一院長官등 10명의 長官과 中央情報部長을 更迭했다.

南北調節委員會, 李厚洛서울측 共同委員長이 건강상 사정에 의해 12월
3일자로 南北調節委 共同委員長職을 사임했다.

李東馥南北調節委 서울측代弁人은 3일 이와같은 사실을 發表하고 『서
울측은 이에따라 張基榮副委員長으로 하여금 南北調節委 서울측 共同委
員長職을 代理하도록 결정, 이러한 사실을 이날자로 平壤측에 통고했다』
고 밝혔다.

어제改閣후 첫閣議

金鍾泌國務總理는 3일하오 5시 中央庁에서 改閣후 첫臨時國務會議을
소집, 國政全般에 걸친 새內閣의 施策方向을 協議했다.

이날 國務會議에는 新任 申植秀 中央情報部長도 배석했다.

하) 簡泳洙氏 發令

< 74.4.12 서울 (記事) >

政府는 12日자로 禹在昇 國土統一院 教育弘報室長(1級)을 依願면직하고
簡泳洙代弁人을 職務代行으로 發令했다.

5) 其 他

개 金鍾泌, 統一院 現況들어

〈70-1.23 한국(포섭)〉

新春隨筆에서 자신은 「타나남은 나무토막」으로 비유 「활활태워 재가 되도록 完全연소를 하고 싶다」는 의욕을 보이기도 한 金鍾泌씨는 22일 그의 측근인사들과 함께 統一院에 들러 「브리핑」을 들어 그의 動靜에 새로운 화제.

金鍾泌씨는 이날 상오 國會外務委員인 金東煥 尹天柱의원 및 金鎔泰의원과 함께 統一院을 비공식으로 방문, 申泰煥장관으로부터 統一政策에 관한 狀況說明을 들은뒤 申장관과 함께 점심을 나누면서 長期間 統一문제에 관한 견해를 교환했다는 것.

○○○위해 常委懇談會

지난 年末의 定期國會 폐회로 冬眠에 들어간 國會 各常任委는 오는 2월 중순계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국회정상화를 위한 與·野협상과 발맞추어 활동을 벌이기 시작, 신민당 소속의원들의 臨時國會本會議出席에 앞서 各 常任委에 野黨議員들을 우선 끌어들이려는 이 계획에 따라 22일 西部戰線의 一線高地 시찰을 마치고 돌아온 車智澈外務委員長은 23일에 外務委를 소집하고 崔圭夏외무장관과 申泰煥統一院長官을 출석시켜 70년대의 외교 및 통일정책을 협의키로 결정했다고 귀뜸.

交通委도 이날 간담회를 열고 사망보상금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자동차피해보상법개정안의 처리문제를 협의키로 했는데 22일 하오 李相禧위원장은 交通委의 野黨의원들에게 「정식회의가 아닌 간담회」임을 강조하곤 일일이 출석을 종용하기도.

내 對日外交 生疎하지 않아

< 70.1.29 한국(모집) >

27일 駐日大使로 任命된 李厚洛씨는 28일 낮 「과거 駐美大使館 武官시절이나 청와대비서실장 근무중 朴대통령을 보좌하여 對美·日外交문제에 간여했기 때문에 「外交界」와는 결코 生疎하지는 않다」면서 「在任중 本國訓令에 따라 성실껏 일할생각」이라고 취임소감을 말했다.

요즘도 매일같이 「엑스포 70」對策會議에 참석하고 28일엔 申泰煥統一院長官을 방문, 「브리핑」을 들은 李대사는 오는 2월 9일 부임예정이며 우선 現地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日本全域의 各領事館을 巡訪, 교포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을 계획이라고.

대 外務部 豫算通過 統一院 豫算도

< 70.11.10 한국(기사) >

国会外務委는 9일 46억 8백 70만원의 새해 外務部예산안과 2억 6천 7백 26만원의 国土統一院예산안을 일부 항목만을 조정,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래 어제 勝共蹶起大會

< 71.1.22 한국(기사) >

『1.21 사태 상기 승공궤기대회』가 21일 상오 10시 市民會館에서 金永善 統一院長官등 관계관과 3천여 越南人士 및 市民들이 參席한 가운데 열려 북괴의 만행을 규탄하고 勝共精神을 더욱 굳게 했다.

마) 外務部 統一院 豫算 7億 增額키로

〈71.11.25 京報(記事)〉

5人計數小委는 外務部所管 豫算案에서 5억 2천만원, 統一院所管 豫算案에서 9천 8백만원등 모두 7億원을 增額키로 결정했다.

5人小委는 中共의 「유엔」加入으로 在外公館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야 한다고 보고 韓半島 주변의 공관과 對中立國地域公館 및 民間外交의 擴大를 위해 5억 2천만원을 증액하고 統一院은 國外資料수입을 위해 9천 8백만원을 각각 增額키로 했다.

外務委小委는 25일 낮 總理公館에서 金鍾泌總理와 오찬을 나누며 外務部 및 統一院 소관 예산을 增額시켜 주도록 공식 요청했는데 政府側도 이를 받아들였다.

바) 「統一」懸賞作品 當選者 施賞式

〈72.7.7 한국(記事)〉

國土統一院은 6일 統一院會議室에서 제 3회 「國土統一에 관한 作品懸賞모집」當選者에 대한 施賞式을 가졌다.

이날 최우수작으로 입상하여 國土統一院長官賞을 탄 수상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 글짓기초등부최우수상: 유민영 (전주시 풍남국민학교 3학년: 무궁화피는 統一)
- 중등부최우수상: 이이경 (부산시 「데레사」여중 2학년: 백두산까지 고속도로를)
- 고등부최우수상: 양미경 (부천군 소사농공고교 3학년: 우리집의 통일집념)
- 일반부 詩우수상: 이광표 (광주군중부면 단대리 225: 우리는 언덕을 걸어오르고 있다)

- 일반부 소설우수상 : 나명열 (서울성북구수유동 472의 477 : 어떤증언)
- " " 수기최우수상 : 방동인 (포천군영북면운천리 : 정치보위부... 그 생사의 고삐길에서)
- 우표도안 가작 : 김용배 (서울성북구장위동 233의 516)
전희한 (체신부 우표도안실)

사) 選舉에 이기기 爲해 곧 떠나야

<72.9.15 한국(프십)>

金永善統一院長官 초청으로 지난 10일 訪韓한 西獨의 「에곤·프랑케」
內獨關係省장관은 14일 離韓에 앞서 獨逸의 統一정책에 관한 講演과
記者會見을 가졌는데...

「프랑케」장관은 『특히 南北赤十字會談이 열리고 있는 이곳에서 分斷
國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人道的인 問題부
터 다루게된 南北韓의 對話는 政治的인 問題부터 다루게된 東
西獨간의 對話보다 더큰 成果가 있을 것』이라고 展望. 會見이 豫定보다
길어지자 『11월에 있을 選舉에 승리해서 東方政策을 계속하기 위해
곧 떠나지 않으면 안된다』고 「조크」를 던지기도.

아) 統一院 5周年을 맞아 記念式 갖음

<74.3.1 신아(프십)>

國土統一院은 1일 歸院 5周年을 맞아 職員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
한 記念式을 갖고 보다 적극적인 行政部署로서의 기능을 발휘할것을 다
짐 - .

이제까지 사실상 研究所의 성격을 脫皮하지 못했던 統一院은 金裕植장

관의 취임을 계기로 研究와 집행 業務를 併行하는 方向에서 體質改善 및 機構改編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

특히 金장관은 최근 全体幹部會議에서 「부하를 눈·코 뜰사이없이 바쁘게 만들지 못하는 上官은 上官으로서의 資格이 없다」면서 統一정책의 理論定立 및 統一問題에 관한 全職員의 弘報要員化를 강조하여 職員들은 政策研究에 弘報業務까지 맡아 1인2역을 맡게 되었다고 -.

재 「北韓問題百問百答」주문殺到

〈74.6.5 東亞(교섭)〉

国土統一院은 最近의 北韓實情을 소개한 「北韓問題 百問百答」이란 소책자 7千5百部를 지난 5月6日 발간했는데 各機關에서 주문이 殺到, 한달도 못되어 切品狀態라고. 지난 연말 발간한 「共產主義 百問百答」에 이어 두번째로 出刊한 이 책자는 北韓實情과 北傀의 對南戰略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1百개의 問答式으로 알기쉽게 풀이한 것으로 내용 가운데는 北韓住民이 받고 있는 소위 政治學習 地下宗教人들의 抵抗등에 관한 것도 들어있다.

이책이 切品되자 國防部는 軍의 政訓教材로, 內務部는 새마을지도자용으로, 文敎部는 농촌계몽용으로 활용키 위해 각각 自体算算으로 1千여부씩 複製中 이라는것.

재 統一은 意慾앞서 智慧가 必要

〈74.6.17 東亞(교섭)〉

維政會소속의원 54명은 17일 오전 統一院을 訪問. 統一院측으로부터

南北관계와 反共교육문제 등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非公開로 進行된 이날 「브리핑」에서 統一院측은 最近에 완성한 南北간의 經濟비교와 現在 산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反共教育의 현황과 분석 등에 관해 설명했는데 金裕植統一院長관은 인사말을 통해 『한 政治團體에서 거의 全員이 行政府를 방문해 준것은 처음일로 統一문제에 관해 議員들의 관심이 높아진 징조』라고 말하고 『우리의 統一方案은 科學的 統一理論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統一은 의욕에 앞서 統一실천을 위한 智慧가 必要하다』고 強調.

바. 国会 答 弁 關 係

1) 統一 總選 對策 研究

< 69.12.5 한국 (記事)>

政府는 統一을 위해 『「유엔」감시하의 人口比例에 의한 南北韓 總選』 原則을 건지, 변천하는 國際情勢에 따라 北傀가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고 이 「유엔」原則을 수락할 경우에 대비하여 單一候補者 選出과 南韓有權者의 1백%의 지지획득을 위한 選舉管理를 綜合的인 統一 總選對策을 마련하고 있다.

申泰煥統一院長官은 4日 国土統一院에 대한 國政監査에 대한 답변에서 이와같은 사실을 밝히고 『統一院은 「유엔」감시하의 人口比例에 의한 總選을 北傀가 동의할 때에 대비, ① 韓國의 法律 ② 北傀의 法律에 대한 研究와 ③ 總選管理問題를 研究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北傀동포의 지지획득에 앞서 韓國에서의 國論統一과 1백% 지지획득을 위해 單一候補者의 選出問題를 研究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國論統一의 한 대책으로 ① 統一憲章을 기초하여 統一에 대한 국민의 신념과 목표를 통일시키고 ② 國民統一促進協會와 같은 汎民間 機構를 70年중으로 전국적으로 조직하며 ③ 統一課程과 통일후에 대비하여 統一演習(CPX)을 실시하며 ④ 西獨, 自由中國 및 越南과 같은 分斷國家間의 협조를 강화하고 ⑤ 統一院의 기구를 보강하는등 5대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엔」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統一院내에 「유엔」對策特別委員會를 설치했으며 外務部와 협조, 「유엔」代表部에 統一院 관계 상주연락관을 파견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申長官은 ① 韓國統一院은 現국

제정새로 보아 70년대 후반이 결정적인 時機가 될것 같으며 ㉔ 北傀의 南北協商, 南北交流, 聯邦制提案에 대해 계속검토하고 있으나 「유엔」方式에 의한 統韓論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으며 總選과 統一후에 대비, 越南동포에 대한 「센서스」를 실시, 離散家族, 二重家族問題, 紛失財産문제등 광범한 北韓研究를 실시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道別越南 人口發表

統一院과 以北 5道庁이 추계, 이날 밝힌 越南동포의 各都別 人口는 다음과 같다.

- | | |
|-----------------|-----------------|
| ○ 咸 北 : 55 만 | ○ 平 南 : 1백만 |
| ○ 咸 南 : 1백 10 만 | ○ 黃 海 : 1백 20 만 |
| ○ 平 北 : 80 만 | ○ 기 타 : 35만 |

2) 外交 統一政策 質疑

— 오늘 外務委서 —

〈 70.1.23 한국 (記事) 〉

国会外務委는 23일 상오 10시 을해 첫회의를 열고 崔圭夏외무, 申泰煥 統一院長官을 불러 外交 및 統一政策 전반에 관한 대정부 질의를 할 예정이다.

3) 安保統一問題 質疑

— 國際本會議

〈 70.9.10 한국 (記事) 〉

北傀가 「유엔」의 權威와 權能을 인정할때 「유엔」에서 對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아래 「유엔」전략을 研究, 검토하고 있다. 國際情勢의 변동에 따라 統一論議를 보다 大衆化해야 할 것이다.

4) 새統一教育案 檢討

〈 71.8.16 京郷 (記事) 〉

政府는 激動하는 國際情勢에 対応키 위해 朴正熙大統領의 지시로 종래의 폐쇄적인 反共教育을 統一教育으로 전환시킬 구체적인 方案을 검토하고 있다.

金永善 国土統一院長官은 16일 国会外務委에서 현황說明을 통해 『종래의 統一教育이 感情위주였고 新世代의 問題와 北傀의 思想공세를 同한히 해왔다고 지적, 앞으로 思想교육과 教材의 綜合開發, 專門家の 訓練, 교육지도계획의 具體化를 통해 새로운 統一教育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金長官은 이를 위해 『統一教育 示範學校를 運營하고 統一對備要員을 양성하며 統一후의 教育方案까지도 研究중에 있고 특히 各地方大學에 統一問題研究所를 점차적으로 設치하겠다』고 밝혔다.

5) 北送 구태어 反對 안해

一 金總理 外務委 質疑서

〈 71.8.17 한국(事記) 〉

金鍾泌總理는 16일 『政府는 앞으로 外交 및 安保問題에 대한 超党的인 衆智를 모으기 위해 필요한 경우 野黨과 事前協議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히고 『北傀가 제의해온 南北韓政黨代表者會談은 그들이 武力에 의한 統一野慾을 버리지 않는한 수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 金總理는 이날 國會外務委에서 與·野議員들로부터 最近의 流動的인 國際情勢와 관련된 政府政策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外務委에서 張德鎭, 姜秉奎, 康誠元, 權逸(이상共和) 柳珍山, 梁一東, 金泳三, 宋元英(이상新民) 議員들은 질의를 통해 ① 中立化統一論의 가능성 ② 家族찾기운동에 대한 支援 方案 ③ 南北韓政黨代表者會談의 수락여부 ④ 南北韓 「유엔」同時加入에 대한 대비책 ⑤ 앞으로 中共이 「유엔」에 가입된후 「유엔」監視下에 南北韓 總選舉가 실시될 경우의 전망등에 關係 따졌다.

답변에 나선 金總理는 『中立化統一論은 현재로서 논의할 시기가 아니며 美·中共간 會談에서 韓國問題가 흥정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미측에 통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金總理는 이어 『지난번 KAL機승객의 송환교섭 때와 같이 大韓赤十字社는 家族찾기운동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蘇聯과 中共赤十字社에도 協調要請公翰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統一에 대한 長期的인 配慮로서 暗黒의 北傀治下에 自由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근래에 在日僑胞北送을 힘들여 沮止 교섭한일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孤立되고 遮斷된 北傀治下에 僑胞들이 北送될 경우 그들이 그곳에 同化되기 보다는 反抗·不滿·批判세력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폐쇄된 北韓땅에 하나씩 自由화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

으므로 구태여 반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金裕植外務長官은 『現在로서는 北傀와 人道的인 문제이외에는 어떠한 接觸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또 金永善 統一院長官은 『北傀가 앞으로 武力赤化統一기도를 포기할 경우, 南北간의 間接接觸에서 直接接觸으로, 3國接觸에서 國內接觸으로, 非政治問題에서 政治問題로, 物件 교류에서 人的 교류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6) 統一論議 4段階로

一 金統一院長官 外務委 서 밝혀 一

〈71.11.1 京郷記事〉

金永善 国土統一院長官은 1일상오 統一論議를 단계적으로 확대키 위해
① 統一政策과 통일비전의 確立 ② 이 비전의 政府主導下의 논의전개
③ 学界·言論界에 統一問題研究所를 설치, 이 기구 주도아래 國民啓蒙活動의 추진 ④ 각종 民間社会团体주도아래 통일논의를 활발히 전개하여 全國民의 통일논의에 대한 자율적 참여능 4 단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金長官은 이날 国会外務委員會의 國政監査에 대비한 現況「브리핑」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이러한 단계적 작업의 일환으로 서울과 地方의 綜合大學과 언론기관에 統一問題研究所를 설치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金長官은 이어 각종 社会团体를 망라한 범국민적統一促進協議체를 구성하여 統一問題에 대해 民間이 主導的役割을 담당케 할 것이며 統一에 대한 國民의 참여의식을 提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金長官은 72년부터는 統一을 위해 社會教育에 치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教育은 統一노력의 生活化를 의미하는 것으로 統一祈願週間설적, 在北同鄉人에 대한 回想 및 故人에 대한 합동추도회의 開催, 統一의 노래의 全国普及, 白頭山写真 부착運動이 전개될것』이라고 말했다.

金長官은 『国土統一院은 統一을 위해 接敵地域住民과 남북어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이미 실시했다』고 밝히면서 『北傀의 科學현황, 農業生産技術의 양상에 대한 조사를 이미 마쳤고 또 統一政策을 위해 우리나라의 平和統一의 大概, 8.15 宣言發展策, 統一教育지침서의 작성등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7) 4段階 統一論議

— 金統一院長官 政府·社會團體 同時 추진 —

〈 71.11.2 韓國(記事) 〉

金永善統一院長官은 1일 国会外務委의 國政監査에서 統一院의 4단계統一論議計劃을 밝혔다. 金長官은 ① 統一政策과 「비전」確立 ② 政府主導下의 활발한 統一論議 전개 ③ 學界 및 言論界에 설치될 「統一問題研究所」를 중심한 國民啓蒙運動의 전개 ④ 각 社會團體主導下의 統一論議추진과 함께 全國民의 自律的參與의 順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監査에서 新民黨의 金弘曄당수와 共和黨의 丁一權의원 등은 ① 종래의 「유엔」方式의 統一方案이 정세변동에 따라 獨逸式 統一方案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없는가 ② 단계적인 統一論議 확대계획을 政府·社會團體·民間이 동시에 전개시킬 용의는 없는가 ③ 對北傀封鎖策의 점진적인 개방이 오히려 北傀의 침략야욕을 증대시킬 위험은 없는가 ④ 統一院이 구상하는 단계적인 對北傀接觸擴大計劃은 긴 안목에서 「이베올로지」의

中和까지 각오하고 있는 것인가 ⑤ 政府는 내년 「유엔」총회에서 中共승
인국이 늘고 共産側의 「언커크」解体案과 南北韓同時招請공세가 적극화할
경우에도 현재와 같은 「유엔」監視下의 統一方案을 계속 밀고 나갈 것
인가등을 물었다.

金長官은 답변에서 ① 「유엔」統韓原則이란 基本方針은 不變이나 지난
25년간 이 原則이 아무런 實効가 없었으므로 작년 朴正熙大統領의 8.
15 宣言이후 自主的努力을 강화해 왔고 ② 현재 統一論議는 사실상 政府
社會團體등 官民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③ 對北傀封鎖政策의 점진적완
화는 共産体制의 변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金長官은 이어
『새로운 情勢변화에 대비, 획기적인 내용이 담긴 「第2의 8.15 宣言」
을 연구·검토중에 있음』을 밝히고 『모든 北韓同胞들을 획일적으로 敵
對視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의 反共教育을 점차 統一教育으로 轉換시킬
方針』이라고 말했다.

金長官은 끝으로 올해 하반기 研究과제로서 統一院의 諮問委員인 金壽
煥추기경의 「바디칸」訪問길에 東歐共産圈과의 接觸을 打診할 計劃』이라
고 덧붙였다.

8) 豫決委, 오늘 計數 조정

〈 71.11.25 京郷(記事) 〉

国会豫算委는 30일 새벽 3시까지 法司, 文公, 保社, 運營, 外務, 國防委
소관예산에 대한 심의를 끝낸데 이어 30일 중으로 農林, 商工, 建設,
交通·財務 經科소관에 대한 부별심의를 마치고 計數調整小委를 구성, 최
종적인 計數조정을 한뒤 1일 本會議에 상정, 2일에 통과시킬 예정이다.

豫決委의 計數조정 작업과정에서 新民黨은 이미 財務委가 稅法改正 등으로 삭감한 2백1억원 외에 首都圈 방위비 58억등 增額된 부분만큼을 세출부문에서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歲出조정과정에서 적잖은 異見이 빚어질 것 같다.

29日 与·野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金永善 統一院長官은 『超党的 統一기구는 내년에 발족시킬 計劃』이라고 밝히고 『이 기구는 각계각층을 망라하여 관제 단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金溶植 外務長官은 『日本과 北傀와의 교류문제는 「스포츠」에 국한하도록 하고 그밖의 모든交流에는 반대하는 것이 정부입장』이라고 밝혔다.

金長官은 東南亞國家聯合의 中立化선언에 대해 『이는 中共진출에 대처하는 움직임으로 보며 政府는 내년 5個國 外相會議의 결과를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豫決委는 이날 새벽 1시 40분부터 劉載興 國防長官 李厚洛 中央情報部長을 出席시킨 가운데 國防部 및 中央情報部에 대한 예산을 비공개 심의했다.

또한 이날 新民黨議員들은 현재 市道の 條例에 의해 20여명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市道政 諮問委員會를 地方議會가 구성될 때까지 議會의 역할을 하도록 擴大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계 인사도 각급 諮問委에 일정 비율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金玄玉 內務長官은 『市道諮問委에 여야 구별없이 학제인사를 비롯한 각계 인사가 많이 참여하도록 內務部가 지도 하겠다』고 答辯했다.

9) 国会 本會議에서 質疑·答辯

〈 72.7.11 한국(記事) 〉

이번 北韓이 聲明發表에 동의한 것은 그들 자신이 政治, 經濟, 社會, 軍事面 등에서 누적된 모순들을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北韓이 이번 聲明으로 일단 武力統一기도의 포기를 천명한 이상 이제 부터 政府가 구상해온 3 단계統一方法을 본격화할 시기라고 본다.

10) 外交統一政策 質疑

— 오늘 外務委서 —

〈 72.7.23 한국(記事) 〉

国会外務委는 23일 상오 10시 을해 첫회의를 열고 崔圭夏외무, 申泰煥統一院長官을 불러 外交 및 統一政策 전반에 관한 대정부 질의를 할 예정이다.

11) 北韓 政治單位로 認定안해

— 国会질문 外交政策審議機構 만들 用意없나 —

〈 73.5.25 朝鮮(記事) 〉

国会本會議는 24일 오전 金溶植外務部長官등을 상대로 對政府 질문을再開했다. 공화-유정회는 수뇌급을 代表질문자로 내세워 이날하루에 對政府 質문을 마치려 했으나 이에 따른 與野간의 議事日程조정 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運營委결정에 따라 유정회의 具範謨, 무소속의 金在光議員이 각각 質문을 벌였다.

두 議員은 國政전반에 걸쳐 질문하면서 특히 統一外交문제에 중점을 두어 『北韓의 WHO (세계보건기구), IPU (국제의회연맹) 가입등은 南北對話로 그들의 對外的 發言權이 강해진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하고 『脱「이데올로기」時代의 外交를 위해 외교정책審議機構를 만들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金外務는 『國際社會에서 北韓을 政治單位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外交政策 審의에 衆智를 모으자는 데는 동감』이라고 말했다.

국회본회의는 25일 공화당의 金裕璋, 新民党的의 金守漢議員의 질문을 듣고 對政府질문을 마칠 예정이다.

質問 - 答辯要旨는 다음과 같다.

具範謨 (유정) 議員質問

① 統一外交, 統一弘報, 統一教育이 상호연관성이 없고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政府가 北韓을 對話의 상대로 인정하는 것은 政治體制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가 ② 統一이 早期성취되는 것처럼 성급한 弘報나 과도적인 共存이 민족분열을 영구화시킨다는 착각등을 갖게해서는 안된다. 과도적인 共存도 平和統一의 길이다. ③ 北韓은 최근 2년동안 17~18개국에 새로 진출하고 있는데 우리는 中立國內지 共產圈에 과고들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外交가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이론적인 무장이 결여됐기 때문이 아닌가 ④ 「아프리카」, 中南美, 中近東등 「外交 주변지역」에서 北韓과 대결하느라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소련, 中共, 東歐등 北韓外交의 심장부에 노력을 집중할 용의는 없는가 ⑤ 政府는 「아스팍」에 대처할 새 機構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⑥ 南北對話를 뒷받침할 自主國防態勢와 우리가 수립해야 할 독자적인 戰略개념에 관해 밝혀라 (書面으로 밝힐 것을 요구) ⑦ 韓半島에 대한 韓·美간의 전략판단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軍事外交를 강화해야 한다. ⑧ 軍의 精神교육이 형식에 그쳐 정신

무장이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정신戰力 강화책은 무엇인가

金溶植 外務部長官答弁

① 對話를 통해 南北문제를 해결 하는데 各種 國際機構의 北韓加入저지가 필요하다면 앞으로 계속 막겠다. 「유엔」總회에서 국가이익에 가장 합치되는 방향으로 대처하겠다. ② 北韓承認國이 10여개국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우리를承認한 88國에 비해 北韓承認國은 54國밖에 안된다. ③ 「아스파」각료회담의 개최는 어렵다. 그러나 산하 전문기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아스파」에 대체할 새기구창설에 관해 내가 만난 각국지도자들이 원칙적으로는 찬성했다.

尹曹榮 文公部長官答弁

弘報活動의 重點은 自由民主主義의 우월성을 국민이 늘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두고 있다. 그리고 北韓과의 對話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국민이 몸소 느껴 北韓의 實體를 인식시킴으로써 南北對話를 지장없이 풀어 나가는 방향으로 統一弘報를 추진중이다.

李圭學 國土統一院次官答辯

① 韓半島에는 하나의 主權國家가 있어야 하며 이는 大韓民國이다. 北韓은 대화의 상대일 뿐이다. 北韓의 지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憲法 38 조에 따라 統一主體國民會議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② 부정적 反共教育을 지양, 北韓實情을 올바르게 인식시키는 새차원의 教育을 펴고 있다.

柳根昌 國防部次官答辯

정신戰力의 강화를 위해 國史, 維新, 反共教育을 강화하고 조국의 발전상 소개, 민주주의우월성 및 土着化교육을 하고 있다. 정훈교육시간은 금년부터 50시간에서 1백시간으로 늘렸다.

12) 對外秘 基準 밝히라

— 國會常委활동 이틀째인 29일 각 常委주변의 落穂들 —

〈 73.5.30 朝鮮 (卍심) 〉

農水産 委는 무소속의 孫周恒의원이 金甫炫長官에게 『항간에서는 살살의長官, 눈치長官 이라는데...』라면서 번번이 몰아 붙이자 공화당의 洪炳喆 議院이 의사 진행발언에서 國會法 1백43조 (모욕등 언론의 금지)를 들어 견제,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委員長에게 요구, 統一院 현황청취에서 外務委의 吳世応議員 (新民)은 『결짓하면 「對外秘」라고 하는데 對外秘의 기준이 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고 李圭學次官은 『政府의 1級~3級비밀외에 對外秘라고 하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닌 非公開협조요청』이라고 설명 建設委에서는 現황청취도중 한때 의원들이 하나 둘씩 담배를 피러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회의장에 女性議員인 徐英姬議員등 2명만이 남게 되어 의원들을 다시 불러들이기도 했다. 梁海燧의원 (신민)은 『담배피러 들락날락 하다보니 會議進行 상황을 모르는등 오히려 非能率의이니 常委에서 만든 담배와 물을 허용토록 9월정기 國會 때는 國會法을 손질하자』고 동료의원들의 「率先」을 선동(?). 經科委에서는 高興門의원 (신민)이 경제기획원의 자료빈약을 지적하면서 『能率國會가 되려면 國會가 새國會法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政府가 알아서 해야 하지 않느냐』고 一喝, 停會를 해서 이 문제를 다룰 小委를 구성하자는 金鍾哲委員長의 「복잡한 제의」를 棄却(?) 시켰다.

13) 들락날락해서 더 非能率

〈 73.5.30 中央 (卍심) 〉

國會本會議에서 對政府질문이 制約됐으나 常任委員會에서는 충분한 시

간으로 갖가지 질문이 나오고 있다.

29일 農水産委선 山林庁을 内務部로 넘긴 問題가 제기돼 孫崙恒의원(無)은 非常国务會議회의록을 베껴와 『金玄玉内務가 山林庁을 메가겠다고 했을때 金甫炫, 農水産長官은 한마디 주장도 못했더라』면서 『金長官은 살사리長官이라고 불리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金在春의원(共和)도 『山林庁이 관은 가슴아픈일』이라고 同調했는데 洪炳喆의원(共和)이 『살사리長官은 国会法上 금지된 모욕발언이니 速記錄에서 삭제하라』고해 金장관이 궁지에서 빠져났다.

報道를 금한다는 조건부 公開會議로 統一院 現況설명을 듣던 外務委선 統一院의 「브리핑·차드」 곳곳에 붉은줄로 「對外秘」가 쓰여있자 吳世応의원은 『對外秘란 어떤거냐』고 따졌는데 統一院기획관리관은 『3급이상 비밀의 報道는 報道者가 刑事책임을 지지만 「對外秘」의 報道는 道義的 책임을 져야하는 협조 요청사항』이라고 설명.

建設委선 회의도중 의원들이 담배피우려 자리를 각각 뜨게되자 梁海煥의원(新民)은 『담배피우려 들락날락하다보니 도리어 非能率的이 잡느냐』면서 常任委禁煙규정을 삭제하는 国会法개정때 与党도 同調 해달라고 미리 부탁.

14) 南北會談 業務管掌 檢討

一 金 統一院 , 国会 보고 一

< 74.3.1 東亞(記事) >

金溶植 統一院長官은 6日 国会外務委에서 『政府는 南北會談 업무를 統一院이 主務部處가 되어 관장하는 方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金장관은 이날 南北對話와 統一政策은 統一院이 主管해야 된다는 鄭

一亭의원 (新民) 의 질의에 이와같이 답변하고 『南北調節委와 南北赤十字會談에 관련된 모든 움직임을 統一院이 종합해서 研究하는 方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金長官은 이날 政府의 統一政策에 언급, 『統一의 前提條件은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平和를 정착시키는 方案으로 는 ① 北韓의 武力침략을 막을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② 友邦과의 防衛協定 및 條約등을 활용, 平和守護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며 ③ 北韓의 배후勢力인 蘇聯과 中共에 대해서는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키는 것이 그들의 實利에 현실적으로 맞는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金長官은 이날 우리가 北韓에 不可侵協定을 제의함에 있어 「條約」대신 「協定」이란 用語를 택한 이유에 대해 『우리는 北韓을 國際法上的의 國家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5) 南北對話 進行狀況 資源外交 展望 質問

一 내일 國會 外務委 一

〈 74.3.4 서울 (記事) 〉

國會는 5일과 6일 外務委員會를 열고 金東祚 外務長官과 金裕植 統一院長官을 出席시켜 外務部와 統一院의 7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資源外交現況과 展望 및 南北對話의 進行狀況등 當面外交問題에 關係 질의를 辨인다.

16) 南北對話 등 對策質疑

— 南北對話 등 對策質疑 —

〈 74.3.4 東亞 (記事) 〉

国会는 5日과 6日 이틀동안 外務委를 소집, 金東祚 外務部長官과 金溶植 統一院長官을 불러 당면한 外交問題와 南北對話의 現황에 관해 政府측 설명을 듣고 政策질의를 벌일예정이다.

17) 南北對話 등 質疑

〈 74.3.5 한국 (記事) 〉

国会는 5일과 6일 外務委를 열고 金東祚 外務部長官과 金溶植 統一院長官을 出席시켜 南北對話의 進行상황을 비롯 外交政策에 관해 질의를 벌인다.

18) 韓·美 防衛條約 現在론 못고쳐

〈 74.3.6 서울 (記事) 〉

国会外務委員會는 6일 이틀째 會議를 열고 金溶植 統一院長官을 出席시켜 최근의 北韓동향과 南北對話 進行상황에 대한 보고를 비공개로 들은 뒤 統一政策 전반에 관해 질의를 벌였다.

金長官은 이날 人事말에서 『北韓의 우리 漁船에 대한 武力挑發行爲와 「알제리아」要人の 北韓訪問에 北韓수뇌부의 발언내용등에 비추어 볼때

北韓의 움직임은 최근에 미묘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金東祚 外務長官은 5일 「술레진저」美, 國務長官의 駐韓美軍에 관한 발언을 따지는 鄭一亨의원 (신민)의 質問에 대해 『駐韓美軍의 철수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74 회계연도에는 美軍철수가 명백히 없고 75 회계연도에도 아직까지 감축문제에 관한 사전협의를 없는 것으로 보아 減軍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金長官은 또 「술레진저」발언의 真意에 대해 駐美韓國大使館과 駐韓美國大使館을 통해 확인한 결과 『駐韓美軍에 관한 美政府의 입장은 不變이며 減縮계획은 없고 減縮時에는 韓國과 사전협의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술레진저」長官의 機動豫備軍과 건에 관한 발언은 장차 가능한 代案으로 검토중이며 현재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美國측에서 밝혀왔다』고 말했다.

19) 北傀 動向 報告 聽取

一 國會外務委 非公開회의서 一

< 74.3.6 中央(記事) >

國會外務委는 6일 金裕植 統一院長官으로부터 비공개로 南北對話현황과 北韓의 最近 動向을 보고받고 질문을 벌였다.

金長官은 『最近 南北關係는 北韓의 우리漁船拉致와 「알제리」要人の 北韓訪問때 행한 연설에서 나타난 점등으로 미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 內容을 說明하는 非公開會議을 요청했다.

20) 北傀動向 미묘

— 金統一院長官, 外務委서 —

< 74.3.6 京郷 (記事) >

金溶植 国土統一院長官은 6일 상오 国会外務委에서 인사말을 통해 『北韓이 西海公海上에서 우리漁船을 擊沈시키고 拉致한 事件과 「알제리아」 要人の 北韓訪問때 北韓수뇌들이 한 발언내용등으로 비취 最近 北韓의 움직임에는 미묘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国会外務委는 이날 상오 10시 非公開로 金長官으로부터 南北對話 現況과 北韓의 最近 動向에 관한 보고를 듣고 質疑를 벌였다.

21) 北傀움직임 미묘

— 金統一院長官 報告 —

< 74.3.6 東甌 (記事) >

国会外務委는 6日 金溶植 統一院長官으로부터 最近의 北韓動向에 관한 보고를 듣고 質疑를 벌였다. 이날 金長官은 『西海에서의 우리漁船의 被擊 및 被拉事件과 「부메디엔」 「알제리아」 大統領의 平壤訪問에 이어 나온 聲明등 最近의 北韓情勢를 分析해 볼때 그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미묘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統一院의 보고는 대부분 非公開로 進行했다.

22) 南北對話統一院 管掌檢討

< 74.3.6 新垂 (記事) >

国会外務委는 6일 상오 金容植 統一院長官으로 부터 南北對話현황과 최근의 北傀動向에 관해 보고를 듣고 質疑를 벌인후 2일간의 회의를 마쳤다.

金長官은 이날 『韓半島의 平和정착이 南北統一의 가장 빠른길』이라고 말하고 『平和定着이 없는 統一方案은 오히려 武力충돌을 예상케 하는 非現實的인것』이라고 말했다.

金長官은 『南北統一의 靑写真을 밝히려』는 金鐸河의원 (무소속) 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고 『人道的 次元의 쉬운 문제부터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政府의 統一政策』이라고 거듭 밝혔다.

金長官은 또 『北傀의 南北韓 10万減軍주장은 「유엔」軍을 南韓에서 撤收시켜 韓國의 國防力을 弱化시키려는 心理戰의 일부이므로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金長官은 이밖에도 ① 統一院에서 南北會談과 統一問題를 一元的으로 관장하는 方向으로 研究중이며 ② 國軍現代化計劃은 美國政府가 對議會관계로 그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美國은 約束을 지킬것으로 믿는다고 答辯했다.

金明會 李範俊 (維政), 鄭一亨 吳世応 (新民), 金鐸河 (無所屬) 의원 등은 질의를 통해 ① 統一院을 西獨의 內獨관계省과 같은 性格으로 體制를 바꾸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 ② 지연되고 있는 國軍現代化 계획에 對한 補完策을 연구하고 있는가 ③ 최근 北韓의 정치적인 변동, 軍事力再配置, 西海岸도발사건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④ 北韓을 最近에 와서 北傀라고 호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고 추궁했다.

23) 金統一院長官 外務委 答辯

< 74.3.7 朝鮮 (記事) >

国会外務委는 6일 金溶植統一院長官을 出席시켜 最近의 北韓動向에 關係 報告를 듣고 質의를 發했다.

金明會의원 (유정) 은 『北韓이 中東戰에서 사용된 樣2 「미사일」을 소련으로부터 대량 도입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北韓의 政治的 變動, 休戰線병력재배치, 서해안도발과 駐韓美軍의 이동설등이 나도는 것으로 보아 50년1월 「애치슨」美國務長官의 선언 (美國의 極東防衛圈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것) 이 당시상황을 연상시키는 것이 아닌가』고 물었다. 金鐸河의원 (무) 은 『세계 여론에 설득력있고 국민에게 품을 줄 수 있는 한국통일의 청사진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吳世庇의원 (신민) 은 朴大統領이 제의한 不可侵協定을 특별히 協定이란 용어를 쓴 이유는 무엇이나고 물었다.

李範俊의원 (유정) 은 北韓은 영국 서독 「프랑스」 「핀란드」등과 경제 협력관계를 적극화하고 있는데 우리政府도 中共 東獨등과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펼 용의는 없는가고 質문했다.

金溶植統一院長官은 『南北統一은 南北간의 평화정착의 전제없이 는 이룩될 수 없으며 무력통일은 상상할수도 없는일』이라고 말하고 『北韓은 국가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약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協定이란 단어를 사용한것』이라고 答변했다.

金長官은 『北韓의 10萬減軍제약은 사실상 우리의 국방력을 약화시키려는 心理戰의 하나로 나온만큼 고려할 가치도 없는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南北對話를 統一院이 주관, 一元化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4) 南北對話 一元化 檢討

— 金·統一院, 外務委서 —

< 74.3.7 한국 (記事) >

国会外務委는 6일 金裕植統一院長官으로부터 南北對話와 最近의 北愧動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政策質疑를 벌인뒤 이틀간에 걸친 회의를 마쳤다.

金裕植統一院長官은 이날 『南北調節委가 正常化되지 못하고 副委員長會議만 하고 있으며 南北赤十字會談도 마찬가지로인 상태에 놓여있지만 앞으로 統一院에서 이런 會談을 一元化하여 주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金長官은 이날 維政會의 金明會·李範俊, 新民主黨의 鄭一亨의원 등이 『統一院이 研究所와 같은 운영방식을 지양, 현재 多元的으로 벌이고 있는 南北調節委와 南北赤十字會談등 南北對話를 주관하여 추진할 용의가 없는가』고 질의한데 대해 이같이 答辯하고 『南北對話는 北韓側이對話의 論理가 아니라 一種의 心理戰적인 論理를 가지고 대하고 있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5) 南北對話의 모든問題 「統一院서 主管」檢討

— 金·統一院, 外務委서 答辯 —

< 74.7.7 서울 (記事) >

金裕植統一院長官은 6일 国会 外務委에서 南北對話에 있어 統一院의 역할을 묻는 金明會 (유정), 鄭一亨의원 (신민) 질의에 대해 『南北調節委員會와 南北赤十字會談등 南北對話는 政府의 部処가 주관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말하고 『南北對話의 모든 問題를 統一院이 주관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金長官은 이어 『北韓은 南北對話를 心理戰으로 이용하려고 있기 때문에 統一院은 그에 대한 대책을 研究 分析하고 있다』고 아울러 밝혔다.

金長官은 또 우리의 統一政策에 대해 『韓半島에 평화정착이 통일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하고 『平和의 定着이 없이는 南北統一論議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金長官은 『統一이 이룬시일안에 이룩될 수 없다면 平和를 定着시켜 가능한 인도적인 교류부터 하자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라고 말하고 『6.23 宣言은 우리의 平和統一政策을 단적으로 표현한것』이라고 설명했다.

金長官은 『北韓은 60년대 초부터 中·蘇紛爭을 교묘히 이용, 軍事同盟을 雙務的으로 맺었다』고 지적하고 『最近에는 海軍은 中共에서 空軍은 蘇聯에서 원조를 받아 군사력을 증강시켰다』고 말했다.

金長官은 이밖에 『北韓이 주장하는 「10만선減軍」운운은 우리의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美軍을 撤収시키려는 심리전으로 우리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26) 南北韓對話主管 統一院에서

〈14.3.7 中央(記事)〉

政府는 國土統一院의 機構를 개편하는 한편 주무관서가 多辺化돼있는 南北對話를 統一院이 주관할것을 검토중이라고 金溶植統一院長官이 말했다.

金長官은 6일 外務委에서 南北調節委와 赤十字會談이 靑瓦台 中央情報部 統一院 등에서 분할, 觀望돼 교착상태에 빠진 會談을 統一院이 집중 담당해야 한다는 鄭一亨의원 (新民) 과 李範俊의원 (維政) 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7) 統一院 科學的 平和統一理論 定立

〈 74.3.27 東亞 (五 十) 〉

共和黨은 26日 維政會와 合同으로 總和活動調整委員會 總和活動担当議員會議을 연데 이어 國土統一委員會 (委員長 文太俊의원) 등 잇단 會議을 열어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尹靑榮 文公部長官을 出席시킨 總和活動担当議員들의 모임에서는 그동안 政府에 建議한 文化예술관계 50여개 사항의 처리현황에 관해 政府측의 설명을 들었는데 尹長官은 『 藝術인들이 과거와는 달리 구체적인 建議 사항도 많이 내는등 참여의식이 커졌다』고 말했다.

國土統一委에서 統一院의 業務에 관해 說明한 金裕植 統一院長官은 『 解放 이후 南北間에는 수많은 統一理論이 있었으나 가장 合理的이고 現實的의 統一政策의 제시는 朴正熙大統領의 8.15 宣言, 7.4 共同聲明, 6.23 外交 宣言, 不可侵協定제 의등 이었다』고 밝히고 『 구슬이 서말이라도 엮어야 목거리가 되듯 統一院은 理論의 뒷받침이 있는 科學的인 平和統一理論을 定立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共和 維政의 總和活動調整委員會에서는 제 89회 臨時國會 문제가 논의됐는데 회기가 끝난후 共和黨 朴浚圭 政策委員長은 與野間 争点이 되고 있는 大統領緊急措置解除建議案문제에 대해 『 내려면 9月定期國會에서 나 내라』면서 新民黨의 움직임들 일축했다.

28) 科学的 統一理論定立에 努力 集中

< 74.6.17 서울 (記事) >

維新政友會의 閔丙權원내총무등 54 명의 의원들은 17일 상오 10시 國土統一院을 訪問, 金裕植 長官으로부터 政府의 統一政策概要와 南北관계현황에 관한 설명을 비공개로 들었다.

金長官은 의원들에게 『北韓공산집단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도발과 中傷·誹謗·煽動을 격화시키고 있는 현재의 南北關係를 평가해 볼때 이에 대처할 우리국민의 總和的단결 태세는 그어느때 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국민總和는 확고한 통일이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統一院은 이를 위한 과학적인 통일이론定立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9) 實質的 統一條件 改善 智慧 必要

< 74.6.18 京鄉 (記事) >

閔丙權원내총무등 維政會소속 國會議원 51명은 17일 상오 國土統一院을 訪問, 政府의 統一政策과 南北關係 現狀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金裕植 統一院長官은 『南北分斷의 現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욕보다 실질적인 統一條件의 改善를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維政會소속 의원들의 협력을 구했다고 宋榮大 代弁人이 伝言, 金長官은 『「科學的統一理論」정립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는데 現황설명이 끝난 뒤 閔총무는 『統一院이 그동안 어려운 여건아래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줄 몰랐다』고.

30) 對話「無條件」再開 摸索

一 金統一 北傀의 心理戰 이용기도로 中斷됐다 一

〈 74.6.27 中央 (記事) 〉

共和黨은 27일 상오 南山黨舍에서 제 4차 議員「세미나」를 열고 비공 개로 金溶植 統一院長官으로부터 南北韓經濟力比較, 趙淳교수 (서울大商大) 로 부터 74년도 下半期景氣展望등을 설명 들었다.

金溶植 統一院長官은 이 자리에서 『北韓이 南北對話를 「 대화의 논리」가 아닌 「心理戰의 論理」로 응대함으로써 對話를 결렬시키고 말았다』고 밝히고 『그러나 우리는 실망이나 체념을 하지 말고 민족의 分斷고통 해소를 위한 역사의 進路開拓을 위해 꾸준한 努力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長官은 『73年度 제 28次 「유엔」總會에서 滿場一致에 의한 韓國問題 처리가 그동안 南北關係進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역사적인 의의를 갖고 있는 것이므로 앞으로의 南北關係진전에 큰 의의를 부여할 것』이라면서 『현재 南北對話가 비록 진척되고 있지는 않으나 「條件없는 對話」를 계속한다는 우리의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金長官은 또 統一問題에 관해 『6.23 外交선언은 7.4 共同聲明을 韓半島에 구체화시킨 조치』라면서 『平和統一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의 憲法理論을 蘇聯과 中共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31) 外交安保 影響없나

— 国会本會議 質疑답변 —

< 74.8.8 朝鮮 (記事) >

北韓은 애초 對話에 임할때 한국의 실정을 오관했던 것이며 이제 경쟁적 자신감을 잃고 대화를 기피하는 것이다.

사. 学 術 세 미 나 関 係

1) "統韓" 國際세미나

- 내년 2月 서울서, 12國 學者초청 -

< 69. 7. 10 中央 (記事) >

国土統一院은 내년 2월 美 英國 西獨 「프랑스」 伊太利 「캐나다」 濠洲 日本 由自中國 越南 「필리핀」 泰國 등 自由友邦 12 個國의 共産圈문제 전문학자들을 초빙, 國內학자들과 더불어 韓國統一문제 國際「세미나」를 서울에서 開催할 계획이다.

統一院은 이를 위한 豫算 1천 3백만원을 70년도 豫算案에 제상해 놓고 있다.

統一院은 또 政府의 統一政策일반에 관한 問題와 各급학교 學生 및 公務員들에 대한 勝共統一교육지침, 통일후 北韓地域에 對한 民主教育방안, 分斷國家들의 統一教育政策 比較, 中立國外交강화를 위한 資料들을 모아 5백여 「페이지」가량의 統一白書를 내년말에 發刊계획이다.

2) "統韓" 國際學術會議

- 「워커힐」서 13 個國 80 餘學者 참가 -

< 70. 8. 25 한국 (記事) >

「韓國統一問題 國際學術會議」는 高大 亞細亞問題研究所 주최로 國內의 학자 약 80 명이 參席한 가운데 24일 오후 10시 「워커힐」 국제회의실에서 金俊燁대회장의 개막연설로 막을 올렸다.

개막식에는 國內외학자외에 丁一權國務總理와 金永善統一院長官, 그리고

共和·新民兩黨과 政友會의 대표 및 言論界 인사등 30여명이 참석했다.

丁총리는 이날 祝辭를 통해 北傀의 무력도발을 경고하고 朴대통령의 「8.15 선언」을 想起시키면서 自由·民主統一을 위해 平和的이고도 능동적인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국제정세의 동향등을 注視·검토하여 만반의 대책을 강구할것이라고 말했다. 첫날회의에서는 金대 회장의 基調연설에 이어 「韓國 통일의 國際的 환경」을 토의했다. (관련기사 3.5면에)

3) 統韓의 國際的 環境

- 서울에 모인 世界碩學들 診斷

< 70.8.25 한국 (記事)>

하오 6시 30분 「워커힐」本館 전당에서 열린 「리셉션」에는 政府에서 金永善 統一院長官을 비롯, 高大 李鍾雨총장, 「壘研」所長, 金俊燁 교수, 駐韓美대사관 文政官 「칼·발츠」박사와 國內外참가학자들이 참석, 대성황을 이뤘다. 「브르제진스킨」, 「진스버그」교수를 비롯 外國의 교수들은 이러한 「빅·이벤트」를 마련한 高大측의 준비노고를 무수히 치하했다. 이날 「리셉션」의 對話는 斯界의 권위자들답게 시종 學術관계와 國際政治문제에 집중, 「진스버그」교수는 「統一問題에도 관심이 있지만 韓國 文化에 보다 깊은 關心이 있다」고 말하고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틈틈히 덕수궁을 비롯 古宮散策을 즐기겠다고.

長官과 個人論議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하오 8時30분에 끝난 「리셉션」후 「사우드」캐럴라너」大의 國際問題研究所長 「리처드 워커」教授는 金永善 統一院 長官과 市内에서 단독으로 만나 統一問題를 論議했다는 後聞.

4) 韓國이 北傀앞서야

- 金統一院長官 統韓 3 個條件指摘 -

< 70.11. 6 韓國 (記事) >

金永善國土統一院長官은 韓國의 平和的統一을 實現하기 위한 3가지 基盤條件으로 『첫째 大韓民國이 北傀에 대해 모든 部門에서 強力한 国力을 培養해야 하고 둘째 國際的環境이 韓國의 平和的民主統一에 유리하도록 造成 되어야 하며 셋째 北傀는 韓半島의 武力赤化侵略企圖를 拋棄하고 平和的民主統一의 要請을 認識하는 것』이라고 指摘했다.

金長官은 5일상오 大邱嶺南大學校 統一問題研究所 주최 「학술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월한 力量배양을 위해서는 정치적 安定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金長官은 『民主統一에 유리한 국제환경조성을 위해서는 民主主義와 自由主義制度가 경제적으로 共產主義統制下의 노예경제체제 보다 生産的인制度라는 것을 입증해야하며 북괴의 武力挑發을 저지하는데 필요한 강력한 國防力을 길러 北傀의 무력赤化통일계약을 포기하도록 하는길이 통일을위한 우리의 課題』라고 강조하고 『따라서 國家安保가 統一에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5) 主權無視統一 안돼

- 國民이 앞장서 主体性과 格야 -

< 72. 7. 3 京鄉 (記事) >

韓國統一問題研究所 (이사장 黃聖秀)가 주최한 統一문제세미나가 1일하오 明知大學에서 열렸다.

「韓國統一問題의 回顧와 展望」이라는 제목으로 發表물한 吳制道씨

(北韓問題研究所長)는 『最近 南北赤十字會談이 진전됨에따라 일부 성급한理想論的인 사람들에게서 主權이 어느정도 無視되더라도 어떤 方法에 의해統一은 해야된다는 생각을 엿볼수 있다』고 말했다.

또 吳氏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統一의 問題는 「이데올로기」가 그 重要한 첫째임에는 틀림없으나 大韓民國의 憲法이 北에 미치는 現在의 상황아래서는 「이데올로기」에서의 勝敗는 그렇게 重要한 問題가 될수 없다』고 밝히고 『서울의 優秀한 大學生과 金日成大學의 熱誠學生을 함께 기숙사에 넣었을 경우 그들사이에서 누가 影響을 받을것인가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理想과 行動面에서 그들이 優勢하게 보일지는 모르나 實際에 있어서는理想과는 많은 거리가 있으며, 自由主義의 強點은 「이데올로기」·反共法등 各 다른것을 떠나 實質的인 마음의 反共을 強化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統一』이라는 말自体에 있어서도 우리의 그것과 金日成의 統一은 全然 다른 것이다. 예전에는 『共產主義와 民族의 對決』같이 생각되어 왔으나 그것은 점차 變質되었다.

북괴는 徹底히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않고 南北赤十字會談에도 응하고 있으며 目的達成을 爲해 온갖 수단을 쓰는 것이다.

그들에게 統一과 反共을 맞바꿀수도 있는것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主見없는 크나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北의 그들에게서 손톱만큼의 讓步도 찾아볼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國民은 政府보다 앞장서 主体性을 갖고 共產主義에 對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 統一學術會議 開催

南北對話와 國論統一」논의

< 73. 6. 29 京鄕 (記事) >

國土統一院이 主管한 「南北對話와 國論統一」이라는 統一에 관한 學術會議가 全南大學校 統一問題研究所 主催로 29日 상오 9時 이곳 全南大學校에서 열렸다. 이 會議에서는 金永善 통일원 장관을 비롯하여 各大學 및 言論機關 研究所代表 및 專門家 90여명이 參席했다.

이 회의의는 朴正熙大統領의 6. 23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이 있는 후 처음 열리는 學術會議라는 점에서 國內外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金永善 長官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가 바라는 조국의 平和統一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平和統一에 대한 北韓측의 拒否와 그들이 實質的인 反統一政策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6. 25 不法南侵을 통하여 百餘萬의 同族을 살상하고 全國土를 焦土化시키는 民族的大悲劇을 일으킴으로써 統一이 平和的으로 이루어 질 可能性을 源泉的으로 막아 버렸다』고 北韓의 南侵을 통박했다.

이어 金長官은 『6. 23 宣言을 계기로 과거의 「이데올로기」적 敵對 國家들과도 관계를 개선할 기반을 다짐으로써 北韓이 우리政府의 正當한 平和統一政策에 順應할수 있게 對外環境을 造成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개최식에서 全南大總長 柳基春박사는 『南北對話와 國論統一』이라는 基調演說을 했으며 慎道晟박사는 「南北對話에 대한 大學의 使命」이라는 特別강연을한후 主題발표와 分科別토의가 있었다.

- △ 南北對話가 國民輿論에 미친영향 = 東亞日報安保統一問題研究所 鄭亨壽
- △ 南北對話가 大學生들의 意識構造에 미치는 영향 = 東國大安保問題研究所 閔丙天
- △ 北韓의 對南心理戰 현황評價와 그대책 = 亞細亞問題研究所 金南植
- △ 6. 25의 背景分析과 그 整理 = 國防大學院安保問題研究所 崔敬洛

7) 平和統一 外交宣言支持

- 統一學術 會議 -

< 73. 7. 1 한국 (記事) >

國土統一院主管으로 지난 28일부터 全南大學校에서 열린 統一에 관한 學術會議 (주최 = 南北對話와 國論統一)는 30일 政府의 6.23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을 지지하는 7個項의 共同合議書를 채택하고 폐막했다.

26개 大學 및 5個言論機關附設 統一 및 安保關係研究所代表者와 專門家 90여명이 참가, 채택한 이 合議書는 政府의 平和統一外交政策은 急變하는 國內外情勢에 自主적으로 대처하면서 韓半島의 平和秩序確立을 평화적 조국 통일 의 전제로 設定했다는 점에서 가장 現實的統一外交政策임을 확인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우리나라의 安全保障環境에 비추어 불매 駐韓「유엔」軍은 韓半島에서 侵略의 威脅이 없어지고 平和秩序가 定着될 때 까지 平和維持의 任務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統韓學術大會

- 統一院, 來年 유럽서 -

< 73. 9. 6 한국 (記事) >

國土統一院은 내년 「오스트리아」의 「빈」이나 그 밖의 「유럽」지역에서 韓國의 平和統一문제에 대한 대규모 學術大會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계획은 5일 共和黨과 維政會의 74년도 統一院 豫算案 예비심사에서 밝혀졌다. 統一院은 지난번 6.23 平和統一外交宣言의 효과를 「極大化시키고 韓國의 平和統一努力에 對한 趣旨說明과 이에 대한 「유럽」地域 (東歐圈 包含) 碩學들의 意見을 綜合적으로 蒐集하기 爲한 目的으로 檢討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 「南北韓關係」세미나 開催

- 高大亞研, 7.4 声明두들맞아 -

< 74. 7. 3 東亞(記事) >

高麗大學校 「아시아」問題研究所(所長 金俊燁)는 오는 5日 부터 3日間 서울 시내 「타워호텔」에서 「韓半島 주변정세와 南北韓關係」를 主題로한 대 규모 學術會議를 개최한다.

7.4 南北共同声明發表 2주년을 맞아 國土統一院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學術會議는 주로 強大國의 韓半島政策, 韓國의 統一및 外交政策, 北韓의 統一政

10) 分斷固定 法的根拠 될 수 없다

- 南北韓 유엔 同時加入 -

< 74. 7. 5. 東亞(記事) >

金溶植國土統一院長官은 5日 『우리의 統一노력은 南北韓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결코분리될수 없는 하나의 조국을 平和的 方法에 의해 統一해야한다는 歷史的 사명의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전제, 『分斷된 祖國을 平和的으로 統一하기 위해서는 相互신뢰와 民族的同質性을 회복하고 統一조건의 실질적개선을 이룩해야하며 南北이 합의하고 28次「유엔」總會에서 만장일치로 지지된 7.4 共同声明의 준수가 平和統一에 이바지할것을 확신, 北韓은 이를 준수할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金長官은 이날 高大 亞細亞問題研究所主催로 「타워호텔」에서 「韓半島 주변정세와 南北關係」라는 주제아래 열리고있는 學術회의에서 致辭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統一問題에 관한 制度的해결을 성급히 추구하기에 앞서 南北이 서로 내왕하고 物資를 교환하고 民族文化를 共同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상태를 시급히 회복하는데 統一노력을 집중해야할것』이라고 강

조했다.

金長官은 『따라서 이같은 南北關係를 유도할수 있는 條件의 형성과정의 統一에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말하면서 『南北間에는 外交 國防 財政 등의 分野에서는 완전히 융합되기 힘든 「이데올로기」를 構成原理로 하여 異質 體制가 確立되었고 教育 文化를 비롯 民族 歷史에 대한 개념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졌고 심지어는 言語生活에서 마저 異質化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 『이시점에서 우리가 모색해야할 統一은 統一成立의 조건이 나날이 改善되는 과정으로서의 統一에 그 目標을 두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는 분명히 戰爭이 韓半島統一의 수단이 될수있을뿐만 아니라, 統一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의 統一조건이 改善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땅에 平和가 정착되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南北關係에서 冷戰의 論理가 청산되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韓半島에 平和를 정착시키기 위해 『北韓은 우리가 제의한 不可侵 協定締結에 동의해야 하고 韓國을 소위 共產革命解放對象地域으로 정의해온 비현실적 統一路線을 포기, 平和統一에 대한 원칙적 장애요소를 제거해야하며 北韓은 南北韓의 「유엔」同時加入이 南北韓의 冷戰的 對峙狀態의 해소에 기여할 뿐 분단을 고정시킬 法的근거가 될수없다는 國際法의 현실을 인정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金長官은 특히 『北韓은 7.4 同同聲明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원칙을 준수하지는 커녕 도리어 韓國의 安全保障을 약화시킬 心理戰의 도구로 역이용하고 있으며 南北對話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東西海上에서 우리의 어선과 경비정을 침몰시키는가하면 軍事挑釁을 격화, 南北關係를 7.4 聲明이전 狀態로 후퇴시키고있다』고 지적, 『北韓측은 하루빨리 7.4 聲明의 근본정신에 복귀하고 赤十字會談에 성의를 다하라』고 촉구 했다.

11) 民族同質性 回復에 우선 努力하자

- 南北교류 · 物資교환 · 民族文化 공동발전통해 -

< 74. 4. 5. 서울 (記事) >

金溶植 国土統一院長官은 5일 상오 『지금 南北間에 對話의 通路는 열렸어도 民族的 同質性회복을 위한 積極적 開放과 交流가 전개되지 않고 있다』고 전제, 『우리는 統一問題에 관한 制度的해결을 성급히 추구하기에 앞서 南과北이 서로 來往하고 物資를 交換하고 民族文化를 共同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상태를 시급히 회복하는데 統一努力을 집중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不可侵』協定 締結 동의를

金長官은 이날 서울『타워·호텔』에서 있는 「韓半島 주변정세와 南北韓관계」라는 主題의 學術會議(高大아시아문제연구소주최·統一院후원)에 참석, 致辭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러한 南北관계를 誘導할수 있는 條件의 형성과정 하나 하나가 우리에게는 統一에 가까워지는 길이며, 따라서 이 時点에서 우리가 모색해야할 統一은 統一成立의 조건이 나날이 개선되는「過程으로서의 統一」에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長官은 『韓民族의 우리世代는 지금 또 다른 同族相殘의 가능성이 완전배제되지 않는 상황속에서 계속 民族統一의 밑바탕이될 民族的 同質性喪失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나 우리는 분명코 戰爭이 韓半島통일의 수단이 될수 없고 또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6. 25의 敎訓을 되새겨 우리가 추구하는 統一이 5천만동포들의 共存共榮을 약속하는 平和統一이라는 것을 證言해야할 世代』라고 말했다.

金長官은 이어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키기 위해 北韓은 ①休戰협정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가운데 不可侵협정체결에 동의할것 ②비현실적 革命統一路線을 포기하고 平和統一에 대한 원 칙적 障害要素를 제거할것. ③南北韓의

동시 「유엔」加入이 결코 冷戰的 對峙상태의 해소에 기여할뿐 분단을 고정시킬 법적근거가 될수 없다는 國際法의 현실을 인정할것등을 요구했다.

金長官은 또 『우리의 統一努力은 南北韓이 과거·현재·미래를 통해 결코 분리될수 없는 하나의 조국을 平和的방법에 의해 統一해야 한다는 歷史的使命의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밝히고 『분단된 조국을 평화적 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相互신뢰와 민족적 同質性을 회복하며 統一條件의 실질적 改善을 이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金長官은 끝으로 『우리는 7.4 南北共同聲明을 지지하는 모든국가와의 관계를 改善하는 동시에 과거와 현재를 통해 존속해온 一切의 不自由스런敵對關係를 해소하는데 주력할것』이라고 밝히고 『北韓側은 하루빨리 7.4 聲明의 근본정신에 復歸하는 동시 南北赤十字會談에서도 성의를 다하라』고 거듭 促求했다.

12) 統一條件 實質的 改善을

- 相互 往來 - 物資 교환등 -

< 74.7.6 朝鮮 (記事) >

金溶植 国土統一院長官은 5일 「分斷된 祖國을 平和的으로 統一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와 民族的 同質性을 회복하여 統一條件의 실질적 개선을 이룩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金長官은 이날 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주최로 타워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韓半島 주변정세와 南北韓관계」학술회의에 참석, 致辭를 통해 政府의 당면한 平和統一추진의 基本立場과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金長官은 『現在の 南北간에는 社會的 同質性이 없고 「이메올로지」가 대립되고 있으며 對外關係에서 共通된 紐帶意識을 가질수 없기 때

문에 어떠한 형태로도 政治的인 일괄 해결을 기할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世代는 統一문제에 관한 制度的인 해결을 성급히 추구하기에 앞서 南과北이 아무지장없이 서로 내왕하고 物資를 교환하고 民族文化를 공동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상태를 시급히 회복하는데 統一노력을 집중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金長官은 『体制와 理念이 근본적으로 다른 條件아래서 하나의 正統政府와 이에 도전하기 위해 수립된 共產集團이 一朝一夕에 하나의 單一政府로 통합된다는것은 그 전례도 없거니와 현시점에서는 거의 기대할수 없는줄안다고 말했다.

金長官은 『우리의 統一條件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이땅에 平和가 정착되어야 하며 그러자면 南北관계에서 冷戰의 論理가 청산되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고 『北韓은 韓半島 평화유지의 根幹으로서 休戰協定の 효력을 지속시키는 가운데 相互不干涉武力불행사를 약속하는 不可侵協定締結에 동의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金長官은 또 『北韓은 南北韓의 同時「유엔」加入이 南北韓의 冷戰的대치상태의 해소에 기여할뿐 分斷을 고정시킬 法的根拠가 될수없다는 國際法의 현실을 인정해야하며 大韓民國을 소위 共產革命과 解放대상지역으로 정의해온 비현실적 革命統一정책을 포기, 祖國의 平和統一에 대한 원칙적 장애요소를 제거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13) 「過程으로서의 統一」目標

- 金統一院長官, 『南·北關係』學術會議서 연설 -

< 74. 7. 6 서울 (記事) >

金溶植 國土統一院長官은 5일상오 『지금 南北間에 對話의 通路는 열렸

어도 민족적 同質性회복을 위한 적극적 開放과 交流가 전개되지 않고 있다』고 전제, 『우리는 統一問題에 관한 制度的해결을 성급히 추구하기에 앞서 南과北이 서로 往來하고 物質를 교환하고 民族文化를 공동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상태를 시급히 회복하는데 統一努力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長官은 이날 서울「타워·호텔」에서 있는 「韓半島 주변정세와 南北韓관계」라는 主題의 학술회의(高大아시아문제연구소주최·統一院후원)에 참석, 致辭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러한 南北관계를 誘導할수 있는 조건의 형성과정 하나 하나가 우리에게 統一에 가까워지는 길이며, 따라서 이 時点에서 우리가 모색해야할 統一은 통일성립의 조건이 나날이 개선되는「過程으로서의 통일」에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長官은 『韓民族의 우리세대는 지금 또 다른 同族相殘의 가능성이 완전배제되지않은 상황속에서 계속 民族統一의 밑바탕이될 민족적 同質性喪失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나 우리는 분명코 戰爭이 韓半島統一의 수단이 될수 있고 또 되어서는 않된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6.25의 敎訓을 되새겨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이 5천만 동포들의 共存共榮을 약속 하는 평화통일이라는것을 證言해야할 世代』라고 말했다.

金長官은 이어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키기 위해 北韓은 ①休戰協定の 効力を 존속시키는 가운데 不可侵協定締結에 동의할것 ②비현실적 革命통일노선을 포기하고 平和統一에 대한 원칙적 障害요소를 제거할것. ③南北韓의 동시 「유엔」가입이 결코 冷戰的 對峙상태의 해소에 기여할뿐 분단을 고정시킬 법적근거가 될수없다는 國際法의 현실을 인정할것등을 요구했다.

金長官은 또 『우리의 통일노력은 南北韓이 과거·현재·미래를통해 결코 분리될수 없는 하나의 祖國을 平和的方法에 의해 통일해야 한다는 歷史的 使命의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밝히고 『분단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相互신뢰와 민족적 同質性을 회복하며 통일조건의 실질적 改

善을 이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金長官은 끝으로 『우리는 7.4南北共同声明을 지지하는 모든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과거와 현재를 통해 존속해온 一切의 不自由스런 敵對關係를 해소하는데 주력할것』이라고 밝히고 『北韓側은 하루빨리 7.4声明의 根本精神에 復歸하는동시 南北赤十字會談에서도 성의를 다하라』고 거듭촉구했다.

14) 우선 南北往來·物資交換을

- 유엔同時加入 「分斷固定」안때 -

< 74. 7. 6 한국 (記實) >

金溶植 国土統一院長官은 5日 『우리가 追求하는 統一은 5천만동포들의 共存共榮을 약속하는 平和統一이어야 하며 또 統一成立의 조건이 나날이 改善되는 「過程으로서의 統一」에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金長官은 이날 「타워·호텔」에서 열린 高麗大아세아문제연구소 주최「韓半島周邊情勢와 南北韓關係」학술회의에 참석, 致辭를 통해 『韓民族의 우리世代는 지금 또 다른 同族相殘의 可能性이 완전배제되지않은 상황속에서 계속 民族統一의 밑바탕이될 民族의同質性喪失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統一문제에 관한 制度的解決을 성급히 추구하기에 앞서 南과北이 서로來往하고 物資를 교환하고 民族文化를 共同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상태를 시급히 回復하는데 統一努力을 집중해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金長官은 또 『이러한 南北關係를 誘導할수 있는 條件의 形成過程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있어서는統一에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따라서 우리는 金日成의 宣傳員들처럼 南韓에서 美軍만이 철수하면 우리의 統一이

數個月內에 성취될수 있다는 妄想을 내세우는 우리民族의 다른 部分 사람들과도 現實에 뿌리를 내린 對話를 통해 그들을 幻想으로 부터 해방시켜야겠다』고 말했다.

金長官은 이자리에서 『金日成과 그의 선전원들은 南北韓의 同時「유엔」加入과 不可侵協定締結이 우리民族의 分斷을 固定化시킨다는 心理戰을 對內外的으로 積極展開하고 있다』고 밝히고 『南北韓의 同時「유엔」加入이 分斷固定化의 法的根柢가 될수없다는 것이 「유엔」秩序의 엄연한 現實임에도不拘하고 그들이 우리의 正當한 主張을 전면拒否하는것은 그들이 國際法の現實에서 狀況을 보지않고 그들의 架空的인 觀念에서 現實을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金長官은『특히 7.4 南北共同聲明은 平和統一을 향한 우리民族史의 展開 과정에서 各별한 意義가 있음에도不拘하고 北韓은 이 聲明의 원칙을 준수하기는 커녕 도리어 韓國의 安全保障을 약화시킨 心理戰의道具로 逆利用하여 自主의 原則은 美軍철수 主張으로, 平和의原則은 韓國만의 一방적인軍備弱화追求로, 또 民族大團結의 原則은 우리의 反共思想解除요구로 惡用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뿐만 아니라 北韓은 南北對話를 一방적으로 中斷하고 금년에 들어와서는 東西兩海上에서 우리의 漁船과 警備艇을 격침시키는가하면 또 武装間諜船을 南派하는등 各種 軍事的挑發을 격화시킴으로써 南北關係를 7.4 聲明 이전상태로 後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15) 四強韓半島 安定期待

- 高大亞研 주취 「南北韓관계」學術大會폐막 -

< 74.7.8 東亞 (記事) >

7.4 南北共同聲明發表 2週年을 맞아 지난 4일부터 서울시내 「타워.

호텔」에서 열린 「韓半島 주변정세와 南北韓 관계」라는 主題의 學術회의 (高
大 亞細亞問題研究所主催・國土統一院 후원)는 6日 3日동안의 토의를 마
치고 폐막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은 韓半島 주변의 四大強國 (美·日·中·蘇)은
각기 自國의 國家利益과 특수한 여건때문에 韓半島에 있어서의 급격한 변
화를 원치않고 있으며 현상유지를 전제로 安定化하는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또 南北對話가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는 북괴가 對話를 하나의對
南心理戰수단으로 이용, 赤化統一을 기도했던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
을 뿐 아니라 經濟的으로 韓國에 비해 낙후돼있는 조건하에서의 交流는 북괴
體制維持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對話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
다.

이들은 앞으로 南北韓관계 전망에 대해 強大國들의 긴장완화추세가 韓半
島에 있어서의 安定化를 가능케는 하겠지만 안정을 결코 保障하지는 못하
기 때문에 그 保障責任은 우리들 스스로에 있다고 전제, 南北韓관계를 안
정시키고 平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北傀戰爭挑発을 억제할수있는 우리자
신의 강력한 힘의 전지가 必要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들은 이밖에 北傀의 統一戰略은 韓國에서 駐韓美軍을 철수시키고 韓國
體制를 약화시킨 다음 폭력혁명을 일으킴으로써 韓半島를 赤化統一 하겠다
는 革命戰略이라고 지적했다.

16) 金統一院長官 提議 北傀側서 拒否

< 74. 7.11 한국 (記事) >

北傀는 金溶植統一院長官이 지난 5일 「過程으로서의 統一」을 위해 南北의 物資交換과 文化 교류를 제의한데 대해 「分斷固着化」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아. 顧問會議關係記事

1) 統一諮問委員 36名 靑瓦臺 報告

< 69.5.24 中央(記事) >

国土統一院은 統一에 관한 諮問 및 研究機關으로 国土統一諮問委員를 構成, 各界元老級人士중 交渉이 끝난 36名의 諮問委員名單을 24日 靑瓦台에 제청했다. 研究委員 50名의 名單도 곧 짜여질 予定이다.

諮問委員은 다음과 같다.

李 孝 祥	張 炯 淳	尹 濟 述	許 政
郭 尚 勳	白 樂 濬	尹 致 暎	朴 順 天
徐 珉 濠	金 弘 堧	李 応 俊	金 貞 烈
孫 元 一	朴 鍾 和	李 丙 燾	張 利 郁
金 活 瀾	李 瑄 根	任 永 信	高 在 旭
洪 鍾 仁	趙 鎮 滿	趙 容 淳	崔 斗 善
李 範 爽	白 斗 鎮	李 允 榮	金 壽 煥
변 흥 규	韓 景 職	姜 元 龍	咸 錫 憲
尹 古 庵	崔 德 新	鄭 一 亨	林 炳 稷

2) 国土統一院 諮問委員 確定

< 69.5.24 서울(記事) >

国土統一院은 24일상으 国土統一에 관한 諮問에 應하기 위한 国土統一諮問委員 36名의 名單을 確定, 發表했다.

統一院은 이밖에 大學教授 言論人등 50名으로 研究委를 곧 講成할 예정이다. 諮問委名單은 다음과 같다.

- | | |
|------------------|---------------|
| △郭尚勳(前 民議員議長) | △白樂濬(延大 名譽總長) |
| △尹致暎(共和黨 議長署理) | △朴順天(新民主黨 顧問) |
| △李孝祥(國會議長) | △尹濟述(國會 副議長) |
| △張炯淳(國會 副議長) | △許 政(前 過政首班) |
| △徐珉濠(大衆黨 黨首) | △金弘苞(國會議員·新民) |
| △李心俊(韓國 反共聯盟理事長) | △金貞烈(國會議員·共和) |
| △孫元一(前 國防長官) | △朴鍾和(藝術院長) |
| △李丙濂(學院院長) | △張利郁(前 駐美大使) |
| △金活蘭(梨大名譽總長) | △李瑄根(嶺南大學長) |
| △任永信(中央大總長) | △高在旭(東亞日報社長) |
| △洪鍾仁(東和通信會長) | △趙鎮滿(前 大法院長) |
| △趙容淳(前 大法院長) | △崔斗善(赤十字 總裁) |
| △李範爽(前 國務總理) | |

3) 統一院 諮問委員長 白樂濬氏 選出

< 70.3.20 韓國(記事) >

統一院은 26日 統一院諮問委員會를 열고 白樂濬氏를 委員長으로 選出했다.

4) 統一諮問委員會 新設

< 70.3.25 韓國(記事) >

國務會議은 24日 國土統一院 諮問委員會 規定을 改定, 統一院長官이 委員會議 委員長이던것을 委員들이 互選하도록하는 한편 前職 大統領, 國會議長, 大法院長 및 國務總理 등으로 特別委員會를 組織, 每月 1回씩 會議를 갖 고 超党的으로 長期的인 統一政策樹立에 대한 統一院長官의 諮問에 응하기로 했다.

5) 南北對話 意見들어

- 統一院 顧問會議 -

< 74.2.15 朝鮮(記事) >

國土統一院은 14일오전 金溶植長官주재로 顧問會議를 열고 許政 郭尚勳 白斗鎭 白樂濬 朴順天 張利郁 鄭一亨씨등 与野元老 19名으로부터 統一政策과 南北對話推進에 關係 意見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張基榮 南北調節委副委員長은 그동안의 南北調節委 경위를 報告했다.

6) 統一院顧問會議서 南北對話 經過 說明

< 74.2.15 韓國(記事) >

國土統一院은 14일상오 금년들어 처음으로 國土統一顧問會議를 열고 張基榮 南北調節委員會 서울측 共同委員長代理로부터 그동안의 南北調節委 副委

員長會談 經過에 對한 說明을 들었다.

金溶植 統一院長官 주재로 열린 이날 顧問會議에는 31名의 顧問中 18名의 各계 元老들이 參席, 약 3시간동안 進行되었다.

이날 會議에 參席한 顧問은 다음과 같다.

郭尚勳(顧問會議議長) 高在旭 金貞烈 金弘堯 朴順天 白斗鎮 白榮濬
尹古岩 李丙燾 李允榮 李應俊 林炳稷 張利郁 鄭一亨 崔德新 崔斗善
許 政 洪鍾仁(이상자나다順)

7) 在野顧問 10名 招致

< 74.3.2 中央(記事) >

國土統一院은 2일 낮 12時 統一院顧問으로 配있는 在野元老 10名의 모임을 갖고 南北調節委會談, 西海上의 北傀 挑發行爲, 北傀의 權力 構造變更 등에 관한 意見을 교환했다.

이날 모임에 參席한 顧問은 許 政 白榮濬 郭尚勳 朴順天 金弘堯 崔斗善 鄭一亨 李應俊 林炳稷 韓景職씨 등인데 金溶植統一院長官은 이들에게 統一院 開院 5周年을 맞아 감사패를 주었다.

8) 在野元老, 南北問題 意見 交換

< 74.3.4 東亞(교섭) >

國土統一院은 2일 오후 市內 타워호텔에서 在野元老人士 12名을 초청, 을 들어 두번째의 懇談會를 열고 最近 西海岸 漁船拉北事件과 南北對話問題 등에 관해 意見을 교환했다.

그동안 公式席上에 거의 나오지않던 許政씨는 『지금까지 어떤모임에도 나간 일이없지만 統一安保問題는 超党的인 問題며 관심있는 문제인만큼 참석했다』면서 北傀의 誤判에의한 기습공격에 대해, 만반의 对策강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白樂濬씨는 『南北對話에 임하는 双方의 자세가 韓國은 「平和誘導型」, 北韓은 「武力攻擊型」으로 서로 근본적으로 상치되는것』이라고 분석.

한편 이자리에서 金溶植장관은 앞으로 与野를 초월한 衆智를 모으는일에 힘쓰겠으며 北韓에 관한한 무엇이든지 문의하면 답변해줄수 있도록 準備해놓겠다고 다짐.

9) 顧問 12名에 感謝牌

< 74.3.4 서울(기사) >

国土統一院은 2일 하오 각계 元老들로 구성된 顧問會議를 열고 우리의 安保및 統一政策전반에 대해 論議했다.

金溶植統一院長官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음 12名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郭 尚 勳	△金 弘 耆	△白 樂 濬	△李 瑄 根
△李 應 俊	△李 允 榮	△林 炳 稜	△鄭 一 亨
△崔 德 新	△崔 斗 善	△韓 景 職	△許 政

10) 南北懸案事態 論議

< 74.3.4 신아(記事) >

金溶植 国土統一院長官은 2일하오 与野元老級 인사들로 構成된 統一院 顧問 12名을 타워호텔로 招請, 오찬을 兼한 懇談會를 갖고 西海 어선격침 및 拉北事件과 安保問題 그리고 南北對話 運營方案등 當面한 問題에 關係 폭 넓은 意見을 교환했다.

이날 白斗鎮, 許 政, 崔斗善씨등은 ①北傀의 誤算에 의한 武力도발을 警戒 하고 이에따른 安保태세를 갖출것 ②駐韓美軍을 계속주둔시킬것 ③우리의 계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政府에 促求했다.

이날 懇談會에서 金長官은 西海 漁船拉北事件의 경위 및 제 4차 南北調節 委副委員長 회담결과와 韓半島 주변정세 등을 說明했다.

이날 참석한 人士는 다음과 같다. (가나다順)

△郭 尚 勲	△金 弘 禎	△白 樂 潛	△李 瑄 根
△李 応 俊	△李 允 榮	△林 炳 稷	△鄭 一 亨
△崔 德 新	△韓 景 職	△許 政	

11) 国土統一院 顧問會議

< 74.6.20 東垂(記事) >

国土統一院은 20일오전 狀況室에서 許 政 郭尚勲 金弘禎 李孝祥 高在旭 尹致暎씨등 원로급 인사 19名이 參席한 가운데 顧問會議를 열고 最近의 南北關係에 關係 協議했다.

今年들어 두번째로 열린 이날會議에서 統一院은 最近의 韓半島 주변정세를 비롯 增大되고 있는 北傀의 挑發行爲와 北傀가 今年들어 치열하게

별 이고 있는 外交攻勢의 양상 및 停滯 狀態에 빠져있는 南北對話問題 등에 관해 說明했다.

12) 南北關係 전반 協議

〈 74.6.20 서울(記事)〉

國土統一院은 20일 상오 오후에 두 번째 顧問會議을 열고 南北關係 전반에 대한 問題를 協議했다.

이날 顧問會議에서 統一院은 最近의 韓半島 주변 情勢를 비롯, 北傀의 갖가지 挑發行為와 치열한 外交공세 양상 및 南北對話 現況 등 南北關係 전반에 걸쳐 說明했다.

統一院은 또 그동안 社會各界 指導層을 對象으로 實施해온 統一安保問題에 관한 對話結果를 顧問들에게 說明하고 統一問題에 대한 意見을 나눴다. 參席人士는 -

姜元龍	高在旭	郭尚勳	金貞烈
金弘壹	朴順天	朴鍾和	尹濟述
尹致暎	李瑄根	李允榮	李応俊
李孝祥	林炳稷	鄭一亨	崔德新
崔斗善	許政	洪鍾仁	

13) 許政氏等 顧問17名이 參席

< 74.6.21 韓國 (記事) >

国土統一院은 20일 상오 狀況室에서 今年들어 두번째의 顧問會議를 열고 停滯 상태에 빠져있는 南北對話등을 中心으로한 最近의 南北관계 전반에 대해 설명했는데 許政, 郭尚勳, 李孝祥, 崔斗善, 朴順天, 金弘堯, 鄭一亨氏 등 与野元老級人事 17名の 顧問들이 參席, 金溶植長官과 함께 진지한 意見交換을 가졌다고.

이날 顧問會議에서는 대부분의 顧問들이 自由民主主義의 수호에 与野가 있을수 없듯이 反共에도 与野가 없다는데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는것인데 朴鍾和씨는 『反共이 国号에만 그치지말고 國民底辺의 정신속에 깊이 뿌리박도록 일관성있고 長期的인 추진이 必要하다』고 強調했다고.

第二部 北 傀 編

가. 大統領閣下 国土統一院 初度巡視關係

나. 施政非難

다. 長次官 国会發言 非難

라. 各種 學術會議 非難

마. 懸賞作品 施賞式 非難

바. 其 他(蘇聯反應)

가. 大統領閣下国土統一院初度巡視

1) 反逆者의 口에서는 反逆의 소리밖에 나을것이 없다

〈出處：平放 74.2.5. 08:00 勞動新聞의 글〉

朴○○ 傀儡徒黨은 요즘 南北에 反目과 對立을 鼓吹하는 反共騷動을 더욱 소란스럽게 벌리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무슨 年頭辭요, 諭示요, 記者會見이요 하는 雜多한 廣大 恣意를 벌려 놓고 惡意찬 反共나발을 불어낸 朴○○逆徒는 最近 統一院과 法務部, 國防部를 비롯한 傀儡部, 兇를 찾아다니면서 反共에 安逸하지 말라느니 共產主義와 對決하기 위해 紀綱을 確立하고 萬全의 對應策을 갖추라느니 뭐니하고 떠들어댔다.

이와함께 지금 南朝鮮到處에서는 住民들을 強制로 끌어내다가 이른바 反共과 勝共統一決議를 다지게 한다는 그무슨 汎國民 激起大會라는 괴상한 騷動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朴○○徒黨은 高等學校 學生들을 傀儡軍 兵營에 끌고 다니면서 反共意識을 鼓吹한다는 놀음까지 벌리고 있다.

朴○○傀儡徒黨의 이모든 策動은 오늘 놈들의 反共狂症이 과연 어느정도까지 이르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금 朴○○徒黨이 南朝鮮에서 기를 쓰며 벌리고 있는 이러한 狂氣넌 反共騷動이 社會의 民主化와 祖國統一을 要求하는 人民들을 총칼로 억누르고 國土分裂을 固着시키려는 저들의 反逆的 策動을 合理化 하는 한편 나라의 緊張狀態를 激化시키고 軍事的 冒險政策에 매어달리는데서 危機로부터 活路를 찾아보려는 어리석은 策動의 產物이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制度와 理念을 超越하여 民族의 團合된 힘으로 나라의 分裂을 終熄시

키고 統一偉業을 이룩할데대한 人民들의 熱望이 비상이 높아가고 있는 이 때 南北의 對立과 反目を 조장하며 情勢를 尖銳化시키는 反共騷動을 公然히 벌린다는 것은 民族反逆行爲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朴○○徒黨이 우리民族의 統一이 아니라 分裂의 持續에만 關心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明白한 証拠이다.

自主, 平和統一, 民族的大團結의 3大原則에 따라 民族의 힘을 합쳐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위하여 모든 努力을 다하고 있는 우리는 南朝鮮 反動들의 이러한 分別없는 策動에 民族的 忿怒를 금할 수 없다.

다 아는 바와같이 南北共同聲明은 나라의 統一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北과 南이 思想과 理念 制度의 差異를 超越하여 民族의 大團結을 圖謀할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 하고 朴○○徒黨이 反共騷動을 그토록 惡辣하게 벌리고 있는 것은 그들이 共同聲明의 合意事項과는 아무런 因緣도 없는 전면 斷 續을 繼續 꾸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총칼을 휘두르며 社會의 民主化와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要求하는 人民들을 野獸的으로 彈壓하는 한편 구역질나는 反共騷動을 벌리면서 人民들에게 共產主義와 싸울 態勢를 갖추라고 웨쳐대는 朴○○徒黨의 所行이야 말로 分裂主義者 好戰分子 賣國分子로서의 自信의 물골을 그대로 들어내놓은 것이다.

反共을 내두르는것은 南北關係의 改善를 가로막고 勝共統一을 이루어 보려는 策動이며 犯罪的인 두개朝鮮 造作陰謀를 끝까지 實現하고 現在의 分裂狀態를 언제까지나 延長하겠다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南朝鮮 人民들에게 反共과 勝共思想을 鼓吹하며 類例없는 「팻쇼」的 暴壓領인 緊急措置를 휘두르면서 愛國의 人民들을 닥치는대로 逮捕, 投獄 虐殺하는 「팻쇼」교형리들에게 統一에 대한 추호의 關心도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明白하다.

偉大한 首領 金日成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南朝鮮 為政者들이 부르짖고 있는 勝共統一이란 共產主義를 없애고 統一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허황한 妄想이며 열빠진者들의 잠꼬대에 지나지 않는다.

勝共統一을 부르짖으면서 民族의 反目과 不安을 鼓吹하며 民主主義를 말살하려는 朴○○傀儡徒黨의 策動은 自信의 滅亡을 재촉하는 結果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

그것은 人民을 彈壓하고 統一을 反對하며 밖으로는 外勢를 끌어드려 나라와 民族을 팔아먹는 저들의 추악한 反逆的 正體를 白日下에 暴露하여줄 뿐이며 人民들의 憎惡와 激奮을 더한층 불러일으킬 따름이다.

反共騷動은 人民들의 버림을 받고 窮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들이 거기에서 헤어나 보려고 일으키는 발작이다.

歷史는 이미 그어떤 힘도 共產主義를 消滅할 수 없다는 것을 証明하였다.

지난날에도 人民의 원수들은 共產主義를 反對하는 反共騷動에 매어달렸으나 消滅된 것은 共產主義를 消滅하겠다고 날치던 자들 自身이었다.

反共을 必勝의 課業으로 내세웠던 李承晩 역시 그렇게 발악하다가 꺼꾸러졌다.

反共과 勝共騷動에 매어달리고 있는 朴○○傀儡徒黨은 이 嚴然한 歷史的 事實에서 適當한 教訓을 찾고 分別있게 行動해야 할 것이다.

萬一 朴○○徒黨이 歷史의 教訓을 外面하고 反共口號를 계속 웨쳐대면서 祖國과 民族을 反逆하는 犯罪의 길로 繼續 나간다면 그들은 歷史와 人民의 尊嚴한 審判을 면치 못할 것이다.

2) 朴○○ 国土統一院 年頭巡視 자리에서 妄發

< 出處: 統革黨放送 74.2.1 >

朴○○는 이른바 国土統一院을 年頭巡視한 자리에서 파렴치한 妄發을 또 늘어놓았다.

그는 여기에서 自己들이 내놓은 소위 平和統一을 自我自判하면서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이룩하기 爲해서 모든 努力을 다하고 있는 以北을 惡辣하게 헐뜯었다.

이것은 朴○○徒黨이 내놓은 이른바 6.23 平和統一 外交政策討論의 우리 國民은 물론 世界平和 愛護國民들로 부터 強力한 糾彈을 받게 되자 어떻게 해서라도 內外輿論을 誤導해 보려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3) 分裂主義者들의 惡辣한 反共發作

< 出處: 平放 74.2.3 16:00 > - 民主朝鮮論評 -

年初부터 初度巡視요 뭐요하고 싸다니면서 国力培養의 推進과 파쇼 暴圧 強化에 대해 떠들어오던 朴○○逆徒는 2月1日 統一院에 대한 그 무슨 年頭巡視라는데서 또하나의 파렴치한 民族反逆의 妄發을 늘어놓았다.

報道에 의하면 이날 朴○○徒黨은 제놈들의 不可侵協定 提議와 6.23 平和統一 外交宣言이 어떻다 뭐니 하고 붙어대다 못해 나중에는 反共에 安逸하게 對處하는 傾向을 일소하고 共產主義를 制壓하는 方向에서 國民을 繼續 說得시키고 啓蒙하라고 미친드시 지껄었다 한다.

朴○○徒黨의 이 極惡한 妄發은 外勢에 비리붙어 나라의 分裂을 永久化하고 제놈들의 長期執權 野望을 實現하며 南朝鮮 人民들속에서 우리에게

대한 對立感情과 敵對意識을 불어넣고 勝共統一의 허황한 妄想을 實現해 보려는 凶惡한 속심을 그대로 들어내 놓은 것으로서 朝鮮의 平和統一을 한결같이 바라고 있는 全体 朝鮮人民들과 世界平和愛護 人民들에 대한 惡辣한 挑戰이다.

이것은 우리黨의 祖國統一 5大綱領이 南北朝鮮 人民들 뿐만 아니라 世界 広範한 社會輿論의 한결같은 支持와 共感을 불러 일으키고 날을 따라 그 正當性이 더욱더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질겁한 思大分裂主義者들의 發作이며 「파쇼」的 維新體制를 짓부시고 南朝鮮社會의 民主化와 祖國統一을 實現하기 爲하여 鬪爭하고 있는 南朝鮮 人民들의 耳目을 먼대로 돌리고 어떻게 하나 現統治 危機를 수습해 보려는 軍事 부랑당들의 잡포대같은 넛두리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朴○○逆賊이 피매를 돌구어 또다시 不可侵協定에 對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北과 南 사이의 關係改善에서 先決問題로 나서고 있는 平和協定 締結을 忌避하며 美帝侵略軍을 南朝鮮에 그대로 못박아 두면서 南北사이의 現 軍事的 對峙狀態를 한사코 保留하려는 헛된 演劇이며 平和의 看板 밑에 우리나라의 分裂을 固着시키고 犯罪的인 2個 朝鮮策動을 기어코 實現해 보려는 売國背族의 口號이다.

그가 떠벌인 6.23 宣言이 國際적으로 2個朝鮮을 公認케 하고 우리나라를 永遠히 둘로 갈라 놓기 위한 売國宣言이라는 것은 이미 萬天下에 暴露된지 오래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朴○○逆賊이 不可侵協定에 어떻게 6.23 宣言이 어떻게 하며 그것은 또다시 들고 나온것은 이 惡黨이야 말로 統一에 대해서는 털끝만한 관심도 없고 오직 나라의 永久分裂과 2個朝鮮 造作에만 눈이 뒤집힌 가장 凶惡한 事大主義者, 統一의 極惡한 원수이라는 것을 더욱 날날히 들어내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朴○○逆賊이 떠벌인데서 더욱이 看過할 수 없는 것은 反共

策動을 더욱 惡辣化하라고 체친 것이다.

오늘 北과南 사이의 關係를 改善하고 對話를 進展시키며 나라의 平和 統一을 實現하기 위해서 나서는 重要한 問題는 南北間의 不信과 誤解를 없애고 團結과 믿음의 雰圍氣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것은 南北 共同聲明의 重要한 要求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朴○○逆徒가 反共啓蒙을 더욱 強化하라고 分明히 되친것은 우리와의 對話를 事實上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南朝鮮의 統一力量을 野獸的으로 彈壓하겠다는 것을 더욱 露骨的으로 宣布한 것이다.

도대체 反共을 強化하겠다고 떠벌이면서 어떻게 共產主義者들과의 對話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自家撞著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들이 떠들고 있는 對話요 統一이요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스스로 들어내 보여주고 있다.

朴○○徒黨은 그 어떠한 파렴치한 策動과 兩面戰術로서도 제놈들의 더러운 野望을 實現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南朝鮮의 軍事 부랑당들은 人民들에 대한 「과소」의 彈壓을 強化하고 反共을 必生의 業으로 삼고 돌아치다가 南朝鮮 人民들의 抗爭에 의하여 꺾꾸러진 李承晩의 末路에서 應當한 教訓을 찾아야 한다.

全体 朝鮮人民의 民族的 宿怨인 祖國統一을 가로막으려는 그어떤 策動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反共에 매어달린 者들에게 尊嚴한 處置를 내리고야 말것이다.

万若 朴○○徒黨이 全体 朝鮮人民과 世界平和愛護人民들의 거듭되는 警告에도 不拘하고 繼續 民族分裂과 反共의 길로 내달린다면 人民들의 더욱더 커다란 憤怒와 抗議를 불러 일으킬 것이며 비참한 破滅의 運命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4) 朴○○ 國土統一院에 들러 호통

< 出處 : 平放 : 74.1.3. 11:55 > - 라디오 명중탄 -

朴○○라는 놈은 2月1日 이른바 國土統一院이라는 데 들러서 제놈은 죽을힘을 다해서 反共나발을 부는데 어찌 이처럼 安逸한가 하고 노발대발을 하고 제놈이 내놓은 6.23 宣言과 所謂 不可侵 協定도 實踐할 可望이 전혀 없지않다고 理論的으로 풀이하라고 호통을 쳤다고 한다.

뒤집어 놓고보면 朴○○라는 놈이 이날 이때까지 입만 벌리면 反共을 부르짖었고 特別宣言이요, 記者會見이요 하고 수선을 떨었지만 아무런 效果도 없었다 그런 말이다.

글세 있지도 않는 南侵南侵하니 누가 고지듣겠는가?

미친놈의 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제놈의 2個朝鮮 造作論을 理論的으로 풀이할 하라고 하니 永久分裂의 녀두리를 풀면 풀수록 民族反逆者의 本色이 더욱 똑똑히 들어날 뿐인데 깨어진 反共나발의 6.23 宣言을 아무리 붙어대야 나올 것은 헛김뿐이고 차려질것은 人民들의 咀呪와 糝彈뿐일테니 國土統一이 이름값이나 하려거든 차라리 朴○○의 입에다 자갈이나 물리는 것이 어떠할까요

이왕 國土統一院이라는 말이 나온김에 한마디 더하자

國土統一院長官이라는 者가 대통만한 朴○○ 앞에서 굽신거리면서 하는 말이 優秀한 大學卒業生을 選拔해서 政治, 經濟, 外交, 軍事등 各分野에 걸쳐 北朝鮮과 統一問題의 專門家로 키워 長期勤務시킬 작정이다.

이렇게 지껄었다고 한다.

나라와 民族을 사랑하는 優秀한 大學卒業生들은 돈이 아니라 별것을 내준다고 해도 그따위 傀儡機關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이자들이 꾸미고

있는 凶計 를 좀 보시오.

새과란 大學卒業生들을 메려다가 白髮이 되도록 北朝鮮과 統一問題를 다시 말하면 나라의 永久分裂 策動을 研究시키겠다니 祖國統一이란 아예 걸어치운 것이 아니냐 말이다.

國土統一院이라는 看板을 내걸고 어둑컴컴한 방구석에서 한다는 것이 이처럼 나라의 永久分裂 策動뿐이라니까요.

그럴바에야 國土統一院이라는 看板도 國土分裂院이라고 바꾸어 다는 것이 명실공히 附合되지 않겠느냐 말이다.

나. 施 政 非 難

1) 南朝鮮統一院長官 段階論에 對해서 다시들고나옴

〈出處：平壤放送 73.2.8〉

서울中央放送에 依하면 南朝鮮의 統一院長官이란 者는 지난 5日 者들의 무슨 施策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統一에 關한 성급한 討論은 排除되어야 한다느니 南北對話는 人道的인 問題, 非政治的인 問題, 政治的인 問題 解決等 3段階로 展開되어야 한다느니 하고 또다시 이른바 段階論을 들고 나왔다.

이것은 나라의 統一을 하루속히 實現하려는 全体 朝鮮人民의 한결같은 指向과 이 指向을 實現하기 爲한 우리黨의 眞摯한 努力에 依하여 祖國 統一의 길에 밝은 展望이 열리게 된 오늘의 實現을 外面한 황당한 主張이며 分裂로 因한 겨레들의 苦痛에 對하여 外面하는 叛逆的인 態度인 것이다.

오늘 나라의 北과 南사이에는 分裂로 因한 겨레들의 苦痛을 덜어주기 위한 南北赤十字會談 뿐만아니라 祖國統一을 促進하기 위한 南北高位級會談까지 實現되고 나라의 統一問題를 解決할 것을 目的으로 한 南北調節委員會가 構成 運營되고 있다.

그런데 南朝鮮 當局者들이 새삼스럽게 現實에 뒤떨어진 段階論을 들고 나온 것은 그들이 人民들의 指向과는 背反되는 엉뚱한 판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들어나보인 것이다. 우리 黨과 우리 人民의 偉大한 金日成 主席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南朝鮮 當局者들은 그무슨 段階를 云云하면서 이것을 할 수 있오. 저것은 할 수 없다느니 어떤것만 먼저하고 다른것은 뒤로 미루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遲延戰術이지 問題를 解決하려는 態度가 아님

니다.

이와같이 교시 하시었다.

美帝國主義의 南朝鮮 強占으로 因한 28年에 걸친 國土兩斷과 民族의 分裂은 南朝鮮人民들에게 참을 수 없는 不幸과 苦痛을 들씨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全体 朝鮮人民에게 커다란 民族的 災難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全朝鮮社會의 統一의 發展에 嚴重한 障害를 助成하고 있다.

그럼으로 잘라진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이룩하는 것은 現段階에서 全体朝鮮人民의 最大의 民族的 任務이며 한時도 미룰 수 없는 가장 切迫한 課業이다.

南朝鮮 當局者들은 南北赤十字 團體들 사이의 會談이 實現된 初期부터 段階論을 들고 나왔었으나 그것은 이미 우리側에 依하여 그 反動的 本質이 余地없이 暴露되었다.

오늘 나라의 統一을 促進하는 길은 오직 雙方이 이미 合意한대로 南北 共同聲明을 誠實히 履行하여 北과 南사이에 多方面的인 合作과 交流를 實現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南朝鮮 當局者들이 依然히 段階論을 들고 나오는 것은 統一問題를 영똥한대로 이끌어 감으로써 그 解決을 遲延시키며 分裂을 永久化하는것 外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結局 그들이 統一問題 論議를 질질 끌면서 時間을 얻어 勝共統一을 이룩하려는 陰凶한 政治的 目的을 追求할 것이다.

오늘 그들이 입만 벌리면 힘의 培養을 부르짖으며 共和國 北半部보다 優位를 차지해야 한다느니 自由民主主義統一을 해야 한다느니 하고 떠들어 대고 있는 것은 段階論의 裏面에 숨겨진 그들의 속셈인 것이다.

南朝鮮 當局者들은 부질없는 妄想을 버리고 統一問題 解決에 誠實性을 보여야 한다. 그들은 南北共同聲明과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들과의 第2次會議 合意事項을 誠實히 履行해야 할 것이며 北과 南사이에 多方面的

인 合作을 實現하여 祖国의 自主的 平和統一偉業을 促進하기 위한 길로
나서야 한다. 그들이 이길이 아니라 段階論을 云云하면서 目的을 追
求한다면 그들에게는 좋은 結果가 招來되지 않을 것이다.

2) 自主的 平和統一을 불보다 두려워 하는 者들이 지르는 비명

〈出処 : 平放 74.3.29 08:00 勞動新聞 論評員의 글〉

朝鮮에서 緊張狀態를 가시며 祖国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促進시키기
위한 展開를 마련하기 爲하여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과 美合衆國 사이
에 平和協定을 맺을 것을 提議한 最高人民會議의 第5期 第3次會議의
提議은 지금 國內外에서 커다란 反響을 일으키고 있다.

最高人民會議의 提議가 世上에 報道되자 社會主義 사람들과 第3世界
에서는 물론 美國과 日本을 비롯한 海外의 廣範한 放送 報道 出版機
關들이 계속 이 事實을 大的으로 伝하고 있으며 内外의 公正한 輿
論이 適當하게도 우리의 이번 발기가 朝鮮半島에서 戰爭再發의 要因을
除去하고 緊張狀態를 緩和하므로서 朝鮮의 統一과 亞細亞와 世界平和
維持 偉業에 寄與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를 한결같이 支持
歡迎하고 있다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朝鮮에서 恒時的인 威脅을 받고 있는 不安定한 平和를 鞏固한 平和
에로 轉換시키고 統一의 길을 開拓하는 것은 우리人民의 한결같은 要
求일 뿐만 아니라 時代의 절박한 要求이며 그것은 朝鮮에서 緊張狀態
가 첨유화 되고 있는 오늘 그 어느때 보다도 더욱 緊切한 問題로
나서고 있다.

最高人民會議의 이번 提議는 바로 解決을 기다리는 이 첨유의 問題
에 對答을 주는 것으로서 이 提議가 内外에서 그토록 커다란 反響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그 內容에 참말로 朝鮮의 平和를 鞏固化 하고 自主統一의 길을 開拓하기 위한 公正하고 現實的인 諸對策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朴○○徒黨은 民族의 한결같은 指向을 蹂躪하면서 어떻게 해서나 大勢에 흐름을 가로막아 보려고 가를 쓰고 있다.

分裂을 固着시키고 「팻쇼」統治基盤을 부지하기 위하여 攪亂하고 있는 朴○○徒黨이 나라의 平和統一을 볼 보다도 더 두려워 하면서 朝鮮에서 緊張狀態를 가지고 統一의 길을 開拓하기 위한 우리의 方案이 提起될 때 마다 南侵威脅이요 뭐요 하는 反共騷動을 벌려놓고 발작을 일으키며 騷亂을 피어왔다는 것은 世上이 다 아는 事實이다.

이번에도 朴○○徒黨은 美國과 平和協定을 맺을 때 대한 最高人民會議의 提案이 發表되자 떠들석 하게 고아대며 별의별 추태를 다 부리고 있다.

報道에 의하면 傀儡政府 代弁人이라는 자는 25日 야밤에 부랴부랴 記者會見 놀음을 벌려놓고 우리의 提案이 偽裝宣傳이며 武力統一을 위한 것이라고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았다.

26日 傀儡國務總理라고 하는 자는 이른바 南侵威脅에 對処해서 警戒態勢를 強化할데 대해서 떠벌었다.

그런가 하면 國土統一院 長官이라는 者는 같은날 우리의 提案을 念頭에 두고 羈絆수설을 늘어놓던 끝에 이미 바닥이 들어난 不可侵條約과 南北朝鮮의 「유엔」同時加入案 까지 들고나와 내두르면서 斷전을 부리면서 어리석게 퍼했다.

이 問題를 朝鮮 停戰協定の 調印違反일 뿐만 아니라 南朝鮮에 자기의 武力을 駐屯시키고 있고 南朝鮮軍隊의 統帥權과 戰爭手段에 대한 統制權을 直接 行使하고 있는 美國과 解決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美國과 平和協定을 맺고 朝鮮에서 緊張狀態를 가시며 祖國統一의 전체를 마련하는 것은 南北共同聲明의 合意事項을 履行하기 爲한 것이며 祖

国統一의 3大原則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다.

朝鮮問題에 대한 外勢의 干涉을 종식시키고 朝鮮에서 緊張狀態를 가지지 않고서는 自主平和統一 民族的 大團結의 原則을 基本內容으로 하고 있는 南北 共同聲明을 成果的으로 履行할 수 없고 나라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다그쳐 나갈 수 없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明白하지 않는가?

朝鮮의 平和와 平和統一을 防害하려는 者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의 이번의 正當한 提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시비할 수 있겠는가?

朴○○徒黨이 朝鮮에서 緊張狀態를 가지고 나라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위한 전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美國과 平和協定을 締結할데 대한 우리의 提議에 대해서 시비를 하는 것은 外勢에 비리붙어서 朝鮮에서 緊張狀態를 維持하며 統一의 길을 가로 막고 永久執權을 꿈꾸는 壳国分子로서 好戰分子로서 分裂主義者로서의 自信의 醜惡한 正體를 다시 한번 들어내 보여준 것이다.

傀儡들의 騷動은 外勢에 매달려 長期執權을 꿈꾸는 者들이 저들의 統治基盤이 위태롭게 되고 戰爭政策에 破綻에로 分裂主義路線이 수포로 돌아갈까보아 저들이 일으키는 발악이며 癡作이다.

同時에 그것은 우리의 正當하고 愛國的인 提案이 南朝鮮 人民들과 世界平和愛護 人民들속에 미치는 거대한 影響力을 어떻게 해서나 가로막고 저들의 分裂主義的 策動을 감싸보려는 비열한 策動의 產物이다.

그들의 이러한 속심은 우리의 提案에 대하여 늘어 놓고 있는 잡소리가 잘 말해 주고 있다.

傀儡들은 우리의 發起를 가지고 武力統一을 위한 것이요 뭐요 하고 떠들고 있는데 이따위 거짓말을 누가 곧이 듣겠는가?

偉大한 首領 金日成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朝鮮의 北과 南사이의 關係를 改善하고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促進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北과 南사이의 軍事的 對峙狀態를

解消하고 緊張狀態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

北과 南사이의 軍事的 對峙狀態를 解消하고 緊張狀態를 가져야만 朝鮮에서 鞏固한 平和를 担保하고 統一의 길을 開拓할 수 있다.

4 個項目의 方案을 담은 우리의 이번 提議는 이러한 現實的 要求를 反映한 것이다. 朝鮮의 平和와 平和統一을 豫見하고 있는 우리의 平和協定 提議가 어찌하여 武力統一을 위한 것으로 된단 말인가?

이것은 朝鮮에서 分裂과 緊張狀態를 維持하는데만 급급해 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수작이다.

우리 民族의 모든 不幸의 禍근과 2 禍 統一을 妨害하는 基本障壁를 除去하고 朝鮮에서 戰爭이 再發할 수 있는 恒時的인 根源을 없애기 위한 우리의 正當한 提議를 武力統一을 노리는 것이라고 헐뜯는 朴○○傀儡 徒黨이야말로 美帝의 부축임 밑에 戰爭挑發策動 狂奔하고 있는 売國奴이며 戰爭狂信者이며 兩朝鮮 統治輩들이 平和에 대한 아무런 担保도 없는 이른바 不可侵 條約을 또다시 들고 나온것도 가소로운 일이다.

美帝國主義者들에게 傀儡軍에 대한 統帥權과 戰爭手段에 대한 統帥權을 강그리 십겨 바치고 있는 허수아비이다.

南朝鮮의 모든것을 外來侵略 勢力에 내맡기고 입만열면 美軍의 南朝鮮 駐屯을 애걸복걸하는 売國奴의 무리들이 우리와 不可侵條約을 맺자는것 부터가 우리에게 대한 참을수 없는 冒瀆이며 統一問題를 가지고 民族을 희롱하는 것이다.

그것은 南朝鮮 売國集團이 平和協定 締結을 한사코 反對하며 南朝鮮에 美帝侵略軍을 그대로 남겨두고 軍事的 對峙狀態를 繼續 維持하며 나라의 統一을 永久化하여 現軍事 「파쇼」統治를 維持하기 위하여 兇惡하고 있다는 또하나의 明白한 証拠로 될 뿐이다.

傀儡들이 美國과 平和協定을 締結할데 대한 우리의 提議에 대하여 警戒態勢의 強化니, 「유엔」同時 加入이니 하고 떠벌이고 있는 것도 오직

이것으로서만 說明될 수 있다.

好戰分子가 아니고서는 朝鮮의 平和를 維持 鞏固化하기 위한 우리의 提議에 惡意를 품고 挑戰할 수 없으며 分裂主義者가 아니고서는 統一의 길을 開拓하기 위한 우리의 眞摯한 努力에 이미 깨어진 南北朝鮮의 「유엔」同時 加入案을 또다시 들고나와 이러쿵 저러쿵 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平和를 鞏固하고 統一을 길을 開拓하기 위한 우리의 正當한 提議와 關聯하여 南朝鮮 統治者들이 늘어놓고 있는 모든 잡소리는 그들이 나라의 平和와 平和統一에 대하여 그어떤 關心도 없다는 것을 더욱 날랄히 들어내 보여줄 뿐이다.

더우기 우리의 이번 提議는 美國을 相對로 한 것이며 平和協定 締結問題에 대해서 論議의 對象으로 되지 않는 朴○○徒黨이 왈가왈부할 性質의 問題가 아니다.

朴○○ 傀儡徒黨은 그무엇으로서도 美·日 侵略者들에게 나라와 民族을 팔아넘기면서 일신의 權勢慾을 채우고 富貴榮華를 누리려는 저들의 売國背族의 正體를 가리울 수 없다.

그들은 外勢依存과 「파쇼」, 反共騷動과 戰爭挑發 策動으로 갈수록 深化되고 있는 政治的 危機에서 벗어나 보려고 試圖하고 있으나 그것은 헛된 일이다.

각성된 南朝鮮 人民들은 売國奴들의 犯罪行爲를 더는 許容하지 않을 것이며 全世界 平和愛護 人民들이 또한 그를 容納하지 않을 것이다.

朝鮮에서 緊張狀態를 가시며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促進시키기 위한 전제를 마련할때 대한 우리의 公明正大한 提議를 誹謗하는 者는 民族을 反逆하는 売國奴로서 人民의 尊嚴한 審判을 免치 못할 것이다.

3) 統一院長官의 反共教育論

< 出處 : 統革黨放送 74.3.30. 21:00 >

얼마전 國土統一院長官 金○○이라는 작자가 共產主義를 理論的으로 体系的으로 批判할 수 있도록 反共教育을 強力히 推進하겠다고 떠벌렸다.

그러면서 이 凶惡한 賣國反逆者는 北韓問題에 대한 專門知識을 가진 職員들과 外部專門家들을 動員해서 反共講演 研修制度를 實施하겠다고 또 지껄었다.

벼룩이도 낫짝이 있다고 그래도 명색이 統一院을 代表한다면서 統一할 生覺은 하지 않고 分裂의 固定化를 目的으로 反共만을 염불처럼 외우면서 同族間의 不信과 對決을 鼓吹하고 있으니 그럴바에는 차라리 統一院의 看板을 分裂院이라고 바꿔다는 것이 賢明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尙간의 輿論이다.

다. 長次官 国会發言 非難

1) 民族分裂의 反逆길로 繼續 나가려는 売国徒党的 파렴치한 妄發

〈出處：平放 74.3.9. 16:00〉 - 民主朝鮮紙 글 -

最近 朴○○ 傀儡徒党은 内外情勢가 저들에게 더욱더 不利하게 되고 社会政治的 不安과 危機가 가일층 深化됨에 따라 祖国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한사코 가로막아 보려고 더욱 惡에 빠져 미쳐날뛰고 있다.

報道에 의하면 지난 6日 傀儡의 文化公報部長官이라는 놈은 있지도 않은 그 무슨 赤化統一의 威脅이요, 武力統一의 企圖요, 무어요 하면서 南朝鮮 人民들의 革命鬪爭에 대한 支援과 美帝侵略軍의 撤収問題에 대하여 황당한 雜소리를 장황하게 늘어놓은 다음 나라와 民族의 永久分裂을 合理化하며 2個朝鮮 造作을 위하여 꾸며낸 이른바 特別聲明과 不可侵條約에 대하여 핑설수설하면서 祖国統一을 反對하는 分裂主義者로서의 더러운 正체를 다시금 날낱이 들어내 놓았다.

같은날 統一院長官이란 者도 平和政策이요 무어요 하면서 저들의 分裂策動을 合理化하기 위한 잡소리를 늘어 놓았다.

개끄리 3년 묵어도 황모 못된다고 傀儡 文化公報部長官이나 統一院長官놈의 이 녀두리는 朴○○傀儡徒党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나라의 平和統一을 위하여서 鬪爭하는 南朝鮮 人民들을 총칼로 억누르고 美帝侵略軍을 南朝鮮에 永久 強占시키며 나라를 永遠히 둘로 갈라놓기 위한 売国背族의 길로 繼續 줄다름쳐 나가겠다는 것을 公言한 惡辣한 妄發이다.

다아는 바와같이 오늘 南朝鮮 人民들은 朴○○傀儡徒党이 가혹한 「파쇼」暴壓에도 굴하지 않고 南朝鮮 社会의 民主化와 나라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위하여 억세게 싸우고 있다.

南朝鮮 人民들의 이 용감한 鬪爭은 나라와 民族을 救援하고 祖国을

統一하기 爲한 愛國的 鬪爭이며 民族의 自發的 利益에 直接 關聯되는 正義의 鬪爭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南朝鮮 人民들의 이 義로운 革命鬪爭을 積極 支援하는 것은 같은 民族으로 民族 内部問題를 自体를 解決하기 위해서 应当해야 할 民族的 義務를 遂行하는 것이며 그것은 결코 그 어떤 內政干渉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朴○○ 傀儡徒黨이 南朝鮮 人民들의 革命鬪爭에 대한 支援에 대하여 赤化요 무어요 하고 함부로 지껄여대고 있는 것은 놈들이 愛國的 南朝鮮 人民들의 正當한 鬪爭을 繼續 野獸的으로 彈壓하려는 속심을 露骨的으로 들어내놓은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朴○○ 傀儡徒黨은 이번에 또다시 美帝侵略軍의 南朝鮮 強占이 이른바 南侵威脅을 막고 平和政策을 위해서 마치나 有益한 것이 있듯이 떠벌렸다.

이것이야 말로 極惡한 親美事大 売國奴들만이 감히 꿰칠수 있는 破廉恥한 妄說이 아닐 수 없다.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敎示하였다.

美帝의 南朝鮮 強占과 그의 侵略政策은 우리 民族의 모든 不幸의 禍근이며 우리나라의 統一을 가로막는 基本 障礙이다.

首領은 이상과 같이 敎示하였다.

朝鮮의 分裂은 美帝의 南朝鮮 強占과 朝鮮에 대한 그의 侵略政策에 의하여 誕生되었으며 놈들의 分裂政策에 의해서 여전히 持續되고 있다.

美帝는 南朝鮮에 대한 軍事的 強占到 基礎하여 祖国의 南半部를 저들의 完全한 植民地로 軍事基地로 轉變시켰으며 南朝鮮의 好戰分子들을 사육하여 그들을 저들의 侵略과 戰爭遂行에로 내몰고 있다.

이것은 美帝의 南朝鮮 強占이 繼續되고 그의 侵略戰爭과 分裂政策이 繼續되는 한 朝鮮에서 緊張狀態가 가셔질 수 없으며 朝鮮의 自主的 平

和統一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나라와 民族을 사랑하며 祖國의 自主的 統一을 眞實로 바라는 사람이 라면 應當히 우리 民族의 衛天의 怨讎이며 祖國統一의 根本 障礙物인 美帝 侵略軍을 南朝鮮에서 撤去시키기 위하여 積極 鬪爭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나라의 統一問題를 外勢의 干涉이 없이 朝鮮사람 自信의 손으로 自主的으로 解決할 것을 合意하고 明文化한 7.4 南北共同聲明 精神 에도 全的으로 부합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美帝의 忠實한 主君이며 그의 戰爭 하수인인 賣國 奴 朴○○傀儡徒黨은 美帝 侵略軍의 撤去를 主張하는 우리의 應當한 提議 에 대해서 이른바 武力統一을 노리는 것이니 무어니 하면서 美帝 侵略軍 의 南朝鮮 強占을 合理化하며 놈들을 南朝鮮에 永遠히 붙잡아 두기 위 해서 癡狂的으로 策動하고 있다.

이것은 朴○○傀儡徒黨이 말로는 統一이요 對話요 하고 헛튼 나발을 불어대고 있지만 실은 南朝鮮을 美帝 植民地로 永遠히 떠마끼는 댓가로 民族分裂을 固定化하며 美帝의 銃劍의 保護 밑에 제놈들의 더러운 殘命을 부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癡惡的으로 미쳐 날뛰고 있는 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 휴지통에 들어간 朴○○徒黨의 이른바 特別聲明이나 不可侵條約에 대해서 말하더라도 그것이 美帝의 부추김 밑에 나라의 分裂을 固着시키고 2個朝鮮 造作을! 劃策하고 있는 가장 凶惡한 犯罪的인 것이며 우리의 正當한 平和協商 提案을 기피하고 統一問題를 가지고 民族을 貳롱하는 가소롭기 짝이없는 詐欺文件이라는 것은 이미 世上에 널리 暴露된 事實이다.

그런데도 朴○○傀儡徒黨은 그것의 犯罪的 正體를 어떻게 가리우기 爲 하여 이른바 特別聲明이나 不可侵條約을 反對하는 것이 그 무슨 南侵意 圖에서 나오는 듯이라느니 무어니 하는 황당무제한 나발을 불어대면서

美帝의 비호밑에 나라를 永久分裂하고 美帝의 植民地로 轉落된 南朝鮮에서 長期執權으로 더러운 殘命을 부지하여 보려는 속심을 露骨의으로 드러내 놓았다.

諸般事實은 醜惡한 親美, 親日 主子이며 事大売国奴인 朴○○ 傀儡徒党이 統一이 아니라 分裂을 추구하며 나라의 朝鮮이 아니라 2個朝鮮을 造作하는 極惡한 売国背族의인 反逆의 길로 줄달음쳐 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朴○○ 傀儡徒党은 이와같이 나라의 永久分裂과 2個朝鮮의 造作策動의 實現으로서 막다른 위기에서 벗어나려 長期執權으로 殘命을 부지하여 보려고 꾀하고 있으나 그것은 터무니없는 妄想이다.

万若 朴○○ 傀儡徒党이 繼續 外勢依存 政策에 매달리고 나라의 自主的 統一을 拒否하고 2個朝鮮의 造作길로 나간다면 놈들은 천추에 씻지 못할 売国奴의 치욕을 남긴채 破滅당하고야 말것이다.

2) 統一院長官 . 国会에서 妄發

〈出處：平放 74.3.8. 23:20 라디오 명중탄〉

統一院長官이란 者는 共和国 北半部の 10万減軍 主張에 応할 수 없다느니 朴○○의 6.23 宣言이 平和定着을 위한 現實的 方案이요 하고 지결였다 함.

그 무슨 統一問題를 研究한다는 놈이 美帝 侵略軍을 撤去시키고 南北朝鮮의 軍隊를 각각 10万 또는 그 以下로 줄이자는 正當한 提議를 接受할 수 없다고 한탄을 하고 오히려 祖国의 永久分裂을 目的한 売国奴의 妄發을 이른바 平和定着 方案이라고 지결였대고 있으니 이놈이 얼마나 파렴치한 民族分裂主義者냐 그말임.

그런즉 이 놈이 쓰고 있는 統一院長官이란 감투를 統一妨害院長官

또는 分裂員長官이란 감투로 바꿔 씌여지는 것이 어울리겠다 하겠음.

3) 統一院長官 . 国会에서 詭弁

< 出処 : 平放 73.10.19. 15:00 >

서울에서의 報道에 의하면 16日 南朝鮮 国会의 外務委員會에 所管 豫算案을 내놓은 자리에서 統一院長官이라는 者는 國際情勢가 平和 共存으로 흐르고 있다는 헛튼 소리를 하고 나서 朝鮮에서는 이와 달리 共存의 論理와 함께 對決의 論理가 併行하고 있다느니 무어니하는 詭弁을 늘어 놓으면서 이것이 커다란 問題라고 떠벌렸다.

또한 그는 우리가 北과 南사이에 對話를 中斷시켰으며 對話를 對南 赤化統一의 手段으로 삼고 있다고 歪曲 中傷하였다.

이것은 對話를 2個朝鮮 造作目的에 惡用해온 朴○○徒黨의 分裂主義的 立場을 다시금 들어내는 것이며 저들의 이 背信的 罪行을 감싸고 그에 대한 責任에서 모면하려는 상투적 誹謗宣傳을 되풀이한 것으로서 새삼스럽을 것이 없다.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指摘하였다.

지금 南朝鮮의 一部 當局者들은 對話있는 對決과 競爭, 對話있는 共存에 대하여 많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 意義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

다아는 바와같이 朴○○徒黨은 南北共同聲明이 發表되고 그 履行을 위한 對話가 始作된 다음부터 對話있는 共存과 對話있는 對決을 떠벌리면서 對話를 共存을 위한 手段으로 對決의 掩蔽物로 惡用하여 왔다.

오늘 南北對話의 目的은 對話를 통해 統一을 實現하자는데 있으며 南北사이의 互相 理解와 信賴, 合作과 團結의 霧圀氣를 造成하며 弊히 軍事的 對峙狀態를 解消시키고 緊張狀態를 푸는 方法으로 오래동안 對

決狀態에 있던 南北關係를 根本적으로 改善하자는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南朝鮮 統治輩들이 南北共同聲明과 對話의 目的과 精神에 전혀 배치되게 行動하고 對話를 하나의 허울좋은 看板으로 利用한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판공을 꾸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누구에게나 明白한 바와같이 나라들과 民族들간에 提起되는 共存問題를 한 民族안에 適用하는 것은 統一을 가로막고 分裂을 固定化하려는 것밖에 되지 않으며 對決口號는 힘을 누구와 겨누어 보자는 것으로서 統一을 위해 必要한 民族的 團結과는 아무런 因緣이 없는 事實上的 戰爭口號에 不過한 것이다.

結局 그들은 對話있는 共存으로 2個朝鮮을 造作하는 것이며 對話있는 對決의 口號下에 戰爭準備를 다그쳐 勝共統一 妄想을 이루어 보자는 수작이다.

그들이 우리와 南北關係를 根本적으로 開設하며 統一을 促進하기 爲하여 내놓은 그모든 合理的이고 現實的인 提案들을 모조리 拒否하면서 美帝의 사촉하에 反共騷動을 強化하여 民族内部的 和睦과 團結의 氛圍를 해치기에만 기를 써오던 끝에 南北의 「유엔」同時加入을 主張하여 2個朝鮮 造作策動을 公式化하여 나선것도 그리고 美·日 상전들에게 軍事支援을 애걸하면서 殺人武器와 軍事裝備를 繼續 끌어드려 武力을 增強하고 軍備를 強化하기에 열을 올리고 우리를 敵으로 가상하여 上陸作戰이요 攻擊包圍作戰이요 하는 火藥內 풍기는 戰爭練習騷動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는 것도 오직 이것으로 說明된다.

朴○○徒黨은 나라의 統一을 反對하고 永久分裂을 꾀하는 民族背反者이며 美帝의 戰爭 下手人으로서 服務하는 醜惡한 好戰分子라는 自己의 正체를 숨길 수 없게 되고 内外輿論의 糾彈에 부딪치게 되자 卑劣한 責任 전가의 手法으로 저들의 罪行을 감싸며 窮地에서 벗어나려고 헛되이 試圖하고 있다.

그들이 우리와 對話를 中斷시켰다느니 南朝鮮을 赤化하려 한다느니 하고 입을 모아 떠들어 대고 있는 것은 黑白을 뒤바꾸고 事實을 날조하여 責任을 남에게 넘겨 써어보자는 이 비열한 術策의 한 고리이다.

그러나 그것은 낮가죽이 곰의 발바닥보다도 두꺼운 저들 自身の 鉄面皮性을 말해 주는 것과 함께 아무도 믿지않는 虛偽宣傳이라도 매달릴 수 밖에 없게 된 自己의 窮地를 한층 두드러지게 내놓을 뿐이다.

정기치게 사과하고 말하는 사람치고 南北調節委員會를 그 目的과 技能에 맞게 꾸리며 對話를 眞實로 統一을 위한 對話로 되게 하기 위하여 이 民族共同의 機構로 부터 特務頭目인 李厚洛이와 같은 破壞分子를 추방한 우리의 正當한 措置를 中斷이요 무어요 하고 헐뜯는 者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다.

또한 南朝鮮 愛國力量에 대한 野獸的 彈圧의 攻撃을 敢行할때마다 그를 合理化하기 위해 있지도 않는 南侵이요 赤化요 하고 입버릇처럼 외우는 바닥이 들어날때로 들어난 朴○○徒黨의 속임수에 누가 넘어가겠는가?

이날 統一院長官이라는 者가 떠벌린것은 朴○○徒黨의 이런 수작에 연장으로써 개미 한마리의 견인력마다 못한 것이다.

問題는 무엇때문에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힌 소리를 다시금 끄집어 내어 되뇌이게 이르겠는가 하는데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저들의 罪行으로 因하여 内外輿論의 糾彈에 부딪치고 「유엔」의 무대로 美帝의 상전의 지휘봉에 움직이던 종전과는 달리되어 가는등 저들에게는 매우 不吉한 징조가 갈수록 짙어만 가는데 겁이 날때로 나고 不安 초조해진 나머지 兇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이날 자리를 같이했던 外務部長官이라는 者가 朝鮮半島의 平和가 어떻다느니 하고 헛튼 소리만 되치면서 南朝鮮에 기어던 美帝侵略軍에게서 「유엔」軍 모자를 벗기고 그것들을 내쫓는 것은 危險하다느니 무어니

하고 숨가쁜 소리를 한데서도 兇作을 일으킨 그들의 이 더러운 물골을 여실히 찾아볼 수 있다.

朴○○徒黨은 人民의 意思를 배반하고 2個朝鮮을 造作하며 戰爭冒險으로 勝共統一을 이루려는 妄想의 길이 결코 그들의 出露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乙巳 5적의 치욕을 남기지 않으려 거던 反民族的 策動을 걸어서
• 우고 우리의 祖國統一 5大綱領을 받아드리고 그의 實現을 위해 나서야 한다.

그들에게는 이길밖에 다른 出路란 없다.

4) 外勢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은 統一을 하려는 態度가 아니다.

< 出處：平放 73.6.2. 14:40 >

요즘 매일과 같이 우리를 헐뜯고 民族内部的 不和와 反目を 造成하기 위한 온당치 못한 言行을 일삼고 있는 몇몇 南朝鮮當局者들은 5月31日에도 人民의 統一指向과는 전혀 배치되는 소리를 또하였다.

報道에 의하면 이날 南朝鮮의 外務部長官이라는 사람은 國會 外務委員會라는데서 南朝鮮으로 부터 美軍을 撤収시키라는 우리 人民의 要求와 「유엔」韓國統一復興委員團을 解体해 버릴데 대한 提案을 封鎖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할 自身이 있다고 떠벌였다.

또한 그는 새로운 匪細亞協力機構가 생기고 말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이날 같은 자리에서 所謂 國土統一院長官이라는 사람은 오만무례하게도 朝鮮人民의 榮光스러운 祖國,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의 權威와 威信을 함부로 헐뜯으면서 朝鮮半島에서의 主權國家는 韓國뿐이니 뭐니하는 황당한 소리를 하였다 한다.

北과 南이 外勢에 依存하거나 外勢의 干涉을 받음이 없이 自主적으로 그리고 나라의 양쪽에 세워진 서로 다른 制度와 理念의 差異를 論하기에 앞서 民族의 大團結을 圖謀하고 祖國統一 問題를 平和적으로 解決하기 위한 對話를 進行하고 있는 이때 南朝鮮의 一部 사람들은 그에 正面으로 배치되는 소리를 이처럼 버젓이 너까리고 있다.

누구에게나 明白한 바와같이 南朝鮮에 도사리고 있는 侵略武力과 侵略道具인 「유엔」 韓國統一復興委員團은 分裂된 우리나라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實現하는 데서 根本 障礙物로 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라의 統一을 要求하는 全体 朝鮮人民이 무엇보다 먼저 美帝侵略軍을 南朝鮮으로부터 撤去시키며 所謂 「유엔」 韓國統一復興委員團을 解体하는 것을 先次的으로 解決해야 할 問題로 提起하고 그것을 한결같이 要求하고 있다.

南北共同聲明의 統一問題의 自主的 解決을 위하여 外勢를 배제할 데 대한 原則을 첫자리에 놓은 것도 이런 人民의 意思와 要求를 反映한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南朝鮮 當局者는 바로 이 全体朝鮮人民의 民族的 意思와 要求를 그대로 反映한 美帝侵略軍의 撤去 및 侵略道具의 解体를 主張하는 그 누구의 提案에 대해서도 이를 公表하겠다고 떠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 自身이 統一途上에서의 根本障礙物을 除去하려는 온 民族의 指向에 대한 露骨的인 挑戰者로 나서고 있으며 南北共同聲明을 公公然히 짓밟는 背信者로서 行動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証明해 보인 것이다.

그는 우선 自信이 있노라고 뽐내기 까지했는데 이것은 朝鮮의 永久分裂의 理解關係를 가지고 두개 朝鮮을 造作하려고 음흉하게 策動하는 美帝侵略者들 日本 軍國主義 者들 까지 공모질탁 하고 그자들의 指揮밑에 이미 世界保健機構 第26次 總會 境遇에서 보여준것과 같은 所謂 封鎖作戰의 척후병으로 服務할때 대한 自己의 眞心을 말한것으로서 가장 너절한 事大安定도배가 아니고서는 입밖에도 낼수 없는 수치스러운 소리이다.

그가 이날 새로운 아시아 協力機構를 내올때 대한 自己의 熱望을 表示한 것은 7年前 美帝의 調整下에 南朝鮮 當局者들이 앞장에 나서서 朝鮮 과 亞細亞에 대한 侵略道具로 꾸며 냈다가 이미 이 地域人民들의 排擊을 받아 거덜이 나고만 亞細亞 및 太平洋地域 閣僚理事會의 代用品을 만들자는 소리이다.

그의 이러한 主張이 決코 그 혼자만의 意思만이 아니며 美帝에 追從하는 者들을 이 새로운 反人民的 同盟機構에 묶어 세우고 그것을 亞細亞 人民들의 自由와 解放 爲한 革命運動을 가로막는 道具로 利用하는 同時에 南朝鮮을 亞細亞 侵略의 主要拠点으로 永久히 틀어쥐고 있으려는 美帝의 策動의 産物이며 닉슨主義의 試驗場 再現의 한 고리이다.

이러한 凶計가 實踐에 옮겨질때 우리나라의 統一의 앞길에는 또하나의 複雜한 事態가 造成될 것음은 뻔한 것이다.

外務部長官이라는 사람의 떠벌임은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것없이 나라의 統一을 妨害하고 分裂事態를 持續시키려는데만 関心을 돌리고있는 자들의 속임 여실히 들어내 놓은것 以外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南北共同聲明이 發表된 後 첫瞬間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美帝侵略 武力과 侵略道具가 外勢가 아니라고 파렴치하게 主張하면서 그것들에 의한 南朝鮮感情과 間諜行為의 繼續을 애걸복걸한 事實은 偶然한것이 아니다.

이처럼 事大亡國 근성이 골수에 가지면 사람들에게서 統一偉業의 成就를 위하여 용감하게 美帝의 不當한 干涉을 反對하며 南朝鮮으로부터의 美帝侵

路軍의 즉시 「撤去」를 要求하는 것과같은 愛國心의 한쪽각이라도 우리나라를 어떻게 기대하겠는가?

南朝鮮에 세워진 美帝의 植民地 統治制度에 政權이라는 너울을 씌우고 그것을 묻는 唯一한 主權國家요 樞요한 國土統一院 次官이라는 사람의 잡소리가 制度의 差異를 내세우지 말고 우선 韓民族으로서 團合할데 대한 南北共同聲明의 合議事項을 違反한 行動일뿐만 아니라 南朝鮮의 그 썩은 制度를 北半部에 까지 延長하여 勝共統一을 하겠다는 妄想에서 벗어나지 못한 또 한차례의 監獄대이며 統一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라는 것은 다시 말할 必要도 없다.

우리人民의 敬愛하는 首領 金日成 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 하였다.

우리는 南北朝鮮의 全體人民이 굳게 團結하여 우리나라의 統一을 妨害하는 外勢를 反對하여 (積極鬭爭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統一을 가로막은 根本要因인 美帝侵略 勢力을 南朝鮮에서 내쫓는 것은 오늘 統一을 더이상 진척시킬수 없게된 全體朝鮮人民의 一致한指向이며 要求이다.

이에 逆行하는 것은 곧 自信을 人民과는 동등한 者로서 宣布하고 있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南朝鮮 當局者들은 人民의 意思를 背反하는 兇추의 씻지 못할 罪를 저지르지 않으며 外勢를 물리치고 民族 内部의 主体的 力量에 의거하여 平和的으로 祖國을 統一하려는 崇高한 民族的 意思에 付合되게 行動하는 대로를 아셔야 할것이다.

이것만이 民族을 爲한 길이고 또한 自信을 救援하는 길로 될것이다.

5) 統一院次官，国会外務委員會에서 한바탕 수선

<出處：平放 73.5.31. 11:50. 라디오명중탄>

이른바 國土統一院에서 두번째자리에 있다는 사람이 国会外務委員會에서 지난해에는 統一院 안에 統一研究所를 設置하고 教授 校長等 2千672名에게 勝共安全保障 段階的인 統一教育을 했고 올해에는 大學生들의 思想教育強化에 力點을 두겠다고 한바탕 수선을 떨었다고 한다.

지난 한해 동안으로 말하면 歷史的인 南北共同聲明이 나왔고 思想理念 制度의 差異를 超越해서 民族이 團結하고 外勢를 물리치고 自主的으로 戰爭을 하지말고 平和的으로 統一하자는 해였다. 그런데 명색이나마 統一院이요 統一研究所요 하는 데서 教授 校長들을 몽아 놓고 깨어진 勝共나팔을 불고 美軍의 南朝鮮 強占을 애걸복걸하고 統一은 당장할수 없다고 양탈까지 했다니 그야말로 喜劇이라할까 悲劇이라할까 그럴바에야 아예 이름을 靑瓦台劇場이라고 달던지 아니면 統一院은 統一妨害院으로 統一研究所는 分裂研究所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말이다.

라. 各種 學術會議 非難

1) 統一院 · 學術會議

〈出處：平放 73.6.3. 1150 라디오명중단〉

南朝鮮의 統一院이라는 데서 南朝鮮의 26個 大學과 言論機關들에 附設해 놓은 이른바 統一研究所의 代表라는 사람들을 忠南大學校에 몰아놓고 南北對話와 國土統一이라는 主題의 學術會議를 벌려 놓았었다.

이 무더운 데에 사흘씩이나 모여놓고 도대체 무슨 공꿈이를 하고 있는가 보았더니 두개의 朝鮮을 造作하기 爲해서 만들어낸 이른바 平和統一 外交政策이라는 南朝鮮當局者의 特別聲明을 앵무새 처럼 되뇌이게 하고 거기에다가 粉칠까지 해서 廣州거리에 내 놓았다.

글쎄, 이름은 研究所라고 달아놓고 賣國文件에 粉裝시키는 노릇이나 해서 야 그 이름이 아깝지 않는가?

더구나 大學教授나 言論人들과 같은 知性人들을 몰아 놓고 꼭두각시놀음이나 시켜서 되겠나요?

教授言論人 諸氏들,

말이 아니면 하지말고 길이나 아니면 가지를 말렸다고 그런 놀음에는 아예 비 치지도 말아야지 그러다가는 知性人의 이름을 더럽히고 亡身까지 합니다.

祖國統一 偉業을 實現하는데서는 絶對로 北과 南의 制度上 差異나 政見과 思想의 差異가 障礙로 될수 없으며 더우기 特定된 階級과 階層이나 集團의 個別的인 利害關係가 問題로 될수 없다.

그럼으로 北과 南의 各界各層 人民들은 그 누구를 勿論하고 真正으로 나라와 民族의 運命을 貴重히 여기며 民族의 尊嚴을 尊敬視 하는 사람이라면 遲滯없이 이 崇高한 祖國統一 偉業實現을 爲한 鬪爭에 단연 떨

쳐 나서야 할 것이다.

敬愛하는 首領 金日成 同志께서 이번에 새롭게 獨創的으로 闡明하신 大民族會議를 召集할때 대한 祖國統一 方案은 바로 이것을 要求하고 있다. 實로 어버이 수령 金日成 同志께서 闡明하신 祖國統一의 5大綱領은 그 愛國的이고 獨創的이며 가장 現實的이고 合理的인 公明正대한 方案인 것으로해서 發表되자마자 國內外的으로 暴風 같은 反響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朝鮮人民은 勿論이고 全世界 進歩的인 人民들로부터도 絶對的인 支持와 贊同을 받고 있다.

우리의 公明正대한 方案은 南朝鮮의 野黨系 人士들속에서도 共感을 불러 이르고 있다.

그럼으로 南朝鮮 當局者들은 우리人民의 한결같은 念願과 時代的인 要求에 逆行하지 말고 真心으로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爲해서 誠實하게 行動해야 할 것이다.

즉 그들은 外勢에 阿附 屈從하면서 두개 朝鮮을 造作하려는 犯罪的인 策動을 당장 걷어치우고 나라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爲한 聖스러운 偉業에 真心으로 떨쳐 나서야 하며 北과 南의 各界各層 人民들과 各 政黨社會團體 代表들로 構成되는 大民族會議를 召集해서 全体朝鮮人民의 意思와 要求에 맞게 全民族의 힘으로 祖國統一 하지는 우리의 公明正대한 方案들을 即時 받아들여할 것이다.

2) 그 어떤 策動으로서도 民族反逆의 罪行을 正當化 할 수 없다.

〈 出處 : 平放 73.3.0810 〉

지금 南朝鮮 當局者들은 저들의 分裂政策을 内外에 公布한 이른바 平和統一 外交政策에 關한 特別聲明이라는 것을 내놓고 그를 合理化 해보려고 醜惡한 顛動을 連日 벌리고 있다.

報道에 의하면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統一院의 主催로 大學 및 言論機關 附設 統一 및 安保關係 研究所 代表者들을 參加시켜 學術會議라는 것을 벌리고 저들의 犯罪的 立場을 正当化해 보려고 어리석게 策動하였으며 破廉恥 하기도 平和統一이 이루어지지 못한것이 마치나 우리가 그를 拒否하고 分斷 固定化를 위한 對外活動을 했기 때문이라느니 저들의 統一 政策과 安保政策에서 힘의 立場을 堅持해야 한다는니 美帝侵略軍이 南朝鮮에 繼續駐屯해 있어야 한다는니 뭐니 하는 허튼소리를 늘어놓은 이른바 7個項目의 合意事項이라는 叛逆的 文件을 發表하였다.

이것은 南朝鮮當局者들이 저들의 軍部上層과 反動團體을 御用宣傳 機構들을 動員하여 關係輿論을 造作하여 떠드는 한편 저들의 앞잡이들을 學者 외탈을 꾀워서 叛逆的인 特別聲明을 正当化하려는 너절한 廣大노름이다. 다아는 바와같이 南朝鮮當局者들은 저들의 分裂路線을 政策化한 叛逆的인 特別聲明에서 現國際潮流가 協商과 共存으로 나가고 있고 또 오늘 朝鮮이 南北으로 分裂된 現實에 適応하되 平和統一外交政策을 實施해야 한다는 口實을 내걸면서 分裂을 固定化하고 두개의 朝鮮을 造作하려는 저들의 策動이 不可避한것 처럼 平和統一을 위한 前提條件을 만련한것 처럼 破廉恥하게 떠들어 대었다.

이것은 朝鮮사람으로써는 도저히 할수 없는 妄說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全体朝鮮 人民은 勿論 南朝鮮의 國會議員이라는 사람들도 南朝鮮當局者들이 내놓은 平和統一 外交政策을 反對해 나섰으며 西方世界에서 까지 이것은 分裂을 固定化하고 두개의 朝鮮을 宣布한것이라고 暴露하고 있다. 南朝鮮當局者들은 저들의 分裂政策을 合理化하기 爲한 口實으로써 現國際的 潮流가 協商과 共存이기 때문에 朝鮮의 北과 南이 共存하는것이 國際潮流에 順應하는것 처럼 떠벌이고 있는데 이것은 (荒唐한 酬酌이다.

오늘 國際舞台에서의 共存이란 國家間 民族間의 關係問題이며 決코 한민족안에서의 問題가 아니다.

한 민족이 각각 분열된채로 공존하는 것은結局 永遠한 分裂을 意味하는 것이며 分裂된 두개 朝鮮을 認定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南朝鮮 当局者들은 오늘의 分裂된 現實에 適應한 政策을 써야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現在 分裂狀態를 固着 시킨다는 것이며 結局 두개 朝鮮을 造作하려는 犯罪的 策動이다.

더우기 可笑로운 것은 나라의 平和統一이 이루어 지지못하고 分裂이 持續되고 있는 責任을 우리에게 넘겨 씌우려고 하는데 이것은 盜賊이 매를드는 格的 言語道斷이 아닐 수 없다.

저들이 分裂路線을 政策化하고 두개 朝鮮 造作을 公公然히 宣布해놓고도 우리의 國際的 地位가 날로 높아 가고 있는 것을 分裂行動이라고 하는 것은 無禮함이 鐵面皮한 妄筭이다.

오늘 南朝鮮 当局者들이 分裂을 固定化하며 두개 朝鮮 造作陰謀를 公公然히 宣布하고 그를 合理化하려고 터무니 없는 脅변과 엉터리 없는 捏造를 일삼고 있으나 그 어떤 策動으로써도 저들의 売國背族의 行爲를 가리울수 없으며 사람들을 속일수 없다.

敬愛하는 首領 金日成 同志께서는 다음과같이 敎示하시었다.

우리民族은 悠久한 歷史를 通하여 하나의 文化와 하나의 言語를 가지고 살아온 하나의 民族으로서 決코 둘로 갈라져 살수 없읍니다 라고 敎示하시었다.

오늘 全体 朝鮮人民은 民族을 分裂하며 두個 朝鮮을 造作하려는 分裂主義者들의 어떠한 策動도 決코 許容하지 않을 것이며 斷乎히 排擊한다.

南朝鮮 当局者들이 萬古 逆賊의 恥辱을 남기지 않으려거던 民族의 한결같은 念願과 時代의 要求에 拒逆하면서 分裂을 固定化하고 두개 朝鮮을 造作하려는 売國背族의 行爲를 當장 거두어 치워야하며 우리側이 提起한 公明正大하고 愛國愛族의인 祖國統一 方案을 實現하는데 積極 擁護해 나서야 한다.

南朝鮮 当局者들이 人民들의 抗議와 糾彈에도 不拘하고 繼續 두개 朝鮮을 造作하려는 売国背族의 策動에 매달린다면 千秋에 씻지 못할 乙巳五賊의 恥辱밖에 남길 것이 없을 것이며 人民의 峻嚴한 審判을 免치 못할 것이다. 南朝鮮 当局者들은 現實을 똑 바로 보고 分別있게 処身해야 한다.

3) 金○○. 學術會議 致辭에서 妄發

〈出處：統革黨放送 74.7.5〉

統一院長官 金○○은 오늘 午前 서울 「타워호텔」에서 紹介된 이른바 韓半島 周辺情勢와 南北關係에 關한 學術會議에서 致辭라는 것을 통해 또 다시 朴政權의 永久分裂主義的 立場과 正체를 드러내었다.

그는 所謂 致辭에서 朴○○一黨의 常奪的 手法대로 以北을 惡辣하게 誹謗 中傷하던 끝에 以北에 對해 不可侵協定締結과 南北「유엔」同時 加入案에 同意하라느니 뭐니 하면서 永久分裂의 凶計를 또 다시 들고 나왔다.

이것은 朴○○徒黨이 自己들의 反統一姿勢를 隱蔽하고 南北對話의 中斷과 遲延의 責任을 以北에 轉嫁시키며 두개 韓國을 造作해 우리 民族을 永久分裂하려는 分裂主義的 立場을 다시금 드러내놓은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金溶植이 또 다시 떠벌인 이른바 「유엔」同時加入이니 不可侵協定이니 하는 것은 狡猾한 方法으로 自己들의 두개 韓國 造作을 既定 事實化해 보려는 것으로서 이미 우리 民衆과 世界 公正한 輿論앞에서 民族分裂主義 路線으로 烙印되고 強力한 糾彈과 排擊을 받은 아무런 價值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朴○○ 一黨이 이것을 繼續 들고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內外輿論을 欺瞞誤導하고 極度로 孤立된 自己들의 處地를

조금이라도 挽回해 分裂固定化 政策을 기어이 實現해 보려는데 있는 것이다.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民族을 愚弄하는 참을 수 없는 冒瀆이며 言語道斷이라 아니할 수 없다.

4) 分裂主義者의 입에서는 分裂打鈴밖에 나올것이 없다.

(出處: 平放 74.7.9.08.00) 勞動新聞글)

最近 朴○○ 傀儡도당은 南北 共同聲明을 亂暴하게 違反하고 나라의 永久 分裂을 피하려는 놈들의 正體가 世上에 날날이 들어나게되자 이것을 감추어 보려고 反共 감싸니아를 大大的으로 벌리면서 反共 謀略 宣傳에 汲 그것은 傀儡들이 지난 5日 그 무슨 學術會議라는 것을 벌여놓고 統一院長官이란 者를 내세워 황실 수설케 한게서도 잘 들어나고 있다.

이날 統一院長官이라는 者는 제놈들이 마치 平和統一을 바라고있는 듯이 假裝하면서 이미 바닥이 들어난 段階論을 또다시 들고나와 거기에 不可侵條約이요 南北의 유엔 同時加入이요 하는 平和商品까지 팔아 먹으려고 策動하여 나섰다.

이것은 놈들이 分裂의 永久化를 위하여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백일하에 들어내 놓은 것이다.

金日成 同志께서는 祖國統一 5大綱領을 提示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敎示하였다. 南朝鮮當局者들은 이 진실한 問題를 뒤로 미루고 부차적 問題들이나 이러저러한 段階를 거쳐 漸次的으로 解決하자고 하고 있다.

이것은 眞實도 互相信任을 두터이하고 民族的 大團結을 圖謀하자는 것이 아니며 民族分裂의 쓰라린 傷處를 그대로 두고 나라의 分裂을 維持하며 固定化하자는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傀儡들이 들고 나오는 段階論이란 統一問題와 같은 切迫한 問題를 이른바 段階요 뭐요 하는 看板밑에 無限定 뒤로 徐徐히 다루

어 보자는 과상망칙한 理論이다.

이날도 統一院長官이라는 者는 지금은 統一問題의 實質的 解決을 性急히 追求하거나 統一問題를 論議할때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것은 北과 南이 軍事分界線을 사이에두고 갈라져 있는 現在의 狀態를앞 으로 繼續 그대로 維持하자는 것이며 結局 統一하지 않겠다는 酬酌 以外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들이 統一問題를 百年戰爭으로 치르듯 代를 이 어가며 論議하여야 한다고 떠드는것도 그래서 하는 소리인 것이다.

人道主義問題解決이요 經濟의 交流요 하고 떠드는 傀儡들의 口號姿勢도 진짜 는 아니며 完全 時間을 끌기 위한 방패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南北赤十字會談에 對한 傀儡들의 態度나 우리가 提議한 南北의 幅 넓은 經濟合作을 그들이 反對하고 있는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人道主義 問題解決도 經濟合作도 反對하는 者들이 人道主義 段階요 交流段 階요 하고 떠드는 것 부터가 우리人民에 對한 하나의 愚弄이다.

傀儡들이 떠들어댄 그 무슨 統一成立이라는것 亦是 황망하기 짝이 없는 論 據로서 오직 세놈의 分裂主義的 正체를 가리우기 위해 빼들리는 것에 지 나지 않는다.

은 民族이 다같이 統一을 일일천추로 熱望하고 있고 統一의 基本原則을 밝 힌 南北共同聲明에 雙方이 合意하였으며 統一問題 解決을 위한 對話가 實 際로 마련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嚴然한 事實인데 그렇다면 이것보다더 有益한 條件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오늘 南北共同聲明을 헌신짝 처럼 집어던지고 統一의 根本前提條件으로 되는 北과 南사이에 軍事的 對 峙狀態를 解掃하고 緊張狀態를 풀때 對한 우리의 提案을 外面하고 힘의 對決과 競爭단을 부르짖으며 다른 便으로는 이에 對한 不信과 敵對感을 鼓 吹하기 위한 反共騷動과 팻쇼 暴行을 強化하고 있는 者들이 그 무슨 統 一 成立의 條件에 對하여 운운 하는것 부터가 言語道斷이다.

朴○○ 徒党的 分裂主義的 正체는 이날 놈들의 分裂을 固着시키고 있는

이른바 不可侵條約과 南北의 유엔 同時加入을 또다시 들고 나온에서도 餘地없이 들어나고 있다.

統一院長官이라는 者의 떠벌림은 始作부터 마지막까지 売國과 背族으로 가득찬 一連의 넛두리로서 朝鮮의 平和와 平和的統一을 바라는 全体朝鮮人民과 世界善良한 人民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愚弄이다.

分裂主義者의 입에서는 分裂타령 밖에 나올 것이 없다. 人民들은 南北共同聲明에서 闡明된 祖國統一 3大原則을 俱現하여 統一偉業을 成就하기를 結같이 바라고 있으며 그를 爲해 鬭爭하고 있다.

우리들은 이따위 論할 價值조차 없는 分裂의 넛두리를 가지고서는 누구도 속일수 없으며, 그것은 오히려 世נם들의 더러운 売國背族의 分裂主義的 불골 蔓을 들어 내어 人民들의 더 큰 反對와 糾彈을 불러 일으킬 뿐이다. 朴○○ 徒黨은 段階論을 내 세우며 分裂을 固着시키려는 策動을 걸어치우고 分別있게 行動하여야 한다.

5) 永久分裂을 合理化하기 위한 詭辯

〈出處：平放 74.7.9. 16:05〉- 民主朝鮮 글 -

報道에 依하면 얼마전 南朝鮮 傀儡 統一院長官이라는 者는 그 무슨 學術會라는 것을 벌려 놓고 우리를 헐뜯은 惡辣한 誹謗中傷을 일삼으면서 世נם들의 分裂主義 政策을 合理化하여 보려는 破廉恥한 詭辯을 늘어놓았다.

이놈은 여기에서 우리의 合作路線과 平和協定締結 提案을 反對하기 위해서 들고 나왔던 그 무슨 文物 交換論과 不可侵條約에 對해서 떠벌리면서 南北 유엔同時加入案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

그리고선 御用 나팔수 들은 動員해서 이것을 統一을 爲한 現實的 方案이라느니 統一努力에 재확이라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 되고 있다.

이것은 지금 統一을 바라는 南北朝鮮人民들과 內外輿論에 對한 또 하나의 참을수 없는 愚弄이며 惡辣한 挑戔이다.

이번에 統一을 反對하는 專門 謀略機構의 하나인 南朝鮮 傀儡 統一院이라는 데서 꾸며낸 統一政策이란 朴正熙 惡黨의 永久分裂論인 6.23 宣言을 그대로 되풀이 한 醜惡한 詭弁이다.

敬愛하는 首領 金日成 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敎示하였다.

美帝와 그 앞잡이 들의 民族分裂政策으로 하여 오늘 우리 人民은 民族의 永久分裂이나 아니면 統一이나하는 嚴重한 難局에 부딪치고 있다.

오늘 우리나라에 造成된 統一이나 分裂이나 하는 嚴重한 難局은 全的으로 朴○○ 傀儡惡黨의 2個 朝鮮造作策動에 의해서 誕生된 것이다.

이번에 南朝鮮 傀儡統一院長官이라는 者가 들고 나온 그 무슨 物資 및 文化交換이란 意味 우리側에서 提起한 南北間에 多方面的인 合作과 交流를 反對하기 爲해 들고 나온 詭弁이라는 것은 더 말할것도 없는 事實이다. 南北의 合作과 交流는 南北關係를 改善發展시키며 統一 偉業을 促進시키기 爲한 重要한 方途로서 우리側에 依해서 提起되었으며 南朝鮮側도 하는 수 없이 그 妥當性을 認定하고 南北調節委員會의 重要한 目的과 機能으로 規定한 問題였다.

그러나 막상 그것을 實踐에 옮기기 爲한 具體的 提案을 提起하자 南朝鮮 當局者들은 時期尚早라고 하면서 완강히 反對하여 나섰으며 그것으로 하여 內外輿論앞에서 窮地에 몰려들어 가게 되자 制限된 交流를 들고 나왔던 것이다.

놈들이 들고 나온 그 무슨 物資交換과 文化交流란 事實上에 있어서 南北間에 來往과 全面的인 合作을 가로막고 北과 南사이에 對話를 統一을 爲한 本質的인 問題解決에서 떼어내어 國家들간에 互相關係의 問題로 이끌어 分裂의 障壁을 固定化하기 爲한 犯罪的 陰謀에서 부터 나온 것이다.

이번에 놈들이 또다시 들고 나온 不可侵條約이라는 것도 뒤집어 놓은 분

裂論이라는 것은 이미 世上에 들어난 것이다.

朴○○ 惡黨은 바로 不可侵條約을 내걸고 南北 사이에 緊張狀態를 가시며 軍事的 對峙狀態를 解消하기 위한 우리側에 提案을 한사코 反對하면서 南北間에 關係를 공전에 基礎하여 2個 朝鮮을 造作하려고 兇惡的으로 策動하여왔다.

그리고 南北의 유엔同時加入案은 유엔을 통해서 하나의 朝鮮을 永遠히 물로 갈라 놓고 그것을 國際的으로 公認받자는 反逆的 策動으로서 이미 유엔들에서도 糾彈排擊 받고 破産 當한 謀略策動이다.

바로 統一院長官이라는 놈의 녀두리는 이것을 그대로 되풀이한 犯罪的 녀두리 以外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朴○○ 傀儡徒黨은 여기에 그 무슨 賢明한 措置라는 딱지를 붙여 보려고 헛되이 誠圖하면서 御用 나팔수들을 動員해서 그 무슨 實現可能한 것과 不可能한 것을 갈라 놓은 現實的 制約이라느니 뭐니 하고 떠벌리게 하고 있는바 이것은 계놈들의 分裂論의 基礎로 삼고 있는 段階論과 공전론을 合理化하기 위한 황당한 詭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朴正熙 傀儡徒黨은 그 어떤 詭弁과 欺騙策動으로서도 極惡한 分裂主義者로서의 犯罪的 正體를 결코 가리울수 없으며 臨終에 飢한 계놈의 殘命을 救援할수 없다.

朴○○ 傀儡徒黨의 잔악한 永久分裂策動은 全体朝鮮人民과 内外輿論의 더욱 큰 咀呪와 糾彈을 불러 일으킴으로서 놈들자신의 滅亡을 더욱 促進시킬뿐이다.

6) 分裂主義者들의 謀略騷動

(出處：統革黨放送 74.7.9. 21 : 10)

國民 여러분 安寧하십니까. 이 時間에는 分裂主義者들의 謀略騷動이란

問題를 가지고 말하겠다.

우리 國民의 熱火같은 統一指向에 逆行하고 있는 朴○○ 徒黨은 歷史的인 7.4 南北共同聲明이 世上에 公布된지 2周年이 되는 날을 前後해서 以北에 대한 터무니 없는 誹謗中傷을 일삼는 한편 더욱더 파렴치하고 惡辣한 反共騷動을 벌이고 있다.

이미 世上에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以北에서는 朴○○ 徒黨으로 하여금 南北間의 對決과 그리고 共存과 分裂만을 追求할 것이 아니라 合作과 團結과 統一을 爲해서 7.4 南北共同聲明 精神과 合議事項을 誠實히 履行할 것을 促求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朴○○ 徒黨은 以北의 이와같은 正當한 主張에 對해서 그것은 南侵試圖이고 赤化를 노리는 것이라고 터무니 없이 歪曲해 가지고 誹謗中傷해 가지고 所謂 勝共을 爲해서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일대 轉機를 만들고 被害 代價까지도 支払해야 한다고 惡을 쓰고 있는 것이다.

朴○○ 徒黨은 이러한 狂亂的인 反共騷動에 國務總理를 한다는 김충필을 비롯해서 文化公報部長官과 統一院長官이란 者들까지 그리고 御用團體인 反共聯盟 무슨 御用 言論과 政黨人들 까지 動員해 가지고 惡意에 찬 反共나팔을 연이어 불어대고 있다.

이러 파렴치한 朴○○ 徒黨은 南北調節委員會 平壤側 金英柱 共同委員長이 7.4 南北共同聲明 發表 2周年과 關聯한 自己의 聲明에서 朴政權으로 하여금 7.4 南北共同聲明 精神을 亂暴하게 蹂躪하고 分裂을 政策으로 까지 宣布한 所謂 6.23 宣言을 取消하고 南北對立과 民族離間을 造成하는 反共政策을 그만둘 것과 그리고 이제라도 民族의 尊嚴한 統一念願을 勸案해서 7.4 南北共同聲明 本然의 精神으로 되돌아설 것을 促求하면서 만약 朴政權이 끝내 7.4 共同聲明과 民族의 統一念願을 背信할 때에는 그로부터 招來될 嚴重한 후과에 對해 전적으로 責任을 負야한다는 正當한 主張에 對해서까지 事實을 歪曲하면서 反共나팔을 불어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朴○○ 徒党이 内外通信과 御用言論과 그리고 共和党과 維政會같은 政黨들을 내세워가지고 南北調節委員會 平和側 金英柱 共同委員長의 聲明이 마치도 對話의 必要性을 認定하지 않는것이고 赤化統一과 暴力的인 戰爭手段에 依存할수 밖에 없다는 것을 分明히 한것이라고 事實을 터무니 없이 歪曲하면서 惡辣한 誹謗中傷을 늘어놓은데서 알수가 있는 것이다. 또 한 朴○○ 徒党은 7.4 南北共同聲明에 背信하면서 對話까지도 破綻에 밀어 넣은 自己들의 罪行을 隱蔽하고 그 責任을 以北側에 넘겨 씌우며 分裂主義 策動을 正常化 해볼려고 無分別인 策動을 敢行하고 있다.

그것은 지난 5日 高麗大學校 亜細亞研究所 主催라는 形式으로 이른바 學術會라는 演劇을 벌여놓은 자리에서 統一院長官이란 金溶植이가 致辭를 통해서 以北이 7.4 聲明을 韓國의 安全保障을 弱화시킬 心理戰의 道具로 利用하고 있다고 엉터리 소리를 하던 끝에 分裂固定化를 위한 所謂 不可侵協定 締結과 南北의 유엔同時加入을 實現해야 한다는 妄說을 되풀이 한 데서 如實히 實證시키고 있는 것이다.

朴○○ 徒党이 감행하고 있는 이 모든 反共광대 놀음은 内外 輿論을 誤導하고 對話를 停滯시킨 自己들의 責任을 以北側에 轉嫁하려는 것이고 또 7.4 南北共同聲明後 지금까지 敢行해온 自己들의 売國背族行爲와 온갖 犯罪行爲를 隱蔽 合理化하고 分裂을 固着시킬 뿐만 아니라 以北과 對決態勢를 갖 추어서 이른바 勝共統一의 野望을 實現해보려는 속셈을 그대로 들어 내놓은 民族白丁의 妄說인 것이다.

勿論 이것은 朴○○ 徒党的 어리석고도 허황한 妄想인 것이다.

朴○○ 徒党이 제 아무리 虛爲捏造로 以北을 誹謗中傷하고 自身을 偽裝하면서 統一路線에 먹칠을 하고 内外輿論과 우리國民을 愚弄하려고 殘惡 해도 諸般 歷史的 事實과 嚴然한 現實앞에서는 自己들의 저지른 씻을수 없는 犯罪行爲와 그의 검은속셈을 絶對로 가리울수 없는것이다.

7.4 南北共同聲明에는 自主 平和統一 民族的大團結의 3大統一原則에 明示

되어 있고 또 自己들도 宜言했지만 돌아 앉자부터 그것은 믿을수 없다고 하면서 一括하게 南北對決態勢를 取해왔다.

自主 統一의 原則을 蹂躪하고 駐韓美軍의 長期駐屯을 애걸하면서 日本軍國主義를 마구 끌어들이고 戰爭策動을 加速化해서 緊張狀態를 激化시킨것도 바로 朴○○ 徒黨인 것이다.

또한 朴○○ 徒黨은 民族大團結의 原則을 蹂躪하고 反共 一刃倒로 나가면서 南北對決과 民族離間을 造成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朴○○ 徒黨은 新獨裁란것까지 꾸며내가지고 全國을 常時的 戒嚴下에 두고 여기에서 革命家 愛國者들 民主人士들과 無故한 住民들을 勿論이요 自己의 分裂主義策動과 淸소獨裁에 조금이라도 障礙가 된다고 生黨하는 모든 要素 모든 反對派 勢力을 무지막지하게 虐殺하고 있고 날을 거듭함에 따라서 事態를 더욱더 嚴重한 狀態에 밀어넣고 있는 것이다.

嚴然한 事實이 이러함에도 不拘하고 朴○○ 徒黨은 盜賊이 매를 드는 格으로 以北이 7.4 南北共同聲明을 지키지 않고 對話를 停滯시킨 듯이 事態를 歪曲하고 內外輿論을 愚弄하고 있으며 우리 國民의 統一念願에 挑戩해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는격으로 勝共統一의 妄想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朴○○ 徒黨의 處事야 말로 맨머리로 바위를 들어 박는 어리석은 妄動이라고 아니할수 없고 逆賊의 所行이라고 斷定하지 않을수가 없는 것이다.

事態는 불을 보듯 明白한 것이다.

朴○○ 徒黨이 이제라도 7.4 南北共同聲明을 履行하겠는가. 아니면 그를 依紙化하겠는가. 統一을 하겠는가 아니면 分裂을 無制限 持續시키겠는가. 緊張狀態를 除去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除去시키겠는가. 民族的大團結을 圖謀하겠는가. 아니면 反共으로 南北對決을 고취하겠는가. 이러

한 嚴肅한 물음을 놓고 分別있게 処身해야 할것이다.

그런데 萬若 朴○○ 徒党이 民族의 指向과 内外輿論에 挑戰하면서 끝내 反逆의 길로 나간다면 歷史와 더불어 忿怒한 國民大衆의 峻嚴한 審判만 이 차례질 뿐일 것이다.

b) 學術의 이름을 盜用한 反共騷動

〈出處 ; 統革黨 放送 74.7.10 06:15〉

國民여러분 安寧하십시오.

이른바 韓半島의 周辺情勢와 南北關係를 主題로한 所謂 學術討論會가 지난 4日부터 6日까지 서울 타워호텔에서 열렸다.

所謂 統一安保關係 國內學者및 專門家 80餘名이 모인 가운데 6個 分科 委員會로 나누어 進行된 學術討論會에서는 統一院長官인 金○○이 朝鮮日報 論說委員 反共專門家들의 이른바 主題發表란것이 있었는데 그 討論內容을 대충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美國 日本 中國 蘇聯등 韓半島 周辺の 4大強國이 韓國島의 現狀 維持 다시말하게 되면 南北의 共存을 바라고 있다는 것.

둘째로 南北對話를 膠着狀態에 빠뜨린 責任이 以北에 있고 이른바 6.23 宣言이 合理的인 平和統一 接近路線이란것.

셋째로 南北關係를 安定化하고 平和를 定着시키기 爲해서는 以北을 抑制할 수 있는 強力한 힘의 牽制와 國民的인 一體感 造成이 必要하다는 것등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以北에 대한 惡의에 찬 誹謗中傷과 마치 朴○○ 一黨이, 南北對話를 主導했다는 式的 虛偽捏造와 이른바 6.23 宣言의 當爲性을 論證하려는 試圖로 일관되어 있다.

이것은 이번에 學術討論會란것이 朴○○ 一黨의 分裂主義 策動의 加勢에

서 그들을 庇護하고 2個 韓國路線을 宣傳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納得시켜 보자는 醜惡한 政治的 謀略이며 學術이라는 너울밑에 숨어서 朴政權이 売國反逆行爲를 감싸보려는 反帝反共 行事임을 엿살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朴○○ 一黨이 이른바 6.23 聲明을 發表한지 1年만에 그리고, 7.4 南北共同聲明이 發表된지 2週年이 된것을 契機로 이처럼 수한 御用 教授 言論人 反共專門家들을 불러다 놓고 이른바 學術討論會라는 이름의 反共政治行事를 벌이는 底意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6.23 聲明을 糾彈排擊하는 國內外 輿論과 反對記事를 오도 무리하고 그의 妥當性을 다스나마 說得시켜 보려는데 있다고 본다.

오늘 良心과 理性을 가진 사람치고 6.23 聲明을 非難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제는 統一을 바라는 絶對多數와 統一에 逆行하는 極少數 삶고 죽음 善과 惡 愛國과 売國이 물과 기름 처럼 확연히 갈라졌고 平和統一의 美名下에 단행한 非常戒嚴令 維新憲法 緊急措置의 眞意가 分斷固定化 長期執權에 있다는 똑똑히 알았다는것이 6.23 宣言에 對한 國民들의 한결같은 목소리가 아닌가.

그래서 6.23 宣言을 反對하는 聲이 到處에서 撒布되고 売國的이고 分裂主義的인 朴政權을 反對하는 氣運이 漸次 表明化되다가 作年 10月 以後 大衆的 鬭爭으로 發展했다.

國際적으로도 非難의 화살이 集中되어서 朴○○는 緊張緩和 現狀維持 라는 國際情勢의 推移를 惡用해서 分斷固定化 南北共存을 꾀하고 있다.

6.23 聲明은 南北對話를 進展시키는 커녕 永遠히 문을 닫자는 分裂路線이라고 糾彈받고 있고 그것은 마침내 유엔舞台까지 反映되어서 作年 28次 總會에서 된서리를 맞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狀況에서 朴政權은 以北의 南侵說 流布와 反共謀略 騒動으로 國民 彈壓과 分斷固定化 策畧을 合理化 하는 한편 對外的으로는 이른바 外交活

動을 積極化해서 國際的 孤立을 謀免化 해보려고 꾀해왔던 것이다.

이번에 벌려놓은 이른바 學術討論會란것도 바로 이러한 策動의 一環이라 하겠다.

그들은 이번 學術討論會에 反共分子들을 登場시켜 입을모아 以北을 헐뜯게 하는 일방 南北對話는 韓國이 主導했다느니 7.4 共同聲明을 自己들이 發起했다느니 무어니 하면서 이미 國際舞台에서 排擊 당한 南北유엔同時加入案을 또다시 들고 나오게 한것은 오히려 그들의 이러한 反統一 姿勢를 더욱 두더러지게 露呈 시킨 結果를 가져왔다 하겠다.

學術討論會 組織者들은 自己들의 犯罪的 策動을 合理化 하려는 試圖 밑에 심지어 社會主義 國家들 사이에 離間을 造成하려고까지 劃策했다.

이번 主題發表에 動員된 反共狂信者들이 蘇聯과 中國이 韓半島에서의 戰禍를 願치않는다느니 美軍의 韓國駐屯을 黜過할것이라느니 南北유엔同時加入에 伸縮性있게 行動할것이라느니 무어니 하는것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美·日 帝國主義者들은 自己들에게 不利하게 急變하는 國際情勢의 趨移를 反對方向으로 돌리세 우려는 허황한 妄想 밑에 社會主義 國家들 사이에 離間을 부치고 分裂을 꾀하는 奸惡한 謀略을 일삼고 있고 親美 親日 走狗 朴○ ○ 売國徒黨은 상전의 唆囑 밑에 허황한 虛爲 捏造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祖國의 永久分裂을 막고 統一을 이룩하려는 우리 5千萬 거레의 民族的 意志와 決意는 그 어떤 謀略과 欺瞞으로서도 꺾을수 없는 것이다. 어느 社會主義 國家를 비롯한 世界平和 愛護國民들은 우리國民의 正義의 統一偉業에 絶對한 支持와 굳은 連帶性을 보내고 있다.

人間 쓰레기이고 時代의 오물들인 反共專門家들이 서울의 假設舞台에서 以北을 헐뜯고 2個 韓國이라는 分裂路線이란 것을 고취하고 있지만 한층도 못되는 分裂主義者들을 除外하고는 그 누구도 그의 見解를 죽이지 않을것 이란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것이다.

마 . 懸賞作品施賞式 非難

1) 南朝鮮의 国土統一院 長官, 段階論을 高唱

〈出処: 平放 73.5.6〉

서울에서의 報道에 의하면 南朝鮮의 国土統一院 長官이라는 者는 5日 그 무슨 施賞式을 한다는 자리에 나타나 이미 거덜이 난지 오랜 이른바 段階論이라는 것을 또 다시 들고 나와 人道的 問題요, 非政治的 問題요, 政治的 接觸이요 하고 뇌까리는 한편 10月維新의 成功的 完遂만이 統一의 길을 닦아나가는 것임을 다시금 銘心해야 한다느니 性急하게 서둘지 말라느니 하고 잠꼬대 같은 소리를 제쳐냈다.

이것은 오직 祖國統一을 한사코 反對하면서 分裂의 永久化를 피하는 者들만이 짓어 낼수 있는 황당한 잡소리로서 祖國統一을 일일천추로 渴望하는 온 民族의 한결 같은 指向과 念願에 대한 露骨的인 背信行爲이다.

敬愛하는 首領 金日成 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敎示하셨다.

南朝鮮 当局者들은 그 무슨 段階를 운운하면서 이것은 할 수 있고 저것은 할 수 없다느니 어떤 것만 먼저하고 다른 것은 뒤로 미루워야 한다느니 하고 있는데 이것은 遲延 戰術이지 問題를 解決하려는 態度가 아니다. 祖國統一을 促進하기 위한 우리의 眞摯하고 主動的인 努力에 의하여 現實的으로 南北調節委員會와 赤十字 會談이 同時에 進行되고 있으며 北과 南사이에 多方面的인 合作을 이룩할데 대한 問題를 비롯해서 一連의 問題들에서 이미 原則的인 合意가 이루어진 지금 段階論을 운운하는 것 自体가 事理에 말지 않는 不當한 것이다. 그들의 이렇한 行爲는 北과 南사이에 幅 넓은 對話와 合作을 反對해 온 저들의 背信行爲를 가리우고 合理化하는 한편 維新課業 遂行의 看板밑에 一人獨裁體系에 依한 長期 執權 野望을 實現하고 實力을 培養하여 저들의 勝共統一 妄想을 이루

워 보려는 것으로서 結局 統一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속셈을 들어 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몇일후에 第6次 赤十字會談이 벌리게 되는데 앞서 南朝鮮 當局者들이 우리를 誹謗 中傷하는 反共騷動을 더욱 大的으로 벌리는 한편 낱아빠진 段階論을 또 다시 들고 나와 잡소리를 치고 있는 事實에 留意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南朝鮮 人民들의 더욱 높아가는 統一念願에 찬물을 끼얹으며 北과 南사이에 對話와 協商에 人爲的인 難關을 造成하고 分裂을 永久化하려는 데서 나온 計劃的인 行爲인 것이다. 諸般事實은 南朝鮮 當局者들이 말하는 對話요 統一이요 하고 떠벌이지만 實際에 있어서는 統一에 關心이 없을 뿐만 아니라 分裂을 永久化하는 데만 기를 쓰고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結局 저들 자신이 人民들로 부터 더욱더 멀리하며 孤立과 窮地에로 더 이끌어 가는 結果밖에 갖어 올 것이 없다.

벌써 28年 동안이나 分裂의 苦痛을 겪고 있는 北과 南의 全体人民들을 民族的 指向을 背反해 나서는 이러한 行爲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南朝鮮 當局者들은 어리석은 行爲에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分裂을 永久化하려는 反逆的 企圖를 버리고 人民의 指向에 合流해 나셔야 한다.

2) 統一을 願치않는 者들의 얼빠진 잡소리

〈 出處：中央通信 74.5.5 〉

서울에서의 報道에 의하면 南朝鮮의 國土統一院長官이라는 자는 5日 그 무슨 施賞式이라는 자리에 나타나 이미 들어난지 오랜 이른바 段階論이라는 것을 또 다시들들고 나와 人道的이요, 非政治的 問題요, 政治的 接觸이요 하고 맥빠진 소리를 늘어 놓는 한편 10月維新의 成功的 完遂란이 統一을 뒤아나가는 길임을 다시금 銘心해야 한다는니 急하게 서

두르지 말라니 하고 잠꼬대 같은 소리를 외쳐댔다.

이것은 오직 祖國統一을 한사코 反對하면서 分裂의 永久化를 꾀하는자들만이 짓어 낼수 있는 황당한 소리로서 祖國統一을 일일천추로 渴望하는 온 民族의 한결같은 指向과 念願에 대한 露骨的인 背信行爲이다.

敬愛하는 首領 金日成 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敎示하였다.

南朝鮮 当局者들은 그 무슨 段階論을 외쳐 대면서 이것은 할수 있고 저것은 할수 없다느니 이것만 먼저하고 다른 것을 뒤로 미루어야 한다느니 하고 이것은 遲延 戰術이지 問題를 解決하려는 態度가 아니다.

祖國統一을 促進하기 위한 우리의 真摯하고 主動的인 努力에 의하여 現實的으로 南北調節委員會와 赤十字會談이 同時에 進行되고 北과 南사이에 多方面的인 合作을 이룩할데 대한 問題를 비롯하여 一連의 問題들에서 이미 原則的인 合意가 이루어진 지금 段階論을 운운하는것 自体가 事理에 맞지 않는 不當한 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行爲는 北과 南사이의 幅 넓은 對話와 合作을 反對하여 온 저들의 背信行爲를 가리우고 合理化하는 한편 維新課業遂行의 看板 밑에 1人獨裁體制에 의한 長期 執權 野望을 實現하고 實力을 培養하여 저들의 勝共統一 妄想을 이루어 보려는 것으로서 결코 統一을 하지 않겠다는 검은 속셈을 들어 내놓은 것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몇일후에 第6次 赤十字會談이 열리게 되는데 앞서 南朝鮮 当局者들이 우리를 誹謗, 重傷하는 反共 騷動을 더욱 大的으로 벌리는 한편 낡아빠진 段階論을 또 다시 들고 나와 잠소리를 치고 있는 事實에 留意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南朝鮮 人民들의 더욱 높아가는 統一念願에 찬물을 끼얹으며, 北과 南사이의 對話와 協商에 人爲的인 난관을 造成하고 分裂을 永久化하려는 데서 나온 計劃的 謀略 行爲인 것이다.

南朝鮮 当局者들이 떠들어 대는 對話요 統一요 하고 떠들지만 實際에

있어서는 統一에 關心이 없을 뿐만 아니라 分裂을 永久化하기 위해 달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結局 저들 자신을 人民들로 부터 더욱더 멀리하며 孤立과 窮地에 더욱 이끌어 가려는 結果밖에 가져 올것이 없다.

벌써 28年 동안이나 分裂의 苦痛을 겪고 있는 北과 南의 全体人民들은 民族的 指向을 背反해 나서는 이러한 行爲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南朝鮮 当局者들은 이러한 行爲에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分裂을 永久化하고 反逆的 企圖를 버리고 人民의 指向에 合流해 나셔야 한다..

3) 段階論은 統一을 가로 막자는 것이다.

〈出處：中放 5.7 07:25 勞動新聞論評〉

報道에 依하면 南朝鮮에 統一院長官이란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거덜이 난 段階論을 또 다시 되풀이 하고 나섰다.

10月維新에 成功的 完遂만이 統一에 길을 닦아 나가는 것이라느니 統一을 性急하게 서두를 것도 아니라느니 하고 늘어 놓았다.

歴史的인 南北 共同聲明이 發表되고 北과 南이 各 方面에 걸쳐 合作하고 協力할데 對한 合意가 이루어져 南朝鮮 人民들 속에서도 平和統一 氣運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가고 있는 이때 統一에 雰圍氣를 돌구는 말은 못할 망정 그와 逆行하는 段階論을 또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現實에 어울리지 않는 소리이며 統一을 바라는 사람의 諛辭가 아니다.

이것은 民族에 分裂을 繼續 固着시키고 統一을 無限定 遲延시키자는 것이며 그리고 統一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인 것이다.

그것은 또한 南朝鮮 当局者들이 南北 共同聲明과 雙方에 合意 事項을 스스로 현신작처럼 여기면서 나라에 分裂을 永久化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敬愛하는 首領 金日成 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敎示하셨다.

南朝鮮 当局者들은 共同声明을 發表하고 돌아 앉아서 兩面 戰術을 쓰고 있다. 共同声明에 指摘된 合意事項들을 誠實히 履行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우리와 마주 앉아 會談할 때에는 좋은 말을 하고 뒤에 돌아가서는 우리들 誹謗, 中傷하며 共同声明에 基本精神에 背馳되는 發言과 行動을 일삼고 있다.

敬愛하는 首領 金日成 同志께서는 以上과 같이 敎示하셨다.

南朝鮮 当局者가 이번에 統一을 운운하면서 人道的인 問題요, 政治的인 問題요, 政治的인 接觸이요 뭐요 한것은 이러한 段階를 거치지 않고서는 統一을 이룩할 수 없다느니 이른바 段階論을 들고 나온 것으로서 그들이 統一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에 根拠로 밖에는 달리는 될수 없다.

우리 겨레가 南北으로 갈라져 사는지도 이미 1/4 世紀가 지났다.

은 民族이 統一을 熱望하고 있는데 統一을 위해서 그 무슨 段階가 必要한단 말인가 段階를 거치지 않고서는 統一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은 結局 南北에 分 쪼음을 持續시키고 統一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南朝鮮 当局者가 10月維新에 成功的 完遂만이 統一에 길을 닦아 나가는 길이라고 한데서 더욱 여실히 들어나고 있다.

그에 이말은 平和統一에 障礙를 造成하자는 것으로서 統一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繼統的인 소리 南朝鮮 当局者들이 平和統一의 體制를 갖춘다는 美名하에 실지에 있어서는 平和統一에 길을 正面으로 反對하기 위해서 이른바 10月維新이라는 것을 꾸며 냈다는 것은 이미 세상에 들어날 데로 들어난 事實이다.

北과 南사이에 合作과 祖国統一에 民族的 大業을 實現하기 위해서는 北과 南에 執權 当局은 말할 것도 없고 各黨, 各派, 各系 各層 人民이

이 성스러운 事業에 積極 參加하여야 한다.

바로 이를 위해서 南北에 広範한 政治協商과 經濟 및 文化에 合作이 切迫하고도 주된 問題로 提起되고 있다는 것을 論議에 余地가 없다.

祖國과 民族에 運命을 貴重히 여기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明白한 事實이다

그런데 이른바 10月維新이란 이렇게 철체가 여지없이 들어난 바와같이 오직 特定한 사람만이 統一問題를 論議할 수 있게 하고 다른 広範한 經濟人士들과 人民 大衆은 平和統一 論議를 압박에 耐수 없게 완전히 封鎖하기 위한 것이며 結局 現 軍事「파쇼」 獨裁體制를 強化하고 우리를 反對하는 戰爭準備와 對決態勢를 強化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온세상이 다 알고 있다.

10月維新에 成功的 完遂만이 統一에 길을 닦아 나가는 것이라고 한 南朝鮮 当局者에 말은 統一하자는 立場이 아니라 그것을 가로 막자는 立場을 表明한 것이며 南北 共同聲明과 雙方에 合意事項을 實行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休紙처럼 여기려는 속셈에서 나온 것이 分明하다.

民族分裂政策을 合理化하고 統一을 妨害하려는 南朝鮮 当局者들에 속심은 南北對話가 進行되고 있는 이때에 雙方이 政治·經濟·文化·軍事等 各分野에 걸쳐 合作할데 대해서. 合意를 본 이마당에 와서까지 統一을 성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느니 뭐니하고 말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더욱 낱낱이 들어나고 있다.

南朝鮮 当局者들에 이러한 소리는 統一問題는 百年戰爭을 치르듯이 代를 이어가며 다루어야 한다는 統一 不可能論에 再版이며 이른바 2千年에 統一論에 變種外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나라의 統一은 무조건 서둘러야 할 民族至上에 切迫한 課業이며 더는 미룰수 없는 成熟된 問題이다.

이른바 段階論은 祖國에 運命과 民族에 將來에 대해서는 조금치도 眼中

에 없는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소리이다.

요컨대 그것은 나라에 分裂을 固着시키자는 소리이지 統一을 하자는 수작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明白하다.

事實上 南朝鮮 当局者들은 말로는 統一을 主張하나 分裂을 피하며 平和代身에 戰爭을 追求하며 民族的 團結과 合作 代身에 對決과 競爭을 鼓吹하고 있다.

南朝鮮 当局者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段階요 10月維新이요 뭐요하는 것은 그들이 나라에 統一偉業에 関心이 없을 뿐만 아니라 民族에 分裂을 繼統 固着시키고 南朝鮮 政治·經濟生活에 「파쇼」化를 다구치며 外勢에 매달려서 實力을 培養하고 勝共統一에 妄想을 이루어 보겠다는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南朝鮮 当局者들은 온 民族앞에 그 履行을 嚴肅히 盟誓한 南北 共同聲明에 合意事項을 난폭하게 違反하는 자기들에 背信行為와 招來하게 될 후과에 대해서 慎重히 생각하고 分別있게 行動하여야 될 것이다.

南朝鮮 当局者들이 乙巳保護條約에 恥辱을 남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나라에 統一에는 百害無益한 그 무슨 段階論이요 10月維新이요 하는 따위에 엉터리 없는 소리를 거두어 치우고 北과 南이 軍事的 對峙狀態를 解消하고 合作을 이룩할데 대한 우리에 公明正大的 提議를 받아 들여야 한다..

段階論은 統一을 가로 막자는 것이다. 5月7日부 勞動新聞에 실린 論評이였다.

바. 其 他

1) 「새로운 裁判彈圧」

〈出處：「모스크바」放送 74.7.18 07:00〉

서울에서 所謂 學生陰謀事件에 關한 裁判이 끝나가고 있다. 軍法會議는 民主主義的 變化로 因해서 이른바 南朝鮮 詩人 「김지하」도 包含하는 14 名의 被告에게 死刑을 15 名에게는 終身禁錮刑을 나머지 24 名에게는 15 年으로부터 20 年까지의 禁錮刑을 각각 言渡했다. 그들은 모두 다 朴正熙가 禁止한 全國 民主青年學生總聯盟에 關聯했다는 理由로 起訴되었다.

周知하는 바와같이 軍法會議앞에 나선 모든 被告人들은 올봄에 있었던 反政府運動때에 南朝鮮 秘密警察에 逮捕된 1,000 余名 사람들의 一部이다..

다른 住民層 代表들의 支持를 받으면서 南朝鮮 全域에서 벌어진 學生騷動에서는 서울政權의 反人民的 對內外政策을 날카롭게 批判하는 목소리가 울려났다.

이에 있어서 南朝鮮 住民들에게서 마지막 自由마저 빼앗으며 大統領 朴正熙에게 無制限한 權限을 준 이른바 새 憲法이 強力한 攻擊을 받았다.

青年學生들의 大規模의 大衆運動은 政權當局을 크게 놀라게 했다. 그래서 서울 獨裁者는 지난 4月3日에 부랴부랴 緊急措置를 내려 全國 民主青年學生總聯盟을 共產主義的 組織으로서 禁止했으며 이 組織의 活動이 体制의 基本을 威脅하고 있다고 宣布했다. 이 緊急措置는 全國 民主青年學生總聯盟과 의 連帶를 가지는 사람들을 死刑이나 長期 監禁刑으로 處罰하겠다고 威脅했다.

오래전부터 알려진 바와같이 朴正熙는 自己의 政治的 敵手들을 處斷하기 위해서 늘상 이른바 破壞的 共產主義 活動을 하고 있다는 理由로 그들을 起訴하는 常套의 述策을 써오고 있다. 이 낯아빠진 手法이 다시금 發動된

것이다.

그러나 서울当局의 이와 같은 行動이 어느 누구도 속여 넘길수는 없다.

이번에 有罪判決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共產主義에 대해서 동경하고 있다고는 想像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적지않다. 그들의 모든 잘못은 그들이 政權当局의 政治에 대해서 自己들의 不滿을 서슴없이 表示했다는 그것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南朝鮮 司法系 官吏들을 조금도 難處하게 하지 않았다.

서울에서 言渡된 判決은 公民權과 自由와 民主主義를 위해서 擁護한 사람들을 反對하는데 돌러졌다. 이와 關聯해서 朴○○의 發言을 回想하게 되는데 한두해 前에 朴○○는 지금은 西方民主主義를 模倣하는데 時間과 「에레르기」를 消費할 必要가 없다. 우리들 自体에 附合되는 韓國式 民主主義의 旗幟下에 굳게 團結할 때가 되었다고 公布했다.

지금 裁判官들이 死刑宣告를 言渡하고 있는 수많은 裁判은 所謂 大統領이 韓國式 民主主義라는 概念에 어떤 意味를 賦与했는가 하는데 대한 若干의 說明을 주고 있다.

朴正熙가 理解하고 있는 韓國式 民主主義란 警察의 專橫과 「테러」의 橫行과 人民의 初步的 權利와 自由의 蹂躪을 意味한다.

이것은 온 세계에서 広範한 抗議를 불러 일으킨 추악한 所謂 金大中 事件과 南朝鮮 作家, 記者, 宗教人들에 대한 수많은 裁判彈圧이 이를 實証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事實도 注目을 끌고 있다.

서울에서 軍法會議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 南朝鮮 首都로 부터는 나라의 平和統一로 나가는 원대한 길에서 互相信賴를 圖謀하기 위해서 南北朝鮮이 努力을 해야 한다는 呼訴가 울려나고 있다.

예를들면 国土統一院長官 金○○이 요새 이런 聲明을 했는데 金○○의 이와 같은 偽善的 聲明에는 놀라지 않을수 없다.

날마다 南朝鮮 中央情報部가 南朝鮮 사이에 接觸을 넓히며 나라의 統一을 하루속히 이룩할 것을 主張하는 南朝鮮 사람들을 檢挙, 投獄하고 있는 관에서 互相信賴를 운운하는 金○○의 呼訴는 무슨 價值가 있겠는가?

平壤과 서울사이에 會談이 시작된 후 지난 期間은 南朝鮮 支配層이 祖国 統一의 口號를 自己들의 反民主主義的 政權을 鞏固히 하며 政治的 「테러」를 繼續하며 武力을 增強하고 있는데 利用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朴○○는 反對勢力이 그가 統一問題를 眞摯하게 다루는 것을 妨害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비위에 맞지않는 政治活動家들을 投獄하고 있다.

兵力의 縮小, 南朝鮮으로 부터의 外來軍의 撤去, 南北사이의 經濟連帶의 設定 등 나라를 統一하는 가장 重要한 問題들을 討議하는 것을 서울 代表들이 拒絕했기 때문에 調節委員會의 會談은 窮地에 빠져 버렸다.

서울 爲政者들이 벌리고 있는 裁判彈圧은 広範한 國際社會界의 注目を 모았는데 國際社會界는 이번의 裁判彈圧을 서울政權에 대한 南朝鮮의 広範한 住民層의 抵抗이 高潮되고 있는 証拠로 評價했다.

南朝鮮에서 民主主義的 배수와 南北朝鮮의 平和統一을 위한 鬪爭은 날로 高潮되고 있다. 獨裁政權을 反對하는 全人民的 運動에는 知識人, 宗教家, 企業人 등 別라별 住民層들이 參加하고 있다.

第三部 附 錄

- 가. 73 年度 政府施策 (金永善長官)
- 나. 全南大學校 統一問題 學術會議長官
致辭 (金永善長官)
- 다. 全國 基督教青年協議會 「統一祈願
禮拜」長官致辭 (金裕植長官)
- 라. 高大 亞研主催 「韓半島 周辺 情
勢와 南北韓 關係」

가. 73 年度 政府 施策

- 國土統一院 -

《編輯者註》 當院 金永善 長官은 지난 2月5日 K.B.S 「텔레비죤」 및 「라디오」 對談放送을 통하여 維新 第1次年度의 國土統一院 業務計劃과 政府의 統一政策 方向을 밝혔다. 本文은 對談 內容 全文을 풀이한 것이다.

(參 席 者)

國土統一院 長官	김 영 선
延世大學校 教授	이 기 택
韓國日報論說委員	박 동 운
司會：政治部次長	이 석 회

司 會：安寧하십니까.

各 部處 長官을 모시고 所管部處의 今年度 施策을 알아보는 時間입니다.

오늘은 金永善 國土統一院 長官을 모시고 國土統一院의 今年度 施策과 政府의 統一政策이 어뀈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金永善 長官님께서 今年度 國土統一院의 施策을 說明하신 뒤에 韓國日報論說委員 박동운씨와 延世大學校 教授 이기택씨가 함께 궁금한 事項을 여쭙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長官님께서 今年度 國土統一院의 施策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長 官：國民 여러분, 오늘 今年度 國土統一院 事業計劃을 說明드릴 機會를 가진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國土統一院은 政府

組織法이나 職制에 의해서 策定된 事項을 繼續 忠實히 推進해 나갈것은 勿論입니다.

특히, 維新 第1次年度를 맞이해서 南北對話가 推進되고 있는 이 時期에 国土統一院은 今年에 特別히 다음 몇가지 點을 힘을 들여서 推進해 나갈까 합니다.

첫째는 國論을 統一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国力을 培養하고 또는 国力을 組織化한다 하더라도 國論이 統一되지 않고는 南北對話를 推進하는 오늘날, 그 뒷받침을 해 나가기가 꼭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하여 于先 国土統一院은 今年에 國內에 있는 여러 社會團體를 糾合하고 또 이를 잘 育成해서 國論統一에 이바지하도록 우선 努力하겠습니다.

다음, 둘째는 南北對話가 推進되고 있는 이 時期에 있어서 國民들은 北韓이 어떠한 哲學, 어떠한 政治, 어떠한 經濟理論을 信奉하고 있으며 또 그들의 오늘날의 現實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正確하게 事實대로 똑바로 알아야 될것이고, 또 우리 自身이 어디에 長點이 있으며, 또 우리의 弱點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서 우리의 長點을 더 伸張시키고 또 確信을 갖고 弱點은 補完해 나갈 수 있도록 統一教育을 強化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生覺합니다.

셋째는, 南北對話가 推進되고 있는 이 時期에 있어서 對話를 하시는 분들에게 좀더 具體적이고 더 現實적인 여러가지 問題를 研究해서 훌륭한 資料를 提供해 드리고 南北對話를 도와드리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生覺합니다. 뿐만 아니라, 끝으로 機會 있을 때마다 우리 國民들에게 우리政府가 統一問題에 대해서 어떠한 生覺을 가지고 있으며, 南北對話가 現在 어떠한 狀態에 있

느냐 하는 것을 說明드릴 計劃으로 있습니다.

司 會: 먼저 今年度 施策의 大體的인 줄거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것을 좀더 물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于先 朴先生님께서 좀 궁금하신 점을 여쭙어보시면 좋겠습
니다.

박동운: 金長官님을 모시고 궁금증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南北對話는
昨年の 境遇 기쁨을 일단 整備했음 따름이고 그 實質的인
進展은, 그러니까 成果는 今年부터 漸次 期待된다고 알려주
었지 않습니까?

이 마당에 對話에는 뒷받침이 必要하고, 또 統一을 推進함
에 있어서는 推進力量이 절실하다고 生覺됩니다만, 이 境遇에
南北關係를 参照해 보면 北韓의 境遇에는 「祖國統一民主主義
戰線」이라 하는 것을 만든 以後에 「祖國平和統一委員會」라
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勞動黨을 核心으로 해가
지고 그 外鄕團體로서 社會團體 혹은 「勤勞團體」라고 일컫
는 그러한 政黨社會團體等이 全部 한 덩어리가 되어 있음니
다. 이런 것과 対応하기 위해서 우리 體制를 生覺할 때에
國民的 「에네르키」를 集中시켜야 되고 國民總和, 國論統一이
절실하다고 生覺되겠습니다만, 우리의 境遇에는 自由民主主義
開放社會이기 때문에 各 政黨社會團體들이 각기 自己의 綱領
과 設立趣旨에 의해서 多樣한 活動을 벌이는 것까지는 좋
습니다만, 國論統一, 國民的 「에네르키」 集中이라든가, 體系의
集中이라든가 하는 면에서는 우리가 精神차려서 內部體制를
또한 잘 가다듬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느껴집니다. 그러한
면에서 統一院의 새해方針과 事業같은 것을 長官님께서도 말
씀해 주셨음니다만 國論統一問題와 이것을 結付 시켜서 어떻게

構想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長 官 : 지금 좋은 質問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박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나라에는, 正確한 숫자를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는, 적어도 1,000 以上이나 되는 登錄된 團體 또는 登錄되지 않은 社會團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團體는 朴先生님이 指摘한 대로 自己의 「그룹」의 理解를 代辯 하고 또 자기나름대로의 設立 目的은 다있읍니다만, 國家全體의 目的이라든지 또 國家의 統一問題에 대해서든지 또는 우리와 對話를 하고 있는 北韓의 實態나 北韓과의 對話에 대해서는 별로 關心을 表示하지 않고 準備도 안된 것이 오늘날 솔직한 現實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狀態로서는 南北對話를 成功的으로 推進해 나가기가 꽤 어려울 것이 아니냐, 이렇게 生覺해서 于先 經濟團體라든지, 또는 體育團體라든지, 또는 文化團體라든지, 其他 全國的인 組織을 가진 影響力있는 이러한 團體, 또는 앞으로 接觸이 있으리라고 予想되는 이런 모든 團體等을 糾合해 가지고 北韓의 여러 가지 實情도 알려주고, 또 우리의 實態도 알고, 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대처해 나가는 對策까지 마련할 수 있는 이런 組織體를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政府로서는, 特別히 統一院으로서는 「統一國民協議體」라고 하는 것을 統一院傘下에 登錄團體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組織化하고, 組織化한 後에는 南北對話를 뒷받침할 수 있는 力量과 또 國論統一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協議하고, 또 피차 情報도 交換하고 知識도 연마해 나갈 수 있도록 運營을 해 나갈 生覺입니다.

司 會 : 各種團體를 「統一國民協議會」로 結束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신데, 李教授님께서 뭐 다른 것을 質問해 주십시오.

이기택 : 大學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事實上, 특히 이러한 社會科學을 통해서

統一問題를 접하고 있는 學者들로서는 統一院이 몇년내에 政府가 소위 統一勢力이나 또는 南韓에 輿論 集中이라고 하는 角度에서도 배어놓을 수 없는 大學, 혹은 言論機關에 대해서 特別히 그 統一問題를 研究하려고 하는 여러 機關에서 統一院이 唯一하게 政府에서 몇년내에 特別히 昨年부터 集中的으로 그 統一問題에 대한 여러가지 資料 乃至는 研究費라든가, 이러한 그 모든면에서 支援을 아끼지 않았고 또 '昨年の 그 時期가 時期였던 만큼 大學社會에서도 이제는 統一問題가 政府하고 어느 程度 호응을 맞추면서 아주 活潑한 成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特別히 73年度의 施策說明에서 長官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앞으로 各大學에, 또는 言論機關에 統一과 關連되는 研究所에 또 다시 積極的인 支援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로서는 政府가 「인텔리겐차」의 中心部라고 할 수 있는 各 大學 및 言論機關 等に 대한 集中的인 統一 關係資料라든가, 또는 研究費라든가 이러한 면에서 새해에는 더 큰 期待를 하고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럼, 長官님께서 좀 더 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長官: 지금 아시는 바와같이 北韓資料가 지금까지는 넉넉하지도 못하고 또 넉넉하지도 못한 資料나마 各 大學이나 研究機關에 제대로 分配되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昨年 1주동안은 繼續 蒐集해온 資料를 集大成 하여 支援한다고 하는 目標아래 研究機關에 分配해 드림으로서 研究에 便宜를 提供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런데 昨년에 저희는 大体로 한 20余個되는 大學研究所와 關係를 맺고 있었으며 言論機關과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今年에는 이것을 한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와 關係를 맺는 研究機

關에만 資料를 提供할 것이 아니라, 各 大學 圖書館까지 可能한 限 最大限으로 研究資料를 提供할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一般 先生님이나 學生들이 北韓實情이라든지, 혹은 우리의 統一政策이라든지, 其他 統一을 둘러싼 國際情勢의 움직임이라든지 하는 것을 좀 더 直接 보고, 듣고, 自己意見을 붙이는 方向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努力할 작정입니다.

둘째는 今年에도 勿論 予算에 우리가 구애를 받긴 합니다마는 最大限으로 統一研究機關에 대한 支援을 繼續하고 可能한限, 研究機關을 擴張해 나가는 方向으로 繼續 努力해 나갈 生覺입니다. 뿐만 아니라, 昨年 1年 혹은 再昨年 몇해동안의 주로 原則적인 것, 基本的인 것을 研究해 왔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今年부터는 對話가 軌道에 오르고 또 이대로 繼續 推進될 것이 分明하기 때문에 이 對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具體적이고 現實적인 問題를 研究해 주십사고 要請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予算面에서도 昨年보다 더 努力할 것이고, 또 資料 提供面에 있어서도 昨年보다 좀 더 널리 이것을 提供해 드릴 것이고, 研究內容도 過去와 같은 抽象論이나 原則論을 좀 더 지나서 이러한 大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具體적이고 現實적인 問題를 研究해 주십사고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今年에 研究關係는 昨年보다는, 또는 재작년 보다는 훨씬 더 活潑하고 擴大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司 會: 各 大學이라든가 言論機關에 附設되어 있는 研究機關에 대해서 資料를 提供해 주신다는 것은 國論을 統一한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利로울것 같고요,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方法을 摸索할 수 있는 그러한 契機도 될 수 있을 것은 勿論, 굉장히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朴先生님은 다른 角度에서……

박동운 : 아시다시피 南北對話期에 올바른 方向感覺과 狀況意識을 가다듬고 거기에 따라서 対応姿勢를 確立하는 것이 國民에게 매우 切實하지 않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어떻게 힘을 모아야 하느냐, 그리고 南北關係와 統一問題觀을 어떻게 바로 세워야 할 것인가에 對해서 궁금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昨年 5月엔가 統一院에 統一研修所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매우 좋은 기도라고 생각됩니다만, 거기에서 普通 教育分野와 高等分野의 여러 教育系 指導者 先生님들이 모여서 많이 研究도 하고 學習도 하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面도 있고, 또 한편 一般 國民大衆에 對한 啓蒙教育, 社會教育이라는 側面도 있습니다.

거기에 對한 새해 構想은 어떠하신지.

長官 : 참 좋은 質問이십니다. 事實 統一教育은 切實히 必要하다고 生覺합니다.

對話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北韓實情을 올바르게 把握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統一問題에 對해서 성급하거나 感想的으로 躁急症에 걸린 이런 國民도 있고 또 北韓의 實情이나 北韓의 計劃을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統一問題에 對해서 悲觀하고 統一이 될 것이냐 하는 아주 謠言論이나 悲觀論을 갖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簡單하게 생각해 가지고 獨逸도 두나라로 分離해 가지고 「한 民族內에서 두 國家」가 버젓하게 共存해 나가는 길을 가고 있으니 우리도 참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듯 합니다. 이러한 성급한 論議나, 이와같이, 悲觀하는 생각이나, 또는 아주 가볍게 남을 模倣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도대체 우리를 잘 모르고 또 北韓을 잘 모르는데서 나온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을 排除하고서 統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確信을 가지면서, 또 統一을 이루는 그때까지에는 어떠한 逆境과 어떠한 過程을 겪어야 하느냐 하는 것도 正確히 알므로서 옳은 統一의 姿勢를 갖도록 하는 것이 絶對로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面에서 統一教育이 어느때 보다도 지금이 必要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昨年 5月부터 統一院에는 統一研修所가 생겨서 于先 敎職에 몸을 담고 계시는 분들이 相当數 昨年에 이미 敎育을 履修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講師를 支援해 준다든지 敎材를 提供해 준다든지 하는 方法으로 社会敎育에도 우리가 힘썼습니다. 또 落島 巡廻啓蒙과 通信敎育을 통해 올바른 統一의 姿勢를 갖도록 하고 우리와 北韓의 實態를 正確하게 알도록 努力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學校敎育에 있어서도 過去 우리의 學校敎育이 敎育面에 있어서 敎科書 등에 있어서 고칠 점은 없을가 하는 점도 여러모로 檢討해 보았습니다.

過去에 우리가 하던 敎育도 좀 더 理論的이고 좀 더 科學的이고 또 實地에 알맞는 또 現實과 事實에 맞도록 敎育指針書 같은 것을 만들어서 文敎當局과 協議하고 또 反映시켜 이런 面에서 統一敎育에는 여러모로 努力도 해왔습니다. 今年에는 이것을 좀 더 強化하고 더 擴大해 나가서 우리 自身の 長點도 알고 또 北韓의 여러가지 實態도 分明히 알므로 해서 지나친 悲觀이나 지나친 樂觀이나 또는 獨逸같은 「한 民族 두 國家」라는 概念과 같은 가벼운 生覺을 갖지 않도록 하고져 합니다.

특히 이런 자리에서 強調하고 싶은 것은 獨逸은 國民 여러

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統一國家를 이룩한 것이 百年밖에 되지 않았읍니다. 우리는 벌써 1300年 乃至 1400年이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년밖에 안된 獨逸과 1300余年間 完全한 統一을 이룬 우리와는 전연 歷史的인 面에서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지리 또는 「체코」같은 나라는 獨逸말을 쓰고 있으면서도 다른 나라를 形成하고 있는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韓國말을 쓰는 獨立國家는 우리밖에는 없었읍니다. 이런 면에서 또 여러가지 國際的인 与件이라든지 국면도 獨逸과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分斷되고 있다고 하는 現實만을 보고서 우리도 獨逸처럼 「한 民族 두 國家」로 해서, 現實을 土臺로 쉽게 解決해 보자고 하는 이러한 思考方式은 어느모로 보든지 이진 獨逸과 우리와의 差異를 너무 도외시한 常識論이라고 보여집니다. 特別히 반드시 獨逸의 絶對 多數가 支持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勿論 統一에 이르는 길이 험하고 멀지는 모르지마는 絶대로 統一이 안된다는지 두개의 國家로 만든다는 思考方式을 버리고 忍耐力을 가지고 統一의 그 날까지 우리는 繼續 努力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기백 : 이제 20年間 가까이, 우리가 이름을 부친다면, 動亂體制라고 하는 南北 分斷과, 南北分斷에서 兩極化를 加速化시켰던 北韓은 蘇聯 또는 中共, 韓國은 日本 또는 美國에 積極的인 自由陣營의 支援을 받으면서 지내왔던 體制로 알고 있습니다. 美國의 中共訪問으로 해서 根本的인 修正은 가해지지 않지만 어느 程度의 變質을 가져오는 것만은 事實이겠고 여기에서 우리의 그 모든 統一 또는 統一을 生覺하는 價值 判斷에서 다시금 本來

의 民族이라든가 혹은 이러한 角度에서 統一을 우리 問題로서
이제는 심각하게 우리 손으로 다뤄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칼
라가 오지 않았느냐, 昨年에도 結局은 南北赤十字社 本會談을 本
軌道에 올려 놓았고 또한 南北調節委員會라고 하는 歷史的으로 外
交史에서 보기도된 이러한 「맥카니즘」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이러한 技術的인 것도 重要하지만 이제 漸次로 이러한
技術的인 次元을 넘어서 相當히 政治的인 次元으로 今年부터 들
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意味에서 統一院이라고 하는 것이 政治的인 次元에서 볼
때 相當히 앞으로는 重要的 機關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박동운: 長官님께서 좀 어려운 質問이 되실지는 모르지만 短期的인 意味
에서나 또는 統一以後에 韓半島에 어떠한 國家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長期的인 眼目에서나 이 統一問題에 對한, 國民한테 말씀드
릴 것이 있다면, 이 機會에 國民에게 安堵感을 주는 意味에서도
그렇고 몇마디 해주셨으면 感謝하겠습니다.

長官: 대단히 어려운 質問입니다. 그런데 結局 統一의 展望을 좀 애
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統一의 展望을 누구도 正確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은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나 統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悲觀을 하여 拋棄
論을 들고 나오는 것도 안되는 얘기고, 또 성급하거나 感想的이
어서 躁急症에 걸리는 것도 안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獨逸式으로
簡單하게 處理해 버리자는 것도 우리에게서 맞지 않습니다. 그
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結局은 忍耐力을 가지고 해나가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結局 서로 南北間의 얘기가 될
수 있고 合意가 될 수 있는 問題와 解決하기 쉬운 問題부터

얘기를 繼續해서 어려운 問題는 제쳐놓고 쉬운 問題부터 解決해서 이것을 점점 쌓아 나간다면 現在 南北間에 가로놓여 있는 不信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느 程度 解決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6.25 事變이나 혹은 1.21 靑瓦台 襲擊事件이나 혹은 三陟, 蔚珍 等地에서 벌어진 여러가지 不幸한 事件 等等은 우리 國民들은 너무나도 머저리게 現實的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不信이 지금 짝 차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無理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쉬운 問題가 하나하나 解決해 나가는 가운데 어느程度 緩和되고 窮極的으로 解決될 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民族的인 면에서 서로 웃고 얘기를 해 나갈 수 있는 길이 트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은 政府에서도 이미 闡明한 바와 같이 于先 人道的 問題를 解決하고 그 얘기가 본 軌道에 오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政治的인 얘기를 한다고 하는 3段階 接近 方法을 좀 더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쉬운 問題부터 解決해 가면서 不信을 除去하고 또 그러한 不信이 除去된 土台위에서 民族的 同質性을 찾고 民族的 同質性의 土台위에서 이러한 漸進的인 方法으로 接近을 解決해 나간다면 時間은 걸릴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統一은 이루어진다는 確信을 가지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풀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마는 躁急症이나 感想論에 사로잡히지 말고, 拋棄論이나 悲觀論에 사로잡히지 말고, 西獨이나 其他 남의 나라를 模倣하는 것을 摸索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自主的인 統一努力을 繼續해 나가면 반드시 統一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司 會 : 結局 우리 國民이 바라는대로 統一을 이룩하자면 國內的으로 国力

을 培養하고 또 組織化하고 國論을 統一해 가면서 個人生活의 革新을 통해가지고 北韓과의 對話에 있어서는 實踐 可能한 人道主義的인 問題, 그 다음에 非政治的인 問題, 그 다음에 政治的인 問題 이렇게 對話를 통해 統一의 길로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結論을 맺겠습니다. 感謝합니다.

나. 全南大学校 統一問題 學術會議 長官致辭

- 全南大学校 統一問題研究所 主催 學術會議 -

〈編輯者 註〉 ★ 마음은 全南大学校 統一問題研究所
主催로 열린 統一問題學術會議 (73. 6. 28 ~ 30)에서 金永善
国土統一院長이 行한 祝辭內容의 全文이다. ★

<머 리 말 >

尊敬하는 全南大学校 柳基春 總長님!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学界,
言論界의 統一問題 專門家 여러분!

本人은 于先 우리 모두의 所願인 祖国의 統一과 韓半島의 平和戰略이
政府의 새로운 選擇과 決断에 의하여 가장 現實的 次元에서 새롭게 展
開되는 重大한 時点에, 全国 各地의 統一問題 專門家들을 한 자리에 모
시고 이같은 大規模 學術會議를 組織하신 全南大学校 統一問題研究所 關
係者들에게 衷心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모임에 參席하기 위해 貴重한 時間을 割愛하여 이곳에 모
이신 学界 및 言論機關의 參加者 여러분에게도 뜨거운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本人이 알기로는 全国 各大学과 言論機關에 附設된 統一關係研究所의
指導級 人士들이 五千萬 우리 겨레의 共同關心事인 祖国의 統一과 平
和問題를 討論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昨年度 嶺南大学校의
統一會議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라고 記憶합니다.

本人은 平素부터 우리의 統一과 平和는 어느 경우에도 外部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를 必要로 하는 우리 政府와 國民이
自主的 努力과 決断에 의해서만 成就될 수 있는 課題로 定義해 왔음
니다.

따라서 오늘 이 모임은 時期的으로는 統一로 向한 政府의 새로운 平和 外交政策이 内外에 闡明된 때이고 또 構成面에서 보아도 其通된 問題狀況 속에서 統一政策을 理論的으로 探究하는 国内專門家들만의 모임이기 때문에 한층 더 값있고 意味있는 結實이 豊富하게 生産되는 모임이 될 것으로 期待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특히, 오늘의 이 時點은 우리 民族의 進路를 우리 스스로의 努力, 智慧, 그리고 勇氣로써 開拓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民族的 自主, 自強의 時期이기 때문에 이 重大한 轉換期의 歷史를 誤謬없이 展開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国内 知識人들의 団合과 솔기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切實히 要請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見地에서 政府는 여러분들의 討論에 至大한 関心を 갖는 것이며 이 會議에서 導出되는 結論에 큰 期待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명철한 批判과 評價, 그리고 助言 및 聲援을 渴望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變化된 國際情勢〉

親愛하는 統一問題 專門家 여러분!

本人은 政府에서 統一政策을 맡고 있는 閣僚의 한 사람으로서 이 機會를 빌어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周邊의 情勢를 살펴보면서 지난 6月23日에 發表된 朴大統領 閣下의 平和統一 外交政策宣言과 이에 關聯된 우리 政府의 立場, 그리고 앞으로 当面한 課題들을 隔意없이 議論해 보고 싶습니다.

統一問題를 探求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이지만 70年代에 접어들어 韓半島 周邊의 國際情勢는 이 나라가 북위 38度線을 境界로 兩斷되는 當時와는 根本的으로 다른 狀況을 造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南北을 가르는 分界線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南北을 人爲的으로

分析시켰던 東西冷戰의 國際關係는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美日安保同盟과 中蘇軍事同盟이 韓半島를 中間에 두고 冷戰으로 맞섰던 時代는 지나 갔습니다.

적어도 이들 4大國 關係에 있어서 同盟關係는 根本적으로 變質되었으며 文書上으로는 同盟條約이 殘在하고 있지만 自國의 利益을 모든 것에 우선시키는 實利追求의 새로운 強大國關係가 胎動하고 있는 것입니다.

同時에 이들 強大國들은 極東地域에 있어서의 全般的인 緊張의 緩和와 모든 局面의 現狀維持가 그들이 追求하는 새로운 亞細亞 秩序 形成에 有益하다는 結論에 合意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現狀維持를 基調로 하는 強大國들의 勢力均衡으로 平和 共存을 維持하려는 것이 하나의 主된 潮流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情勢는 現狀의 維持가 아닌 現狀의 打破가 論理的 前提로 되는 우리의 統一努力과 正面으로 摩擦한다는 點에서, 우리 民族의 進路에 하나의 커다란 問題를 提起하는 情勢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即, 祖國의 統一이라는 民族至上의 念願을 이같은 情勢속에서 어떻게 追求할 것인가의 問題인 것입니다.

한편 視角을 바꾸어 「유엔」의 機能과 情勢를 보아도 우리는 同一한 問題에 直面하게 됩니다.

周知하는 바이지만 오늘의 「유엔」은 그 成立의 基本이 되는 政治的 機能 即,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機能은 完全히 廢棄되고 世界의 모든 主要争點은 例外없이 「유엔」 테두리 밖에서 論議되고 決定되는 實情에 놓여 있습니다.

只今 「유엔」은 本然의 政治機能이 完全 廢棄된 狀態下에서 「유엔」의 부수적 機能에 속하는 事項들, 例컨데 環境改善問題, 海洋法 制定問題, 經濟的 先後進國간의 隔差解消問題, 航空機 被拉防止問題, 같은 非政治機能이 為主가 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侵略者와 平和愛護國을 嚴格히 峻別하던 創立當時의 權威는 빛을 잃고 모든 國家에 門戶를 여는 會員國 普遍主義가 強調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엔」은 더 이상 機能과 能力面에서 우리가 바라는 統一에 實質적으로 貢獻할 立場을 喪失했다고 보아도 過言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統一과 安全에 關聯되는 國際情勢는 周邇情勢와 「유엔」 内部情勢를 莫論하고 우리가 이 情勢에 自主적으로 對処하지 못할 경우 한마디로 우리에게서 統一에 대한 希望을 앗아 가고 그 反對給付로 分斷의 固定化라는 民族的 危機를 造成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國際的 孤兒로 만들 심각한 段階에 접어 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여기에 統一에 대한 우리의 希望의 危機가 있고 同時에 民族的 각성과 現實的 情勢觀 定立의 必然性이 있다고 指摘하는 바입니다.

〈 南北關係에 問題點 〉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直面하는 危機는 非但 이같은 國際情勢에서만 提起되는 것은 아닙니다.

祖國의 平和統一의 展望을 밝히고 또 그 可能性을 全世界에 証言하기 위해 推進되고 있는 南北對話에서도 우리는 自主的 平和統一에 대한 希望의 危機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우리가 바라는 祖國의 平和統一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平和統一에 대한 北韓側의 拒否와 그들의 實質的인 反統一政策에 起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解放直後 두차례의 統一機會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反託으로 뭉쳐진 民族的 團합을 土臺로 統一된 臨時政府를

樹立할 가능성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國際聯合의 決議로 派遣된 「유엔」 韓國臨時委員團의 勸告에 따라 南北을 통한 自由總選舉를 實施하여 統一政府를 樹立할 가능성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機會는 北韓側이 이를 모두 拒否함으로써 霧散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1950年 6月 25日 不意의 南侵을 敢行하여 百餘萬의 同族을 殺傷하고 全國土를 焦土化시키는 民族的 大悲劇을 일으킴으로써 이 땅에서 統一이 平和的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源泉的으로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南北間에는 憎惡와 敵愾의 두꺼운 軍事障壁이 쌓이고 이를 背景으로 南과 北은 相互 異質化의 길을 걷는 슬픈 歷程이 記錄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政府에서는 北韓共產主義者들의 이같이 體質化된 平和背反的 屬性에도 不拘하고 國土分斷이 四半世紀를 經過한 70年代에 접어들면서 人爲的 分斷으로 말미암아 겨레의 苦痛과 不便을 경감시키고 5천만 同胞가 戰爭없는 平和속에서 繁榮을 구가할 平和統一의 基盤을 마련해야 한다는 民族的 正當性에 立脚하여 南北間의 극한적인 對決의 構造를 對話의 構造로 轉換시키기 위한 段階的 對策을 講究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970年 8月 15日 光復節記念辭에서 밝힌 朴大統領 閣下의 平和統一 構想宣言을 起點으로 해서 1971年 8月 12日에는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의 苦痛을 덜기 위한 赤十字會談을 提案했는가 하면 그 다음 해인 1972年 7月 4日에는 國內外的 錯雜한 反應을 豫想하면서도 大統領에게 부여된 統治權을 行使하여 平和統一을 위한 南北共同聲明을 誘導해 냈던 것입니다.

이같은 措置를 통해 南北間에는 對話의 門이 열리고 이로서 지난 27年間의 凄絶한 對決의 構造는 對話의 構造로 轉換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 對話를 통해 優先은 国土分断에 起因하는 民族의 苦痛과 不更을 解決하기 容易한 것부터 하나씩 덜어 감으로써 窮極的으로 모든 苦痛을 完全히 除去하고 이 過程에서 造成되는 信賴와 理解, 그리고 民族의 同質感의 擴大된 基盤위에서 民族의 統一을 平和的으로 達成하자고 提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北韓側은 政府의 平和統一 誘導措置에 어쩔 수 없이 따라 오 면서도 한편으로는 大韓民國의 安全을 위태롭게 할 軍事 및 政治問題의 一括解決이라는 強奪的 要求를 提起하여 會談進行에 難關을 造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南北對話를 그들의 國際地位 伸張에 逆利用함으로써 對 外的으로 「두개의 韓國」 印象을 扶植시키는 分断固定化 政策을 追求하 는데 狂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北韓側은 또다시 祖國이 平和的으로 統一될 前途에 深刻한 難關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도 우리의 念願인 平和統一에 대한 希望의 危機 를 直感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새로운 戰略 >

親愛하는 統一問題 專門家 여러분!

이 사람은 지난 5月 18日부터 約 1個月間 國務總理를 隨行하여 西 部 유럽의 友邦들과 日本을 巡訪하고 왔습니다.

이 旅行을 통해 또다시 確認할 수 있었던 眞理가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 政治는 理想主義的 純粹理論이나 主觀的 倫理觀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冷嚴한 現實主義의 論理에서 이루어 진다는 事實이었습니다.

現實主義者들과의 對話는 하나같이 冷嚴한 現實에 基礎를 둔 問題의 提起에서만 비로서 協力과 理解를 凶謀할 수 있는 것입니다.

本人은 이번 旅行을 通하여 우리의 讓步할 수 없는 基本 立場은 堅持해야 하지만 戰略戰術問題는 恒常 國際潮流에 能動的으로 伸縮性 있게 調和시켜 나가는 智慧와 勇氣가 必要하다는 冷嚴한 事實을 確信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追求하는 民族的 正当性은 그것을 다른 國家들이 現實的으로 受諾할 때 비로서 實質的 意味를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現時點에서 우리가 追求할 것은 다른 나라에게 우리의 要求를 一方的으로 強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立場과 다른 나라의 立場을 現實的 基礎위에서 調和시키고 이 土台위에 우리가 成就시킬 目標을 定立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現代 國際關係가 形成되는 基本前提로서 緊張緩和의 潮流와 國際的 現實認定趨勢를 外面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問題解決의 새로운 基盤으로 能動的으로 活用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國際情勢下에서는 우리가 休戰線 以北에 樹立되어 있는 共產政權을 存在와 價値의 兩面에서 同時에 否認하여 얻을 수 있는 具體的 利益이 分明치 않습니다. 오히려 北韓政權의 正当性은 否認하더라도 그 存在만은 認定하는 것이 우리의 對外的 進路打開에 非現實的 要素를 除去한다는 點에서 有益한 結果를 가져 올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北韓政權을 國際社會에서 繼續 封鎖시키고 閉鎖시키는 것이 정녕 우리의 平和統一을 위해 반드시 有益한 措置인가에 대해서도 냉철한 再檢討가 要請되는 것입니다.

北韓政權의 國際進出 封鎖는 우리의 지난날의 外交目標이었으며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唯一合法性을 強化했으나 또 한편으로 生覺하면 이 政策은 北韓體制 內部에 戰爭擁護勢力의 長期執權을 可能케 한 側面도 있고 아울러 北韓體制가 東歐羅巴 國家들처럼 自由化를 向한 體制變質의 可能性마저 封鎖하는 結果도 招來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對北封鎖政策에 隨伴하는 이같은 否定的 側面은 平和統一이라는 遠大한 目標에 비추어 再檢討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觀點에서 朴大統 閣下께서는 이번 平和統一 外交政策 宣言에서, 北韓의 國際機構參與나 加入을 굳이 反對하지 않는다는 立場을 闡明한 것입니다.

「유엔」에서 우리가 承認받은 韓半島內的 唯一合法性은 基本的으로 우리가 國際關係에서 누릴 特權이 아니고 平和統一에 대한 政府의 責任을 意味할진대, 우리가 平和統一을 促進시키기 위한 迂迴戰略으로 北韓의 國際進出을 反對하지 않는 것은 論理的으로 전혀 矛盾이 없다고 믿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以上の 決定을 包含한 새로운 統一外交政策을 闡明함으로써 對友邦과의 關係에 있어서는 冷戰時代에 形成된 協力關係를 美利外交時代에 符合하도록 正常化시켰으며 나아가 過去의 「이데올로기」의 敵對國家들과도 關係를 改善할 基盤을 다짐으로써 北韓이 우리 政府의 正當한 平和統一政策에 順應할 수 있게 하는 對外環境을 造成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새로운 選擇은 既往에 우리 政府가 가지고 있던 立場이나 原則을 拋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原則을 現實의 基礎위에 定着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措置에서 우리가 喪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統一外交政策 樹立過程에 潛在해 있던 非現實的 感性뿐이라고 斷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새로운 決斷과 選擇이 어느 경우에도 國內에서는 北韓을 하나의 國家로 承認하여 두개의 韓國을 制度化한 措置로 解軀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北韓에 對한 國家承認은 國際情勢의 影響을 언제나 意識하지 않을 수 없는 韓半島의 政治構造속에서 一種의 統一拋棄, 分斷固定化로 評面될 것

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南北關係를 東西獨關係처럼 完全히 國家 對 國家關係로 轉換시킨 基礎위에서 統一의 可能性을 展望할 意思는 전혀 없다는 것을 分明히 밝히고자 합니다.

東西獨關係와 우리나라는 第2次世界大戰의 結果로 分斷된 點에서는 비슷하지만 分斷의 背景과 狀況은 根本적으로 다릅니다.

즉, 獨逸의 分斷은 獨逸이 歐洲秩序에 威脅이 되기 때문에 強大國들의 確固한 方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만 韓半島는 垂綑垂 秩序에 대한 威脅이 되어서 分斷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地域에 紛爭의 要因이 될 「힘의 공백」을 調整하기 위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周辺 強大國의 緊張緩和의 程度에 따라 統一에 대한 希望과 期待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差異點을 勸案할 때, 現 狀점에서 分斷의 固定化나 統一의 拋棄를 結果할 政策을 스스로 취한다면 그것은 잘라 말해서 民族的 自殺行爲에 속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南北間에 이루어진 歷史的 現實을 基盤으로 하여 相互不可侵, 相互不干渉의 原則에 立脚하면서 한편으로는 南北 共히 國際緊張緩和의 政治過程에 積極 協力하는 一方, 또 한편으로는 平和統一이 이루어질 條件과 基盤을 實質적으로 改善하는 措置를 不斷히 講究하는 南北關係를 展開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論理는 一見, 二律背反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分斷固定化를 指向하는 強大國 政治의 激浪속에서 統一에 대한 希望을 拋棄당하지 않기 위한 民族史의 論理에서는 現實性과 正當性을 갖는다고 本人은 確信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對共產圈體制 開放措置를 包含한 一聯의 새로운 外交政策이 우리의 對外關係에서 成功的 結果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友邦들의

廣遠의 支持와 共感 그리고 誠意있는 協調가 前提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萬一 우리 友邦들 가운데 우리의 對共產體制 開放政策을 誤解하여 다른 共產國들의 對韓國政策을 考慮하지 않고 一方的으로 北韓을 承認하게 된다면 이같은 処事는 南北間의 外交的 不均衡을 招來하게 되어 우리가 追求하는 現狀維持와 互惠平等原則을 破壞하게 될 것입니다.

政府는 이러한 問題點을 豫見하여 對友邦 外交를 多角的으로 展開하는 一方 우리의 새로운 政策에 대한 民主 友邦들의 아낌없는 協調를 期待하여 마지 않습니다.

〈 結 論 〉

이제 우리는 朴大統領 閣下께서 밝히신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을 起點으로 해서 비로소 우리 民族은 지난 27年동안 얽어 놓았던 東西冷戰의 論理를 脱脚하고 南北間에 열린 對話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民族史 形成의 礎를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對決의 論理와 對話의 論理가 併存하는 狀況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東西和解「무드」에도 不拘하고 이 땅에 신빙할 만한 平和의 뿌리를 定着시키지 못한 狀況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與件에서도 우리가 南北對話를 進行시키고 또 平和統一을 위한 새로운 外交政策을 生産할 수 있었던 것은 두차례에 걸친 經濟開發5年計劃을 成功的으로 完遂하고 나아가 10月維新 作業을 통해 다져 온 國論統一, 國力培養의 結果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國力組織化와 能率極大化를 目標로 하는 10月維新은 아직 1次年度도 經過하지 않았고 온 國民의 精神革命의 活力素가 되는 새마을 運動은 農村地域에서는 바야흐로 遼遠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으나 아직 都市에 까지 擴大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重化学工業의 첫 閥門에 들어 섰으나 우리의 産業體質이 根本的으로 現代化되기에 는 아직도 相當한 時日을 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狀況속에서도 우리는 國際權力政治의 거센 격랑에 對処하기 위해 새로운 決斷을 내리고 課業을 推進하지 않으면 안될 時期에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새로운 決定에 따라 앞으로 外交的 側面에서는 南北外交의 自由競爭時代가 到來할 것이며 各 分野別로 南北의 優劣을 判가름할 體制競爭이 陽性化될 것입니다.

本人은 이 點에서 우리 知識人들이 가져야 할 基本姿勢를 세가지로 集約시키고 싶습니다.

첫째는, 모든 形態의 體制競爭에서 勝利해야 한다는 國民的 正當性을 體質化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強調하고 싶은 것은 南北關係의 展開를 第三者의 立場에서 방관하는 姿勢를 갖지 말고 外交的 側面에서는 總力外交時代에 適應할 知的 構造를 가다듬고 政府의 새로운 政策과 方向을 놓고 國民的 合意基盤을 넓히는 國論善導의 역군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強調하고 싶은 것은 힘의 哲學을 信奉하는 共產主義者들과 對決해서 우리가 원하는 平和와 統一을 同時에 達成하기 위해서는 国力培養이 첫째 要件임을 確信하고 우리 生活의 모든 領域에서 一切의 精神的 物質的 「에베르기」가 浪費됨이 없이 国力培養의 要素로 轉換되도록 「国力培養의 哲學」을 信念化 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이 哲學은 現實的으로는 10月維新課業의 成功的 完遂로 具體化될 것임을 確信합니다.

끝으로 本人은 지금 이 點만큼 政府와 知識人 그리고 全体國民이 國家的 狀況에 대하여 共感과 信賴를 돈독히 해야 할 때는 없다고 強調하고자 합니다.

政府와 국민이 同一한 狀況을 同一하게 意識하고 同一한 問題意識을 가지고 内外情勢에 對處한다면 우리 民族 共同의 目的인 平和와 統一은 이같은 總和의 構造가 獲得해야 할 當然의 代價가 될 것으로 確信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의 參與와 理解, 그리고 支援을 바랍니다.

一九七三年 六月二十九日

國土統一院長官 金永善

다. 全國基督教青年年協議會主催

統一祈願 禮拜 長官致辭

尊敬하는 韓景職 牧師任,

그리고,

全國各地에서 모인 基督教青年代表 여러분!

五千年의 悠久한 歷史를 지닌 우리民族을 南과 北으로 잘라놓은 休戰線을 바라보는 이 自由의 다리에서 우리 모두의 念願인 統一을 祈願하는 敬虔한 모임에 參席하여 말씀을 드릴 機會를 갖게 된것을 커다란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1945年 解放의 기쁨을 가진지 不過 한달도 못되어 우리는 五千年 歷史에 처음보는 南北分斷의 悲劇이 이땅위에 그 幕을 올리게 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年後, 同族相殘의 兇殘한 戰爭이 勃發하여 百萬을 헤아리는 同胞의 兇殘한 죽임을 가져왔으며, 이 땅은 戰禍로 말미암아 焦土化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祖國의 分斷이 1945年 當時, 國際政治의 冷酷한 現實로 말미암아 우리의 憲法에 反하여 이루어진것으로 압니다.

이 分斷은 우리에게 커다란 不幸과 損失을 가져 왔습니다.

1950年 北韓의 南侵에 의하여 始作된 韓國戰爭은 祖國統一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南北間에 가로막힌 鉄의 槓幕은 더 높아졌으며, 더 두터워 졌습니다.

南과 北은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모든 面에서 完全히 遮斷되고 말았습니다.

이곳에서 보이는 저 休戰線에서는, 南과 北의 百萬大軍이 塹壕속에서 星夜를 가리지 않고 20年間 對陣하고 있습니다.

東海에서 黃海로 155 마일의 休戰線에서 完全히 武裝한 百萬大軍이 이와 같이 長期間 對陣하고 있는 事實은 全世界, 또한 古今의 歷史에서 그 例를 찾아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 問題는 우리만의 問題가 아니라, 全世界의 問題로서, 韓國問題라는 이름 아래 거의 每年 國際聯合總會에 提起되어 왔습니다.

本人은 지난 10年동안 國際聯合總會에서 統一問題가 論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自己나라 立場에서, 이 問題에 對한 意見을 披瀝하였습니다. 10余차례나 國際聯合總會는 韓國의 統一이 韓半島에 살고 있는 韓民族 全體의 「유엔」監視下의 總選舉를 通하여 實現되어야 한다는 決議案을 通過시켰습니다. 그러나 北韓當局은, 또한 그의 背後勢力은 이를 反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現實下에서 南北分斷에 關한 問題를 解決함으로써 統一課業을 前進시키기 위하여, 1970年 大統領閣下의 8.15宣言에 이어 그 다음해 8月 우리는 우리의 主導下의 南과 北이 對話를 始作하였습니다.

全世界는 이러한 우리의 努力에 對해 全幅的인 支持와 聲援을 보냈습니다. 昨年 第28次 國際聯合總會는 우리의 意思를 反映시켜 南과 北이 相互對話를 繼續할것을 支持하는 決議案을 滿場一致로 採択하였습니다.

世界의 모든 나라가 表決없이 滿場一致의 形式으로 우리가 主張하는 對話의 繼續을 促求하도록 決定하였다는 事實은 우리의 立場으로 보나 國際聯合의 立場에서 보나 커다란 成果라 하겠습니다.

全世界는 對話를 통한 問題 解決을 要求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人道問題의 解決을 爲한 赤十字會談은 始作한지 近 2年이 되었으나 是까지 아직 아무런 進展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南北調節委員會 會談도 아직 問題解決의 실마리조차 究見하지 못하고 있는 狀態에 놓여 있습니다.

南北間의 相互不信은 깊어가고 있으며, 北으로부터 우리에게 對한 理由없는 誹謗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西海岸의 우리 島嶼에 對한 正當한 航海權이 威脅을 當함으로서 다시 緊張은 高潮되고 있으며, 世界는 다시 韓半島 安全問題에 關心을 갖기 始作 하였습니다.

全國의 基督教人 여러분!

統一에 關한 우리의 主張은 分明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땅에 平和를 定着시켜야 하겠습니다.

1950年과 같은 韓國戰爭은 斷乎히 防止하여야 하겠습니다.

南과 北 사이에 緊張을 緩和시키고, 平和를 定着시킴으로서 相互 信賴를 樹立한다면, 그 基礎위에 進行될 對話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主張은 「韓半島에 平和를」, 그리고 「統一은 平和的 方法으로」 라는 것입니다.

平和的 方法이 아닌 統一은 侵略戰爭입니다. 同族相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限死코 反對하며, 防止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確信하고 있습니다.

平和的 統一方法은 對話를 通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對話에 代置하는 方案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主張하는 對話에는 아무런 前提條件이 없습니다.

萬一, 北韓當局이 아무 條件없이 우리와 같이 對話를 繼續한다면, 우리民族은 누구나 다같이 祖國分斷의 負擔과 苦痛을 훨씬 輕減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統一의 偉業도 반드시 成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南北이 統一되어, 五千萬이 힘을 合한다면, 우리 韓民族은 世界 어느나라에도 遜色이 없는 偉大한 發展을 이룩할 수 있으며, 世界史에 커다란 比重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極東에 있어서의 平和의 安全勢力으로 커다란 貢獻을 하게 될

것입니다.

本人은 昨年 11月 15日 第28次 國際聯合總會에서 北韓當局이 參席한 가운데 全世界 代表들에게,

• 우리의 統一問題는 가장 重要하며, 쉽게 解決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民族의 슬기로 이 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의 悲劇的 歷史를 바로잡아 우리땅에 平和의 基礎를 마련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 이것이 우리의 歷史的 使命 • 이라고 말하셨습니다.

全國의 基督教人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問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問題는 世界의 어느 누구도 우리 以外에는 解決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解決하여야 하겠습니다.

統一에의 길이 平坦하지 않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努力은 決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은 어려운 問題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반드시 意味가 있는 줄 압니다.

悠久한 民族의 歷史를 되돌아 보면, 分斷祖國의 統一을 實現하기 위하여 努力하는 우리야말로 特別한 使命을 가진 時代에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本人은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休戰線 저편을 아무 支障없이 오고 갈수 있는 그날이 올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五千萬 同胞가 누구나 自由로이 南北을 오고 가며, 서로 만나게 될날이 올것을 믿고 있습니다.

全國의 基督教人 여러분!

基督教의 精神은 • 믿음과 所望과 사랑 •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希望에 찬 1974年이야말로 이러한 偉大한 精神을 發揮할 때인줄 압니다.

統一에 對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압니다.

統一에 對한 強烈한 所望은 반드시 實現될 것입니다.

民族에 對한 偉大한 사랑은 반드시 南과 北의 障壁을 뚫고 말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偉大한 民族的 使命을 위하여 政府나 國民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前進합시다.

여러분의 熱烈한 기도와 讚頌가운데 이사람 亦是 敬虔한 마음으로 우리의 앞날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1974年1月3日

國土統一院長官 金 溶 植

라. 高大亞研主催「韓半島周邊情勢와

南北韓關係」學術會議 長官致辭

親愛하는 内外貴賓 여러분!

그리고 各界各層을 代表하여 오늘 이 會議에 參加하신 統一問題專門家 여러분!

本人은 우선 이 자리를 빌어 우리 民族의 宿願인 祖國의 統一問題를 細討하기 위하여 國內碩學들을 總網羅한 가운데 오늘같은 大規模 統一問題 學術會議을 開催한 高麗大學校 亞世亞問題研究所와 關係教授 및 專門家들에게 政府를 代表하여 뜨거운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 會議은 時期的으로 보아 祖國의 平和的 統一에 큰 期待를 안겨준 7·4 共同聲明 第2週年에 즈음하여 열리게 되었다는 데 대해 本人은 남다른 感懷와 意義를 느끼는 바입니다.

이 모임에서 本人이 느끼는 또 다른 意義는 參加者들 모두가 너나없이 分斷된 祖國의 悲劇과 苦痛을 함께 나누면서 成長해온 이 나라의 知性人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問題를 第三者의 立場이 아닌 바로 우리 自身の 立場에서 함께 討論하고 이로써 統一을 向한 우리 民族의 進路를 밝히는데 實質的인 貢獻이 있을 것으로 期待된다는 點입니다.

이같은 感懷와 期待가 깃든 學術會議에 參加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對話하고, 함께 討論하고 우리 民族의 將來를 共同으로 摸索할 機會가 附與되었다는 事實은 本人에게는 가장 보람차고 意味있는 經驗의 一部分이 될 것으로 確信하는 바입니다.

親愛하는 各界指導者 여러분!

本人은 政府에서 統一問題를 맡고있는 사람으로서 이 機會에 여러분들이 檢討할 主題와 關聯시켜 現時點에서 韓半島를 生活터전으로 살고있는

韓民族의 우리 世代가 期必코 成就해야 할 우리 統一課業의 基本性格과 今後의 進路, 方向에 關해 平素의 所信을 밝히고자 합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같이 우리 民族은 第2次 世界大戰의 終結과 그 에 뒤이은 東西世界의 冷戰化 過程에서 우리의 主張과는 아무 關係 없이 南과 北으로 갈라지는 悲運에 逢着했습니다.

原來 하나이었고 또 하나로 되어야 할 民族이 他意로 分斷되면서부터 우리 民族의 이땅에서의 政治生活은 筆舌로 形容할 수 없는 苦痛과 悲劇으로 點綴되어 왔습니다.

解放된지 5年만에 우리는 北韓共產主義者들의 奇襲南侵으로 民族史上 類例없는 民族相殘의 悲劇을 體驗했습니다.

滿 3年間 繼續된 戰爭으로 全國土는 焦土化되었고 數百萬의 同胞가 목숨을 잃고 民族의 文化財가 破壞되고 燒失되는 쓰라림을 겪었습니다.

歷史上 처음 보는 이와 같은 災殃이 우리가 記錄하는 歷史의 一部로 編入된 이래 우리 南北韓間에는 地球上 어느 곳에서도 目擊할 수 없는 文字 그대로의 “鐵의 帳幕”이 내리워 졌습니다.

한 핏줄을 이어받고 한 울타리 속에서 成長해 온 同胞間에 한마디의 對話도 往來도 交流도 完全히 遮斷되었고 南北韓은 百萬 大軍을 가운데 두고 軍事的 對峙의 歷史를 記錄하기 始作했던 것입니다.

休戰線을 사이에 두고 높은 軍事障壁이 펼쳐진 가운데 南北韓은 共히 相互 異質化의 途程에 올랐던 것입니다.

이제 南北間에는 外交, 國防, 財政등의 分野에서는 完全히 容納되기 힘든 이데올로기를 構成原理로 하여 異質體制가 確立되었고 教育, 文化의 分野에서도 南北韓間의 社會的 過程의 差異 때문에 異質化가 急速히 進行되고 있는 實情입니다.

民族에 關한 概念定義가 달라졌고 歷史를 解釋하는 方式이 달라지고 있으며 國民教育의 目的과 方向도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우리 민족의 共通된 言語生活에서 마저 異質化가 進行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現實인 줄 압니다.

돌이켜 보건데 우리 겨레가 韓半島에 國家的 統一을 成就한 것은 時間的으로는 新羅가 唐나라 軍隊를 逐出시킨 西紀 676年부터이며 空間的으로는 오늘날 大同江 以南의 地域에서 인 줄 압니다.

그때로부터 우리 민족은 한 테두리 즉 國家的 單一性을 갖게 되었고 그후 10世紀初의 高麗時代에 이르러 三國의 歷史를 우리의 所有로 하는 共通된 歷史意識을 確立함으로써 민족의 同質性을 굳혀 나왔습니다.

또한 15世紀初에 한글이 創制되면서 부터 우리 민족은 單一의 領土 안에 血緣, 文化, 歷史, 言語를 共有하는 民族國家的 自己 完成을 보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처럼 國家史的으로는 1千3百年間의 單一性을, 그리고 民族史的으로는 約 1千年 以上の 同質性을 涵養해 왔습니다.

全 世界의 文明史家들이 公認하는 우리 겨레의 이 單一性과 同質性은 分明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民族的 矜持의 源泉일뿐만 아니라 우리 世代가 이 땅에 다시금 統一民族國家를 完成해야 할 信念의 基礎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不幸히도 1950年代에 共產集團의 南侵으로 始作된 戰爭과 그 에 뒤이어 4半世紀 동안 持續된 南北冷戰은 민족의 同質性을 變質시켰고 또한 變質이 進行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分斷은 한층 더 深化되고 分斷이 가져다 주는 民族的 負擔은 더욱 더 무거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같이 민족의 同一性을 完全히 喪失해 버린다면 民族 統一에 對한 우리의 主張, 민족의 부르짖음은 그것이 아무리 우렁차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實効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歷史를 돌이켜 보는 것은 過去의 事件을 單純히 回顧 하는데

意味가 있는 것이 아닐 줄 압니다.

歷史란 本質적으로 過去의 事件들과 未來를 向한 우리들의 目的과 對話를 意味하는 것이기 때문에, 民族史에 對한 우리들의 回顧는 過去와 未來를 잇는 現時點에서 우리民族이 解決해야 할 課題의 本質을 明確히 照明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韓民族의 우리 世代는 지금 또 다른 同族相殘의 可能性이 完全排除되지 않은 狀況속에서 民族統一의 밑바탕이 될 民族的 同質性 喪失의 危機에 直面하고 있습니다.

우리 世代가 이 挑戰을 克服하지 못한다면 祖國의 平和的 再統一에 對한 우리의 꿈은 우리가 成就할 수 있는 解決可能의 範圍를 벗어나고 말 것입니다.

親愛하는 統一問題專門家 여러분!

本人이 알기로는 지금까지의 世界史속에서 消滅되지 않고 살아남은 民族이란 모든 形態의 逆境속에서도 自身の 位置와 나아갈바를 正確히 表現할 줄 아는 民族이었다고 합니다. 歷史學者 토인비는 모든 挑戰에 能動的으로 應答할 줄 알았던 民族만이 文明속에서 生動하고 있다고 証言했습니다.

祖國이 南北으로 分斷된 이래 國內外를 莫論하고 各界 各層에서, 各種의 會議에서 우리의 分斷과 統一問題를 놓고 많은 討論이 展開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統一에 關한 모든 討論은 恒常 問題의 表面을 다루었을뿐, 本質은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統一에 關한 民族的 意慾을 앞세웠을뿐 어려운 條件에서 統一을 成就시킬 民族的 叡智는 發散되지 못했습니다.

地球上 約 1百50個 國家中에서 왜 우리가 極少數의 分斷國家속에 包含되어야 했고, 또한 왜 오늘에 이르기까지 分斷狀態가 改善되지 않은채 한層 더 深化되고 있으며 마침내 이 過程에서 祖國統一의 基礎가 될

民族의 同一性이 喪失되고 있는가를 科學的으로 診斷해 보고, 이 基礎위에서 統一問題를 智慧롭게 解決할 方向을 案出하는 努力이 不斷히 展開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不幸히도 統一에 關한 意慾과 期待만 높았을뿐 智慧가 發見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의 平和統一을 위해 결코 있어서는 안될 同族相殘의 悲劇을 共產主義者들의 挑發로 因하여 겪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分明코 戰爭이 韓半島 統一의 手段이 될 수 없을뿐만 아니라 統一의 手段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確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現行憲法에도 그 前文에 平和統一을 指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戰爭을 防止하고 平和統一理念을 具現시킬 智慧를 開發해야 하겠습니다.

親愛하는 各界指導者 여러분!

今年으로 우리는 國土分斷 29個 星期을 지냈고 6.25 動亂이 일어난지 25年을 經過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座標는 統一이 民族의 至上課業이라고 해서 南北韓은 無條件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感想的 民族主義가 우리에게 어필될 수 없는 時期에 이르렀다는 事實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6.25의 悲劇을 통해 共產側이 同族間의 武力行使를 통해 韓半島의 現狀打破를 試圖했다는 것이 얼마나 無謀한 것이었는가를 切實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6.25의 悲劇을 忘却하는 世代가 되어서도 또 될수도 없으며 6.25의 教訓을 되새겨 우리가 追求하는 統一이 5千萬同胞들의 共存共榮을 約束하는 平和統一이라는 것을 証言할 世代가 바로 우리 世代인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金日成의 宣傳員들 처럼 南韓에서 美軍만 撤収하면 우리의 統一이 數個月內에 成就될 수 있다는 妄想을 내세우는 "우리 民族의 다른 部分 사람들과도 現實에 뿌리를 내린 對話를 통해 그들을 幻想으로

부터 解放시킬 民族的 使命의 世代로서 進路를 잡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統一問題를 어떤 梁空의 法理論이나 民族的 悲願이라는 抽象的 期待를 充足시키기 위해 拳論하는 世代가 될 수 없는 狀況에 處해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南北으로 갈라져 對立하고 있는 우리民族의 政治生活에서 具體적으로 提起되고 있는 問題들을 하나씩 解決하는 方向으로 統一問題를 다루어 나가는 智慧로운 民族의 姿勢를 새롭게 定立할 때에 이른것 같습니다.

政府는 70年代에 접어들면서부터 大統領 閣下의 英斷을 받들어 南北間에 平和統一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對話를 열었습니다.

1970년 8.15 宣言으로 7.4 南北共同聲明과 6.23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 그리고 今年度 南北韓 相互不可侵協定提議에 이르기 까지 지난 5年間은 한마디로 政府의 統一努力이 東西冷戰의 굴레를 果敢히 벗어나 民族自身의 利益을 向해 現實化되는 時期였다고 斷言할 수 있습니다.

특히 7.4 南北共同聲明은 國土分斷以後 最初로 民族의 統一을 平和적으로 成就하자는데 南北이 合意했다는 點에서 平和統一을 向한 우리 民族史의 展開過程에서 各別한 意義가 있는줄 압니다.

그러나 北韓은 7.4 共同聲明에 合意했음에도 不拘하고 이 聲明에서 闡明된 原則을 遵守하기는 커녕 도리어 韓國의 安全保障을 弱화시킬 心理戰 道具로 7.4 共同聲明을 逆利用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自主의 原則은 美軍撤収主張으로 平和의 原則은 韓國만의 一方的인 軍備弱화 要求로 또 民族團結의 原則은 우리들의 反共思想 武裝의 解除 要求로 惡用되고 있습니다.

北韓側의 7.4 聲明違反은 비단 이같은 心理戰 次元에만 局限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8월부터 北韓은 南北對話를 一方的으로 中斷하고 今年에 들어와

서는 또다시 東西兩海上에서 우리의 漁船을 擊沈 하고 警備艇을 沈沒 시키는가 하면 武裝間諜船을 兩派시키는등 각종 軍事的 挑發을 激化함으로써 南北關係를 또다시 7.4 聲明 以前의 狀態로 後退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北韓의 이같은 處事는 한마디로 그들이 祖國의 統一을 7.4 聲明의 精神에 立脚하여 解決할 意圖가 없다는 것을 立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政府는 7.4 南北共同聲明이 어느 境遇에도 祖國의 平和統一을 위한 精神的 指標임을 確信하기 때문에 北韓側이 하루빨리 7.4 聲明의 根本精神에 復歸할 것을 다시금 促求하는 바입니다.

政府는 이 聲明의 精神에 立脚하여 對話를 通해 같은 民族이 또다시 武力으로 對決하는 悲劇을 未然에 防止 하는 한편 南北間에 民族的 連繫를 되찾는 交流의 基盤을 造成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分斷에 基因하는 民族的 苦痛과 不便을 解決可能한 것부터 하나씩 덜어 나가려고 努力하고 있습니다.

萬一 南과 北이 冷戰의 論理가 아닌 民族 共榮의 論理에서 對話를 正常的으로 展開해 나간다면 우리 民族의 分斷苦痛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며 民族的 同質性回復의 可能 範圍도 그만큼 擴大될 것이다.

이러한 問題解決方式은 統一에 對한 성급한 期待는 滿足시킬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 世代가 追求해야 할 統一의 實質的 目的, 즉 分斷에 基因하는 苦痛과 不便은 分明코 덜어줄 것입니다.

現在의 南北間에는 社會的 同質性이 없고, 이데올로기가 對立되고 있으며 對外關係에서 共通된 紐帶意識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形態로도 政治的 一括解決을 期할 수 없는 形便에 處해 있습니다.

그럼으로 우리 世代는 統一問題에 關한 制度的 解決을 性急히 追求하기에 앞서 南과 北이 아무 支障없이 서로 來往하고 物資를 交換하고 民族文化를 共通으로 發展시킬 수 있는 狀態를 時急히 回復하는데 統一

노력을 集中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南北關係를 誘導할 수 있는 條件의 形成過程 하나가 곧 우리에게 있어서는 統一에 가까워지는 길인 줄 믿읍니다.

本人은 이러한 見地에서 韓民族의 우리 世代가 이 時点에서 摸索해야 할 統一은 統一成立의 條件이 나날이 改善되는 “過程으로서의 統一” 바로 이것이 우리가 目標로 삼아야 할 統一의 길이라고 굳게 믿는 바입니다.

“過程으로서의 統一”은 오늘날 우리 民族에게 주어지고 있는 모든 制約과 可能性 속에서 우리가 達成할 수 있는 目標과 達成하고 싶은 目標을 區別하고 이 두 目標間의 間隔을 좁혀가는 統一노력을 말합니다.

體制와 理念이 根本적으로 다른 條件下에서 하나의 正統 政府와 이에 挑戰하기 위하여 樹立된 共產集團이 一朝一夕에 하나의 單一政府로 統合된다는 것은 그 前例도 없거니와 現時点에서는 거의 期待할 수 없는 줄 압니다.

本人은 오늘날 分断國家問題의 世界的 解決方向이나 또한 우리 南北關係의 現實에 비추어 우리의 統一方向은 오직 하나 統一條件을 하나씩 改善해 나가는 過程에 우리 自身을 能動的으로 參與시키는 것이라고 主張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統一條件이 改善되기 爲해서는 무엇보다도 優先 이땅에 平和가 定着되어야 할 줄 압니다.

戰爭도 平和도 아닌 冷戰의 對峙狀態 속에서는 우리의 統一條件이 改善될 수 없읍니다.

武力對決의 또 다른 可能性이 孕胎되는 條件속에서는 平和統一의 意志가 開發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南北間에 對話의 通路는 열렸어도 民族的 同質性 回復을 위한 積極的 開放과 交流가 展開되지 않고 있습니다.

體制와 理念은 랄라도 協力과 交流가 繼續 擴大趨勢에 있는 것이요

날의 世界요 國際關係입니다.

우리의 南北關係가 改善되지 못하는 것은 一方의 主義 主張을 他方에 強要하려는 冷戰을 共產側이 清算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땅에 平和를 定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南北關係에서 冷戰의 論理가 清算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續하는 平和는 單純히 南北間에 戰爭再發단을 防止하는 消極的 平和가 아니라 民族의 同質性을 回復시킬 수 있는 積極化 平和統一條件을 文명하는 平和이기 때문입니다.

政府는 6.23 平和統一 外交政策宣言을 通해 南北共히 平和統一을 위해 冷戰의 論理에서 解放되는 民族史의 새로운 局面을 開拓할 것을 提議하고 우리의 統一政策을 이 方向으로 轉換시켰습니다. 또한 南北共히 유엔에 同時 加入할 것도 主張했습니다.

南北關係 改善의 現實의 現實의 効力이 遵守되는 가운데 서로 侵略하지 않고 干渉하지 않을 不可侵協定の 締結을 北韓當局에 提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政府의 立場은 現實의 努力은 北韓當局의 非現實的 主張, 幻想的 強辯에 의하여 事實上 아무런 實效를 見우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南北關係는 重大한 試驗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韓半島 問題의 平和的解決에 寄與할 建設的提議를 내놓으면 北韓은 冷戰論理를 그대로 繼承하는 否定的 心理戰으로 應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當面한 現實입니다.

은크적과 그의 宣傳員들은 南北韓의 同時 유엔加入과 不可侵協定이 우리 民族의 分斷을 固定化 시킨다는 心理戰을 對內外的으로 積極 展開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國際法의 現實에서 狀況을 보지않고 그들의 空想的 觀念위에서 現實을 判斷합니다

南北韓의 同時 유엔加入이 分斷 固定化의 法的 根拠가 될수 없다는 것이 유엔秩序의 嚴然한 現實임에도 不拘하고 그들은 우리의 正當한 主張을 全面 拒否하고 있습니다.

北韓側의 이같은 態度 때문에 오늘날 全世界的 規模로 痛을 올린 「鐵의 帳幕」이 아직도 이 땅에는 그대로 내리워져 있습니다.

親愛하는 統一問題 專門家 여러분!

이제 本人의 이야기를 끝맺을 段階에 이른것 같습니다.

本人은 平素부터 分斷國家의 統一은 그것이 外部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心要로 하는 國民들이 自主的으로 解決해야 할 課題라고 믿어 왔습니다.

이 점에서 앞으로 이틀동안 継続될 國內學者 統一問題 學術會議가 이 特点에서 우리 民族이 直面하고 있는 南北關係 改善의 現實的 代案 開發의 産室이 될 것을 本人은 굳게 믿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本人은 여러분들의 討論에 多少라도 貢獻한다는 意味에서 政府의 當面한 平和統一推進의 基本立場과 構想 그리고 北韓側에서 取해야 할 姿勢를 몇개 項目으로 나누어 提示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政府의 基本立場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統一努力은 南北韓이 過去 現在 未來를 通해 결코 分離될 수 없는 하나의 祖國을 平和的 方法에 依하여 統一하여야 한다는 歷史的 使命의 認識에서 出發합니다.

分斷된 祖國을 平和的으로 統一하기 爲해서는 相互信賴와 民族的 同質性을 回復하며 統一條件의 實質的 改善을 이룩해야 합니다.

南北韓이 分斷된후 처음으로 合意하고 그후 28次 國聯總會에서 滿場一致로 支持된 7.4 共同聲明의 遵守가 平和統一에 이바지 할것을 確信하

며 北韓이 이를 遵守 할 것을 促求합니다.

둘째로, 平和定着을 위해 取할 措置의 方向은 다음과 같습니다.

北韓은 韓半島 平和維持의 根幹으로서 休戰協定の 効力を 持續 시키는 가운데 相互不可侵, 武力不行使를 約束하는 不可侵協定 締結에 同意해야 합니다.

北韓은 大韓民國을 所謂 共產革命 및 解放對象 地域으로 定義해온 非現實的 革命統一路線을 拋棄함으로써 祖國의 平和統一에 對한 原則的 障礙要素를 除去해야 합니다.

北韓은 南北韓의 同時 유엔加入이 南北韓의 冷戰的 對峙狀態의 解消에 寄与할뿐 分斷을 固定시킬 法的根拠가 될수 없다는 國際法의 現實을 認定해야 합니다.

우리 7.4 南北共同聲明을 支持하는 모든 國家와 關係를 改善하는 同時에 過트와 現在를 通해 存続해온 一切의 不自由스러운 敵對關係를 解消하는데 注力할 것입니다.

우리는 人道的 次元의 分斷苦痛을 解消하기 위한 南北赤十字會談에서 北韓側이 誠意를 다할 것을 促求합니다.

앞으로 北韓當局이 자기 이상의 原則을 尊重하고 提示된 措置를 取한다면 우리는 極東地域에서의 緊張緩和에 寄与하고 나아가 東北亞細亞의 平和秩序 形成에 主導的 役割을 遂行하게 될 것으로 本人은 믿읍니다.

우리는 이 立場에서 더 以上 後退할 수 없으며 北韓의 態度가 이 方向으로 轉換되도록 諸般努力을 傾注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建 투를 빕니다.